

SINCE 1997 · KIJEON CULTURE & ART 통권 제16호 www.kcf.or.kr



문화예술



“흙으로 빛는 미래”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특집 / 孝 왜 경기도인가?

9·10



하나된 농협 함께하는 새천년

든든해서 좋아요~!

농협이니까 믿을 수 있다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농협이 축협, 인삼협과 하나로 통합되어
농업인에게는 든직한 후원자로,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농축산물로,
고객에게는 더욱 든든한 금융기관으로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농축산물이 가장 좋기에-
농업은 우리의 생명창고를 지켜내는 일이기에-
우리 곁엔 언제나 농협이 가까이 있습니다.

든든한 민족은행
nonghyup.com 농협닷컴





고려청자에서 시작된 것으로 상감기술의 수고를 덜고 보다 규격화하기 위해 문양이 새겨진 도장을 찍어 백토를 채워 넣었다. 15세기 초반에는 큼직한 단독 문양이 뚜렷하게 시문되었으나 점차 문양이 작아지고 지면이 빽빽히 채우는 쪽으로 발전하였으며, 15세기 중엽경에 최고의 수준이 보인다. 푸른 색이 약간 나는 유약을 씌워 정결하면서 신선한 기운이 넘친다.

- 호암미술관 제공 -

일제침략 역사왜곡 바로잡기

/ 화성 · 조선해 우표 나왔다



이종학 / 서지학자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 사건은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일본 보수화는 더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학씨는 쉬임없는 역사왜곡 바로잡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역사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한·일간의 팽팽한 신경전과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가 한국은 물론 세계를 긴장시켰다. 그동안 잠잠했던 역사왜곡 문제가 다시 등장한 것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집필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부터 비롯됐다. 서지학자 이종학씨는 지난 3월 평양에서 항일역사자료 전시회를 갖고 왜곡된 사관 바로잡기에 힘을 쏟아왔다. 당시 평양에서 전시된 자료들을 모아 일본에서 전시회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학씨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일한병합시말」을 책으로 발간했고, 이 때 이미 교과서 왜곡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역사왜곡문제와 관련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조선해' 표기 고지도를 개인우표로 만들어 교과서역사왜곡 바로잡기운동에 앞장서게 된 것이다.



Photo by 한영호 (경인일보 기자)

화성과 조선해 고지도 우표는 한국조폐공사와 우체국이 협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발송할 우편물에 사용되고 있다.

- 우리는 날마다 물러나고, 저들은 날마다 덤벼들고

이종학씨는 “화성을 우표에 넣게된 것은 정조 때 지은 「화성」을 일본이 「수원성」이라 부르게 한 비틀린 역사의를 바로잡기 위함인 것”이라 밝혔다. 또한 “조선해 명칭찾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이번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일본이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그들의 비뚤어진 역사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이와 관련 8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세계도자기엑스포 전기간동안 여주 명성황후기념관에서 「일제침략 역사왜곡전」을 전시하고 있다. 



孝

왜 경기도인가?



홍기현

경기문화재단 사무총장

경기도에서 효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는가. 효는 보편적인 민족의 생활문화였고 정신적 지주였음에도 오늘날 경기도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충·효의 터전 기전지방(畿甸地方)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효의 생활화를 사상적 바탕으로 한 불교를 통치이념으로하여 출범한 고려 건국의 터전인 왕도 개성과, 삼강오륜을 국민통합의 사상적 지도이념으로 출범한 유교국가 조선왕조 창업의 왕도를 포용하여 1천년을 내려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보고였음은 세인이 주지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경기도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고려사찰과 문화유산이 말해주는 효의 현장, 그곳은 하나같이 국태민안과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는 충·효의 정신으로 충만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효의 근본을 생활화한 유교문화의 실상 또한 경기도의 상징으로 후세를 일깨우고 있다. 예컨대 국민윤리의 사상적 근원이었고 충·효를 기본이념으로 한 성리학이 만개하여 경기학문을 이끌었던 기호학파의 산실 파주의 자운서원과, 신사임당 율곡선생의 정신적 효행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安危를 돌보지 않고 충·효의 화신으로 살신성인했던 경기도 명현석학의 행적이 오늘날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신(修身)이 있고 제가(齊家)가 있는 곳, 효(孝)의 현장 경기도이다.

9·10월호

2004년

1	京畿美	粉靑沙器鐵畫魚文壺	편집실
2	초점	일제침략 역사왜곡 바로잡기/이종학	편집실
4	권두칼럼	孝 왜 경기도인가?	홍기현
6	Photo News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8		80일간의 도자여행 '흙으로 빛는 미래'	이도형·서정문
10		이천, 도자예술의 산업의 전진기지	
17		여주, 한국생활도자의 메카	
24		광주, 왕실자기·조선백자의 고향	
31		효(孝) 유적지 순례	
33	경기도 효(孝)문화 학술회의	새로운 보편주의의 전망 등	편집실
49	Cyber Gallery	Art space 경기	편집실
55	Review 1~7	생동하는 경기문화	
56		경기문화재단 개관	
60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 개장	
64		2001 스페인 조각가 초대전	
66		YTN대학생 영상공모전 최우수 작품상	박경진
68		이영희 패션쇼	
70		경기체험문화교실	
72		도자기엑스포 이벤트	
74	社告	다시 쓰는 경기도자史	편집실
75	인물스케치	전통자기 재현 '팔방미인' / 손유순	서정문
79	단체탐방	제6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최영준
81	전통문양을 찾아①	왕릉의 미소/전통문양을 찾아	권보문
87	TV사극 인물명전①	왜 그는 그렇게 해야 했는가/조광조	강대욱
92	문화재발굴기(14)	독산성과 세마대	김아관
97	떠도는 길, 흐르는 강(14)	가평가는 길	김명훈
105	문화비평	디지털 시대의 문학	김현탁
108	Essay	경기북부 文化를 생각한다	장석원
110	식탁생활한방	된장을 아십니까? 그 신비의 항암제를(2)	임재학
112	문화일기	내 마음의 총독부는 살아 있다(?)	김홍남
114	경기 Art Calenda	경기도 지역별 문화행사	김영희
120	편집후기		



표지설명
세계도자기엑스포 큰 불을 지피다.
이 가을을 태우는 도예축제
흙의 미래와 불의 역사가
순백의 달항아리로 떠오른다.

-조선백자의 장수/달항아리

발행인 임창열 / 편집인 홍기현 / 편집위원장 정상환 / 편집실전문위원 김명훈·편집주간 강대욱·편집장 서정문 /
발행처 경기문화재단(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전화 031-231-7255 / 팩스 031-236-3708 / 편집디자인 경기홍보연구소
/ 제작 경기출판사(전화 031-231-5520~5)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WORLD CERAMIC EXPOSITION 2001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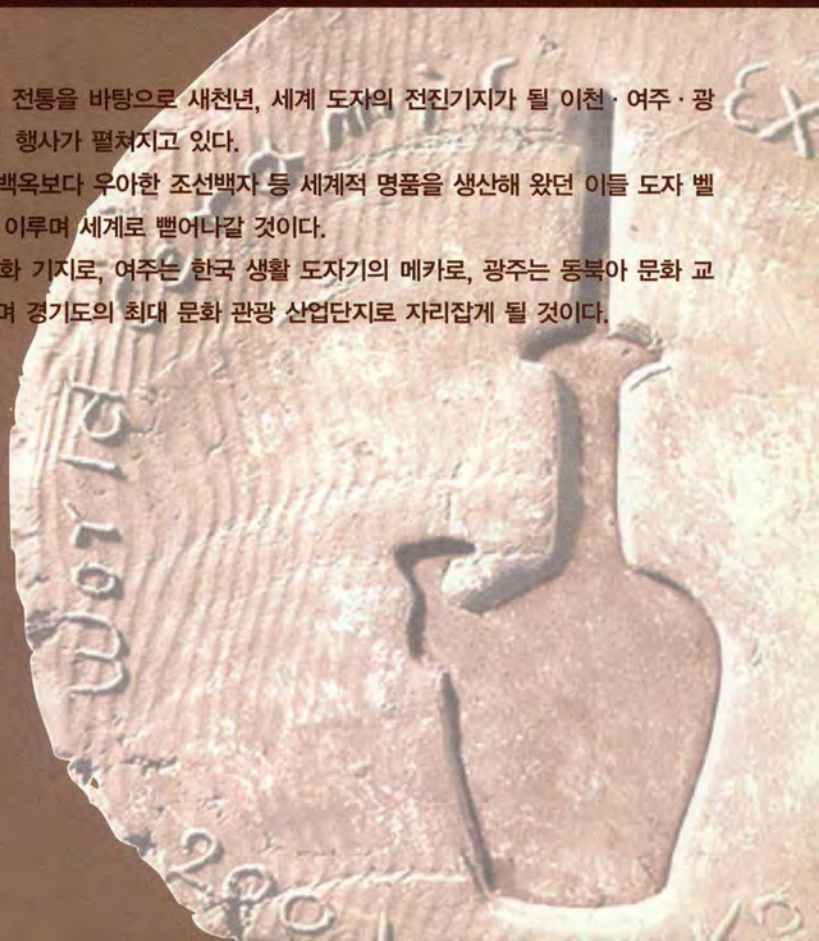


PHOTONEWS

반만년 역사를 빛내 온 우리 도자기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천년, 세계 도자의 전진기지가 될 이천·여주·광주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비취보다 더 고운 비색의 고려청자와 백옥보다 우아한 조선백자 등 세계적 명품을 생산해 왔던 이들 도자 벨트는 이 행사를 기점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다.

이천은 우리 도자 예술과 산업의 세계화 기지로, 여주는 한국 생활 도자기의 메카로, 광주는 동북아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각각 발전해 나갈 것이며 경기도의 최대 문화 관광 산업단지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80일간의 세계도자여행

흙으로 빛나는 미래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가 8월 9일 오전 주행사장인 이천에서 개막식을 갖고 80일간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흙으로 빛나는 미래(Shaping the Future with Earth)’를 주제로 오는 10월 28일까지 개최되는 도자기엑스포는 이천 행사장에 이어 여주와 광주행사장에서 각각 개막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됐다.

경기도는 이 행사를 위해 모두 1600여억원을 투입, 32만여평에 이르는 이천·여주·광주 등 3개 지역의 엑스포행사장 조성을 완료했다. 또 세계도예센터(이천), 세계생활도자관(여주), 조선관요박물관(광주) 등 연면적 1만4291평의 3개 건축물을 준공했다. 주행사장인 이천의 토야랜드와 여주행사장의 한글나라, 광주의 흙의 나라 등 흙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도 조성했다.

지난 1999년 1월 구성된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는 지금까지 2년 7개월에 걸친 준비기간을 통해 주요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을 마련하고 국내외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왔다.

행사기간 중에는 약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국내외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고 각종 공연과 전시행사가 실재없이 펼쳐지게 된다.

조직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역 행사별 공연장과 테마파크, 운영본부, 조정 등 행사장 조성을 완료했으며, 도자기 전시와 각종 공연 리허설을 가졌다. 아시아 15개국, 유럽 39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오세아니아 3개국, 아프리카 10개국 등 모두 82개국에서 출품하는 2,457점의 도자기 전시를 끝냈다.

농협 외식사업부가 주관하는 음식 품명회를 갖고 경기도의 전통 맛을 선보였으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볼거리와 관람객이 도자기 제작에 참여하는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이천·여주·광주 등 행사를 진행하는 해당 자치단체들은 엑스포와 연계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인근관광지에 대한 정비와 홍보내용 등을 심층취재했다.

글 | 이도형 사진 | 서정문

Icheon-city



이천

도자예술과 산업의 전진기지

엑스포 주행사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이천은 1960년 이후 350여개 도자기가마가 모여있으며, 전통예술도자의 흐름을 주도했던 한국도자의 중심지로서 13만평 엑스포 부지에는 1,815평 규모의 세계도자 센터가 건립되어 전시·회의·이벤트행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됐다. 특히 곰방대가마 조형물(곰방대와 오름가마를 응용한 조형작품)과 토아 랜드 등 흙을 매개로 한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6,200평 규모의 부대편의 시설에는 도예창작동과 공연장·영상관·도자기 판매센터·식음료 시설 등이 마련되어 관람객들이 쉬면서 도자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도자 그 형언 할 수 없는 아름다움

무명(無名)의 철학

백자의 색조를 젓빛이라고 했다. 그 젓빛 백자를 바라보며 잠시 우매한 생각에 젓었다.

추사 김정희와 당대의 도공들, 그리고 성철스님과 무명의 승려는 모두 이 땅에 살다간 인물들이었다. 서성(書聖)으로 추앙 받는 추사나 불가 전체의 백년 포교 뭇을 홀로 이룬 성철은 또렷한 이름 석자를 남겼다. 반면 무명의 도공과 승려는 이름은커녕 그림자조차 거두어가 현재 우리의 기억 밖에 있다. 추사와 성철을 폄하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단아한 이 한 점의 백자를 바라보며 전통도자기의 발자취가 무명 인물들의 삶과 닮은꼴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중국 도자기는 가마의 명(銘)을 존중하고, 일본 도자기는 도공의 명(銘)을 존중하여 지금도 역사의 산맥처럼 전해져 온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도자기는 가마의 이름이나 도공의 명성 따위는 애초 관심이 없었다. 그저 용기 자체로만 존재하고 그 삶을 충실히 살아왔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비교하면 요즘, 미(美)가 아닌 학문으로 옮겨간 상당수의 현대 도자 예술과는 분명 그 격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공모전이나 개인전은 10여쪽 분량의 팸플릿을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작품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한다. 작품은 팸플릿에 끼인 사이비 철학의 삽화 같은 두려움마저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도자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음 한 자락으로 통했다. 백자나 청자의 그 맑은 색조가 마음을 끌고, 생활 용기나 관상용 가릴 것 없이 아주 친근한 기형을 갖고 있으며, 문양이 우리의 발길을 붙잡는 것이다. 눈을 액세서리화 해버린 상당수의 현대 도자 예술과는 정서를 직서 주는 힘에서 큰 차이가 있다. 팸플릿을 통한 도자 예술이 머리를 들쑤서 놓으면, 전통 도자기는 그러한 심신을 편안하게 유도하는 힘이 있다. 마치 일손을 멈추고 뒷동산에서 땀을 식히는 남정네의 심신이라고 할까. 우리의 마음을 여유로 이끄는 전통도자기의 멋과 맛은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적절하게 어울리고 쓰여졌다. 부엌에서는 부엌대로, 사랑방에서는 또 그대로... 심지어 요즘 신세대 아가씨들의 방에 탁하니 올려놓아도 나름의 기(氣)를 발산하며 어울리니 장소와 대상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미술품이 세계 어디에 있을까. 결코 국수주의적 발상이 아니다. 소더비경매장에서 우리의 철화백자용춤문항아리가 세계공예사상 최고가인 600억원 대에 거래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우리의 전통 도자기는 숨길 것은 숨김으로써 비로소 제대로 보이게 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







이천 '세계도자센터'에서 '세계도자문명전' '세계현대도자전' '국제공모전'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도자의
혼'을 주제로 한 '거리퍼레이드'와 행사장내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등을 자연스럽게 향유하면서 남녀노
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공원이 펼쳐지고 있다. 또한 야외공연장에서는 대륙별·문화권별 예술단이 '세
계민속공연', 국내 유명예술팀이 펼치는 '한국의 향연' 등의 공연도 관람객들에게 많은 갈채를 받고 있다.





이천행사장은 '곰방대가마'를 정점으로 아래에서는 '흙체험 행사장', 오른쪽에는 외국인들이 기념사진을 많이 찍는 '옛돌 야외전시장', 왼쪽에는 '야외 웅기전시장' 다도시연장 등이 위치해 있으며, 위쪽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토아랜드'와 '컴퓨터 게임장'이 있다. 그 위에 위치한 '세계도자센터' 오른쪽에는 외국인 작가들이 참여하는 작업장이 있고, 그 뒤로는 전통가마가 있어 일주일에 한번씩 가마를 지피고 있다. 또한 엑스포 본부 앞에는 전국 광역시·도 홍보관이 있어 저마다의 자랑거리를 선전하고 있다.





도자기엑스포 감상법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가 “우리보다 훌륭한 것이 있다”는 열린 마음과, 비교하는
 눈이다. 둘째는 세계 각국에서 온 명품과의 ‘활활한 만남’과 함께 디자인과 기술의 변모를 살피는 것도 도자문
 화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흙이 과학과 만나 어떻게 활용되고 산업적 전망은 어떤지를 눈여겨 보는 것
 이다. 미래의 ‘세라믹 전쟁’에 눈뜨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천행사장은 이천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기존의 '설봉공원'을 확대하여 조성된 만큼 그 규모와 부대시설이 한층 더 다양하다. 입구에 펼쳐진 넓은 호수와 중앙에서 뿜어대는 분수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또 다른 정취를 느끼게 한다. 행사장 오른쪽에는 행사장과 다르게 설봉산으로 오르는 고즈넉한 등산로가 있고 조그마한 약수터가 가까이 위치해 있다. 또한 걷기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토아열차'가 운행되고 있어, 이것을 이용해 행사장을 한바퀴 돌며 구경할 수도 있다.



YEJU-GUN



여주

한국생활도자의 메카

공동행사가장이 설치된 여주는 옛날부터 품질 좋은 백토(白土)의 산출지로 유명하며, 한국 생활도자기의 약 60%를 생산하는 한국 생활도자기의 중심지이다.

여주 신록사 주변 3만평 엑스포부지에는 858평 규모의 생활도자관이 건립되어 세계의 생활도자를 문화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꾸며져 생활도자기의 고장임을 실감케 했다. 「한글나라」 테마파크(한글 자모를 소재로 한 흙 조형물)가 조성된 공간에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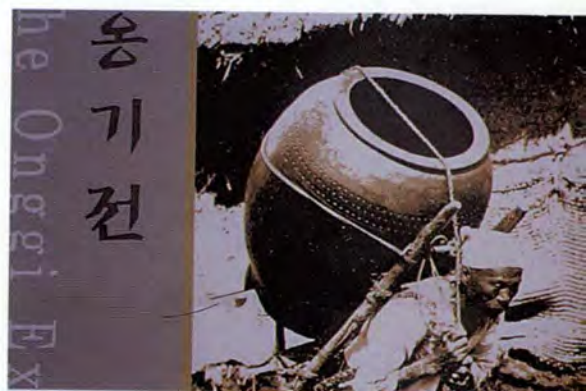


생활용기로서의 멋

고려시대의 청자가 호사스러운 특정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조선의 도자기는 철저하게 실용위주로 생산됐다. 전통도자기의 제작 기법은 모두와 공감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백성들의 심성은 도자기와 닮은꼴이었다. 특히 아낙네의 심성이 고왔던 이유는 매 식때마다 식기류를 설거지하며 요즘의 그것들처럼 마구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조심하여 정갈하게 닦아보면 자연스레 고운 심성이 배여 나왔던 것이다. 옛 도공들은 도자기 자체에 걸치레 비슷한 분단장 등 과중한 짐을 씌우지 않았다. 삶의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 친화적이며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도자기는 사물에 조화를 이루며 다소곳한 자기의 존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관상용품보다 생활용품 제작이 활발했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삶의 공간에서 만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 술병·대접 등이 대표적이겠지만 특히 대접은 시원하고 맑고 넉넉한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흰빛과 비취색의 아름다움이다. '참외과형주전자' 등은 불수록 그 의도가 재미있어 픽 웃음이 나온다. 무기교(無技巧)의 기교로운 멋은 우리 도자기의 본질에 해당한다. 문방구류의 연적 하나만 보아도 그렇다. 중국의 그것은 금분칠



을 하고 일본의 그것 또한 우리와 비교해 애초 번잡스러웠다. 일본의 공예학자 야나기 무네요시는 “조선은 연적의 나라라고 해도 좋다. 연적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조선은 어느 누구도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영역을 갖고 있다.”며 우리의 연적을 극찬했다. 또 ‘떡살’의 의젓함과 그 뜻의 세련미는 가히 무릎을 치고 만다. 떡살의 용도는 절편에 무늬를 찍고, 그 찍혀진 무늬의 자국에 여러 가지 색깔의 고물을 얹어서 떡의 볼품을 돋우어 주는데 쓰였다. 이밖에 베개, 바둑판, 미용도구, 제기류, 기와, 장례용기 등 전통도자기의 제작 실태는 실로 다양했다. 우리 전통도자기는 생활 속에 즐겨 사용함을 우선에 두었고, 장식적인 겉치레보다는 그것이 지닌 기능과 기품을 우선적으로 하여 조촐한 꾸밈새와 더불어 맑고 고운 마음의 자세를 엿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어떤 문화유산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무언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문화유산은 이미 시대를 초월해 우리와 대화를 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해야겠다.





우리는 고려때 은은한 청자를, 조선시대에 질박한 백자를 예술로 승화시켰고, 특히 분청사기는 소담한 우리네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 광주에는 조선시대 왕실 도자기를 생산하던 가마터가 남종면 분원리에 남아 있어 요즘도 파편이 나온다. 이천시 신문면의 도예촌은 외국인들이 즐겨찾는 관광코스다. 여주군은 전국의 60%인 600여개 도자업체가 밀집한 생활자기의 메카다. 이 세 지역에서 '흙으로 빛나는 미래'를 주제로 내건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개막돼 경기도는 요즘 축제분위기다. 하루 이틀에 다 돌아보기가 버거울 만큼 행사규모가 방대하지만 세계 각국의 도자기를 일별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인 데다 부대행사도 다채로워 가족이나 친지끼리 나들이 해볼직하다.

긴 역사를 품에 안고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곁에 두고 조성된 여주행사장 '생활도자관'에서는 '세계원주민토기전' '세계도자디자인전' '웅기전' 등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도자기의 고장인 만큼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생활도자기를 구입할 수 있다. 야외공연장에서는 시간대별로 '한국의 향연' '세계민속공연' '청소년 페스티벌' '토야세상'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을 꿰뚫고 있는 거리에서도 시간대별로 거리공연이 열려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여주행사장에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흙체험 행사' 뿐만 아니라 '엽기분장' '다트·빙고게임' '과거문자메시지' 등의 '열린문화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도자기판매장에서 도자기 '탈'에 색입히기 행사장이 있어 어린이들의 즐거움을 사고 있다. 또한 '행복만들기' 행사장이 있어 행복을 가득 담은 미래의 주거·생활공간을 구경할 수 있다.





어느 행사장이나 갖추고 있는 '컴퓨터 게임관'에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집에서 못다 한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더운 날에는 중앙분수대에 모여 시간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전시장 내에는 간이책방이 있어 도자기에 관련된 각종 서적들을 만날 수 있다.



KWANG JU-CITY



광주

왕실자기 · 조선백자의 고향

공동행사장이 마련된 광주는 조선왕실에 백자를 공급해오던 사옹원 분원이 약 500년간 설치되어 조선 최고의 백자를 생산하던 곳이다. 이곳에는 찬란했던 관요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1,006평 규모의 조선관요박물관과 4,200평 규모의 부대편의 시설 및 상업 시설, 「흙의나라」 테마파크와 한국의 전통 정원이 조성되어 광주 행사장의 특색을 살렸다.





세계도자문화의 과거-현재-미래

이번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시대별·대륙별·장르별로 도자기의 문화, 도자기와 예술, 도자기와 삶, 도자기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조명하여 도자문화와 문명의 과거-현재-미래를 입체적으로 돌아보는 대규모 문화 프로젝트로 치뤄 졌다.

'세계도자문명전'은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호림 박물관, 북경 고궁박물관,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 등 동양의 유명 박물관들을 비롯하여 프랑스의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자 명품 340여 점이 출품되어 이천 세계도자센터에 전시됐다. 그야말로 도자문명이 고대에서 현대로, 서양에서 한국으로 하나로 모이게 된 셈이다.

'동북아교류전'은 한·중·일 주요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 200여점이 출품되어 세계도자사를 한층 풍요롭게 만들었던 동북아의 도자기 정체성과 세계도자문명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세계현대도자전'은 미국,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주요작가 38명의 작품이 전시되어 각국의 독특한 도자문화를 한 눈으로 확인한 기회가 됐다. '세계도자디자인전'은 세계도자 디자인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 20명이 초대되어 도자기의 변화 가능성을 다양하게 보여 주기도 했다. '한국전통도자전'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예인 70여명이 참가하고, '한국현대도자전'은 한국 현대도자작가 54명이 참가하여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한 한국 현대도예의 변천과정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엑스포에서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조선도공후예전'이다. 이 전시회는 임진왜란을 통해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 후예로서 일본 큐슈지방을 중심으로 일본 도예계의 주요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이삼평, 심수관 등 6대 가문이 참가하여 조선도공 400년의 전통과 혼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전시회로 평가된다.

한편 '첨단세라믹전·세계원주민토기전'도 열려 도자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전시는 광통신 및 우주항공, 전자공학, 바이오세라믹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첨단세라믹 세계를 조명하여 도자기의 무한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독특한 전시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태평양 연안의 섬들,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이 만든 아름답고 순수한 세계원주민 토기전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흠뻑 받은 우수 전시회로 꼽혔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도예가·비평가·도예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도자협의회(AC) 회원전과 미국의 도자학회·작가 등으로 구성된 미국도자교육평의회(NCECA) 회원전도 동시에 열려 학문부재의 원성을 들은 한국도예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광주에는 국민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엄마 어렸을 적엔...' 인형전도 함께 볼 수 있으며, '조선관요박물관' 복도에는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인형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재연하고 있으며, 행사장 밑에 위치한 '휴체험 행사장'은 항상 만원이다. 특별히 행사장 입구 양편으로 100여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 '자연학습장'이 있어 분수 곁에 있는 원두막에 앉아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행사장 뒤편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조각 공원은 광주 관람객들에게 보너스가 되고 있다.





제1회 세계도자비엔날레도 함께 열려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경기도’를 열면서 첫 ‘세계도자비엔날레’도 동시에 개최됐다. 현대 도자의 다양한 조류를 수용하고 21세기 도자예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모전·초대전·국제도자워크숍 등으로 구성되는 제1회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앞으로 2년마다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도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연을 펼쳐졌다. 지난 2월의 1차 슬라이드 심사에는 세계 69개국에서 2,019명의 작가 작품 4,206점이 응모, 개회식날에 시상식을 갖기도 했다. ‘국제도자워크숍’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도자기 제작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국제도자학술회의’는 도자작가, 비평가, 학자 등 동서양의 전문가들이 고루 참가해 한국도자기와 세계도자기의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록됐다.





광주행사장의 거리 퍼레이드는 '왕실어기진상'을 주제로 펼쳐지고 있으며, 다른 행사장과 달리 경기도내 시·군 홍보관이 있어 경기도 곳곳의 문화관광안내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행사장에서 조각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야외공연장에서는 타 행사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향연' '세계민속공연' '토야세상' '가수콘서트' 등의 공연이 시간대별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행사장에는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도깨비나라'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흙벽돌로 만들어진 미로가 있어 재미를 더하고 있다. 행사장 오른쪽에 위치한 '머드풀장'은 청소년들이 흙탕물과 함께 뒹굴며 놀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조각공원 위로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는 그동안 스페인 조각가들이 직접 내한하여 제작한 작품들이 설치되고 있어 조만간 광주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스페인풍의 공원이 선보일 예정이다.





아빠 나도 심청이가 될래요

부모와 함께 하는 효문화 답사여행

경기도내 효문화유산을 가족과 함께 답사하며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부모와 함께 하는 효문화 답사여행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과 중부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도내 효와 직접 관련된 유적을 찾아가서 체험하며 선조들의 효심을 되새길 수 있는 이 행사는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며 효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효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1일(15회), 2일 프로그램(7회)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효 문화유적지를 살펴보고, 전문가들과 답사지역마다 동행하여 우리 선조들의 효심이 깃든 역사의 현장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안내를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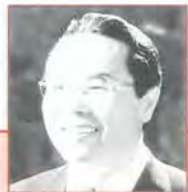


	부모와 함께하는 효문화 답사여행(1박2일)	1일 효문화 답사여행
일 시	8월~11월(7회)	8월~11월(15회)
답 사 장 소	수원화성, 용주사, 웅·건릉	수원화성, 용주사, 화성행궁, 웅·건릉
참 가 대 상	매회 중·고생, 일반인 40명(선착순)	매회 초등학생과 부모 40명(선착순)
참 가 비	5,000원	10,000원
기 타	참가자 전원에게 자료집과 기념 T셔츠 증정	
문 의 전 화	031-230-2223(중부일보사 사업부)	



경기도 孝 문화 학술회의

孝 문화추진기획단 출범



“孝” 실천운동의 시금석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 임창열

예로부터 '효(孝)'는 백행(百行)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어른을 섬기고 공경하며 형제·자매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덕목입니다.

효의 고장이자 '효' 문화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경기도는 광역자치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우리시대의 새로운 사회윤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효' 문화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에는 정조대왕의 효행으로 널리 알려진 용건릉과 용주사·화성·지지대고개를 비롯하여 '효'를 상징하는 많은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 문화유산을 순례하는 '효' 문화답사를 비롯하여 '효' 체험교육, '효' 전문교사양성교육, '효' 순회강좌를 실시하고, '효'

관련책자를 발간함으로써 효를 우리 사회의 중심적 가치로 일깨우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효'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효와 관련된 설화도 다수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성리학이 우리 사회 윤리로 정착하면서, 효는 우리의 전통사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성리학의 양대산맥 중 하나인 율곡학파의 본산이 바로 경기도이기에, 우리도가 효의 산실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효' 문화운동의 출발지가 되는 역사적 당위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도 '효' 문화기획단의 출발은 우리도가 '효' 문화실천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보편주의의 전망(展望)



홍일식 / (사)세계효문화본부 총재

새로운 普遍主義의 歷史的 照明

지난 수 천년 이래 우리 겨레는 고유한 영토와 주권, 그리고 고유한 언어와 문자, 고유한 혈통을 지켜오면서 오늘날 7천5백만의 인구를 가진 당당한 민족국가로 버텨 왔습니다. 이 비결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는 “땅 있고 사람 있는데 왜 못 살아?” 할지 모르나 하나의 민족국가로, 그것도 수 천년을 이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곳은 차지하고라도 오늘날 동북아시아 지역에만도 사라진 민족이 실로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버텨 온 그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력(武力)이었을까요? 아니면 재력(財力)이었을까요? 분명하건데, 무력도 재력도 아닌 오직 “문화(文化)”라는 한없이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인한 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이 있게 한 우리 “문화”의 구체적인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발자취를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사이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종교, 사상, 문화를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실로 특이한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지난날 신라에서 이차돈의 순교가 있었다 하고, 또 근세에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은 왕권의 차원에서 스스로 위협을 느껴 탄압을 했던 것이니, 이것을 민중적 차원의 전면적인 거부나 배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뒤집어보면 오히려 일반 민중들은 그러한 외래사상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외래종교나 사상에 완전히 동화되거나 몰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때그때 보편주의를 민첩하게 수용하며 거기에 안주하는 기민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특기요 생존의 비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존의 논리, 현상유지의 논리, 그리고 때로는 위기극복의 논리는 되었을지언정 지속적인 발전의 논리, 번영의 논리로 이어질 수 없었다는 스스로의 한계 또한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5천년이라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런대로 민족·국가사는 유지해 올 수 있었지만 크게 국세를 떨쳐보지 못했던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편주의 수용의 역사적·논리적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역사적·논리적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현대 서방세계의 보편주의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재빨리 수용하여 거기에 안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것만을 추종할 때 그래서 설령 모범생이 된다해도 거기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민족의 시대의지와 역사적 절대명제가 겨우, ‘생존’이나 도모하는 ‘현상유지’ 일 수만은 없다고 한다면 그 진로는 스스로 분명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었던 보배, 孝思想

그러면 우리의 효(孝)사상이 응축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효(孝)는 지극한 인본주의(人本主義)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효(孝)사상은 자기 생명의 창조자인 조상을 신(神)으로 받드는 우리 원시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신(神)일 수 있다는 이 생각, 그것은 인간 위에 어떠한 권위도 용납하지 않는 지극한 인본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조(國祖) 단군의 이념이 홍익인간(弘益人間)이요, 19세기 중엽 민족종교로 거듭난 동학이 인내천(人乃天)을 표방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이 정신은 미래 사회의 새로운 중심가치로 이미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극도의 인간소외·인간상실을 체험한 오늘의 인류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는 바로 인간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효(孝)는 이타주의(利他主義)를 그 본질로 합니다. 부모도 엄밀하게는 나와 별개의 개체입니다. 그런데도 나보다 나 아닌 부모를 위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부모에게 먼저 드려서 부모가 잡숫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내가 누리고 싶은 기쁨을 부모에게 돌려서 부모가 누리는 것을 보고 비로소 기뻐하는 마음, 그것은 이미 높은 차원에 이른 이타주의입니다. 산업화·도시화·개인화로만 질주해 가는 현대문명은 인간의 가슴 속에 극도의 이기심만을 키워 놓았고, 이 이기심은 세상을 갈등과 투쟁의 전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타주의 역시 인본주의와 함께 미래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효(孝)는 인내주의(忍耐主義)를 필수로 합니다. 부모를 섬기고 받드는 과정은 곧 나의 충동과 감정을 자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효(孝)를 실천

한다는 것은 인내심이 발휘되는 과정인 동시에 함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편리와 속도와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현대문명은 오늘의 인간을 극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존재로 변모시켜 놓았습니다.

넷째, 효(孝)는 또한 절충주의(折衷主義)를 필요로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자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할 수 없고, 세대간에 조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절충의 지혜를 발휘해야만 합니다. 되도록 부모의 뜻에 따르면서도 맹종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부당함이 있을 때에는 체읍이간(涕泣而諫)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옷소매를 붙들고 간(諫)하여 ^{이 간}바른 길을 함께 찾아 나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간(諫)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실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효(孝)는 평화공존주의(平和共存主義)를 이상으로 합니다. 위로 부모를 받들어 모시면서 아래로 자식·손자에 이르기까지 가족 전체를 이끌고 화평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은 인간생활의 근본입니다. 출발은 가족 구성원간의 화목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 착한 마음씨는 차차 범위를 확대시켜 끝내는 곧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효(孝)사상 속에는 이처럼 인본주의·이타주의·인내주의·절충주의·평화공존주의의 정신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대로 오늘날 인류가 절실히 갈망하고 있는 정신적 가치들입니다. 효(孝)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 모두의 근본을 한꺼번에 함양시키는 것이요, 효(孝)를 실천한다는 것은 이 모두를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효(孝)사상을 위기에 처한 현대문명 앞에 하나의 해답으로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개 민족문화의 차원을 넘어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사상운동으로 승화되는 날, 우리가 바로 21세기의 인류 보편주의 창조의 주역이 되고, 새로운 인류문명의 향도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보편주의
가족 평화주의

효(孝)문화, 왜 경기도인가?



이달순 / 경기도 효문화추진 기획단장

경기도와 효문화

효 문화가 왜 경기도인가? 그 역사의 환경을 되돌아봅시다. 불교문화가 지배했던 고려를 쓰러뜨리고 조선왕조를 세운 선비들은 지금의 서울로 도읍을 옮기고 충효(忠孝)사상을 바탕으로 한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자학(朱子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자의 이념은 조선초부터 일반인들에게 이해된 것이 아니고 우선 그 형식적인 문공가례(文公家禮)로 옮겨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혼상제(冠婚喪祭)에 있어서 불교양식을 버리고 주자가 제정하였다는 가례에 의하여 우선 제사를 엄숙하게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묘지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효의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가묘(家廟)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례는 중시되고 엄수되었습니다. 이른바 고려장(高麗葬)으로 치르던 상례가 유교적 문공가례로 뒤바뀌는 환경에서 먼저 가정의 질서가 자리 잡히게 된 것이지요. 결국 형식주의와 계급주의의 결정인 문공가례의 채택과 그 국가적 권장은 당시의 혼란했던 신분계급적 질서를 세우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선 형식적 의례의 방식으로 사회통제가 시작되어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의관복식, 관혼상제의 '제' 의례가 상정되었습니다. 특히 상례는 가장 중시되어 조선왕조는 문자 그대로 예의 지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禮)는 정치의 바탕이 되었고, 왕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쟁점은 '예'가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충효사상의 실천은 왕실에서 가장 근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격한 왕실의 상례문화의 환경 속에서 군주의 묘지인 왕릉(王陵)은 모두 경기도에 자리 잡히게 되었으니 왕실의 상례를 가까이 지켜보고 참례할 수 있는 백성은 경기도지역 주민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효' 고장이 된 가장 근본적인 역사성이라 하겠습니다. 왕실의 묘는 경기도의 전 지역에 걸쳐 흩어져 있습니다.

새 시대의 효 문화운동의 전개

근대화는 중세암흑시대를 극복하고 고대의 이상을 찾아 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른바 르네상스(Renaissance)의 꽃이 핀 것입니다. 이제 새 시대에 새로운 '효' 문화를 고대 유교사상의 근본인 예(禮)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공자의 사상은 인(仁)인데, 그는 인을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해서 '자기를 참고, 이기는 가운데 예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맹자(孟子)는 그의 성선설에서 부자유친(父子有親)·군신유의(君臣有義)·부부유별(夫婦有別)·장유유서(長幼有序)·붕우유신(朋友有信)을 주장했습니다. 이 5륜에서 제일 먼저가 '부자유친'입니다. 군주에게 충성하듯 아버지에게 효도하자는 말이 아니라 국가보다 가정이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친(親)자는 나무 위에 멀리 바라보는 모양을 상형(象形)한 글자입니다. 친하다는 것은 그리워하

고, 보고 싶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서로 터놓고 의논하고, 가까이서 보고 배우고, 꾸짖고 깨우치고 하는 일상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효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굴선유의'입니다. 의(義)라는 글자는 羊자 아래 我를 한 글자입니다. 나의 마음을 양처럼 순하고 착하게 가지고, 나의 몸을 희생하며 제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남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사랑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충신은 불사2군'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부부유별'을 봅시다. 부부는 그들이 공동으로 꾸미는 가정에서 일을 부담해야 합니다. 적절한 분담은 일치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분담을 통해서 일치를 이룰수록 더욱 가릴 것은 가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필종부(女必從夫)'는 잘못된 윤리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덕목을 합친 5륜은 모두 사랑의 형태를 인간관계의 경우에 따라 알맞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덕목은 모두 '사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때, 그것은 예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는 사양하는 마음이니 말입니다. 사양할 줄 알면 이미 그는 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양하는 마음은 바로 남을 공경하는 마음이고, 남을 존중으로 대하는 마음이고 화평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으로 5륜의 바탕은 예인 것입니다. 그 5륜 가운데 첫째가 아버지

것입니다. 부자가 서로 사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아들은 사랑과 사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성(誠)을 다해 섬기게 되니, 이것이 바른 예를 바탕으로 한 '효' 문화인 것입니다.

'효' 교육의 중심과제로는 '자유'의 이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민주'와 함께 도입된 개념이 '방종'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한 자유로워야 한다"는 밀(J. S. Mill)학설 탓인가 지나친 개인주의는 가족도 마다하고 '효' 문화까지 무너트린 것입니다. 참다운 자유의 정신은 자기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自由)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예(禮)는 사양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사양하는 것은 내 몫까지 다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챙긴다는 것은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챙긴다는 것은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禮)와는 상통되는 개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禮)를 바탕으로 하는 효는 '부자유친'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양하며 사랑하는 윤리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하며 이끌어 주고, 자식은 어버이를 경(敬)과 성(誠)으로 받들고, 그리고 각기 맡은 바 자기 일에 충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도 자식도 자신이 생기고 자신이 축적됨에 따라 부모도 자식도 자기 신뢰적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가족은 개별적이지만 상호 신뢰능력을 마음에 담고 공동목표에 참여하는 자기능력에 관해서 자기 신뢰적이면서 가족의 근거가 되는 응집능력이 형성될 것입니다.

孝는 3세대를 잇는 아름다움



박재희 / 철학박사, 성균관대 강사

이 교수님은 현대사회의 '효'의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성이 갖는 효의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려 경기도를 '효' 문화의 중심지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방안으로 경기도의 효 문화의 생생한 과거를 발굴하여 과거의 효 문화 유산을 정리하고 현대적인 교육 시스템과 조직을 구성하여 실천적인 효 문화 운동을 전개하자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와 관련된 전통 교육을 부활하고 종교와 유기적으로 연관된 운동을 통하여 효의 정신을 진작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효 사상의 강조를 넘어 전통 문화를 이 시대에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할 올바른 효 문화 정착의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과 효의 일원적 연결 속에서 국가 이데올로기로 이용되던 '효'의 운운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효가 국가에서의 충으로 등식화시킴으로써 효를 국가 통치의 방법으로 삼던 지난날의 충효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야 진정으로 민주주의 시대에 맞는 효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효가 국가 윤리가 아닌 가정 윤리로 자리 매김 할 때 누구나 인정하는 아름다운 가정 시스템의 부분으로 효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따뜻한 가정의 공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수행하는 서로에게 편리하고 즐거운 효의 가정 윤리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효는 가정에서 조상과 나, 후손 3세대를 잇는 아름다움이며 편안합니다.

둘째, 효가 자식이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침묵으로 여겨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동몽선습에 보면 효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이다. 따라서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르며 사랑하고 교육하여 자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식은 부모가 잘못할 때 부드러운 소리로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여 마을 동네 사람들에게 부모가 욕을 먹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뜻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부모도 자식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는 자식이 일방적으로 부모에 대한 복종이 아닌 부모와 자식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자학적 효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자는 중국의 12세기에 활동했던 사상가였고 그 시기는 불교와 도교의 탈 세속적인 이념이 성행하던 시기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저 먼 세계와 자신의 장생불사만을 부르짖던 사회적 퇴폐성에 대하여 반

기를 들고 인간의 문제가 이 우주의 중심 문제라는 것을 선진유가의 이론적 토대 속에서 새로운 인간 문화를 찾아냈던 인물입니다. 주자는 적어도 그 시대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소원해 지던 풍토 속에서 적어도 혁명가였고 교육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자의 이념은 12세기나 적어도 고려의 불교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간문화를 구축하던 조선시대에는 의미가 있었을 지라도 21세기에 주자의 이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일반인들에게 효를 더욱더 먼 세계의 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집안에 가묘를 설치하여 아침마다 조상의 위패를 배알하고, 불이 나거나 수재가 났을 때 가족과 재산 보다 신주를 꺼내고 나와야 하며, 부모상에 3년을 시묘를 하는 것이 자식의 효라고 주장한다면 그 어려운 만큼이나 효는 현실과 저 멀리 떨어져 일부 매니아들의 소수 주장이 될 뿐입니다.

넷째) 효는 편안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좁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면서 화합이 아닌 갈등하는 가족이 되어간다면 그것은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 원하는 효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머리가 국을 끓이면 그 국이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부모를 모시고 주말에는 함께 저녁을 하고, 손자와 손녀들이 걸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놀고 올 수 있는 장소의 거리에 부모님과 함께 한다면 그 효가 더욱 더 아름답고 상대방에게 편안한 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효의 중용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사는 공간, 전화의 시간, 만남의 회수, 물질적 봉양의 내용 등 실질적인 효 매뉴얼을 만들어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효라는 것이 편하고 쉬운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결국은 효가 미래의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효가 어렵고 힘든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는 물질적 차원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 몇 억 하는 실버타운에 부모님을 모신다고 해서 그것이 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배려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남보란 듯이 용돈을 주고 어버이날 옷 한 벌 사줬다고 해서 효를 다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효입니다. 효는 노인에게는 과거요 젊은이들에게는 미래입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 늙습니다. 늙음은 외로움으로 배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효라는 윤리를 통해 늙음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만들어 왔습니다. 효는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아름다운 인간적인 윤리입니다.

학교에서의 효(孝)교육 실천방안

조난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새 시대 '효' 문화는 자유(自由)를 바탕으로 한 '예효 문화(禮孝文化)'를 꽃피우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해 면담을 하는 도중, 한 교사가 자신은 학생들의 인사말을 “나는 효자입니다”로 정하여 인사할 때마다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교사의 말로는 학생들이 효를 실천하게 되면 인성교육의 근본이 바로서기 때문에 강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사의 말은 본인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교육의 부실과 교사들의 무능을 탓하는 소리가 높은 요즘에도 이렇게 묵묵히 학생들에게 '효'라는 우리의 근본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사회의 전통규범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로 꼽는 것이 바로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대사회에 이룰수록 부각되지 못하고, 또 가르치기 힘들어진 것이 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까닭은 우선, 가정환경이 크게 변하여 부모와 노인을 공경하기보다는 자녀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핵가족화 된 가족구조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가정이 보편적인 형태가 되었고, 자녀수가 1~2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의 부모자식간 상호작용이 오늘날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과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부양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되어 효와 밀접한 가치를 갖는 경로(敬老)의 자세도 가르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효' 교육은 그 실천의 장(場)이 가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대전제하에 '효' 교육의

기본방향과 틀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N세대라고 하는 요즘은 학생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효' 교육을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로 학교교육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 교육의 원리

효 교육은 일반적인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원리 및 방법론과 일관된 흐름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효' 교육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인성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효' 교육의 관점에서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①통합적 접근의 원리

학교교육에서 효도하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교육이 '효'라는 가치를 중심덕목으로 내세우는 '인성교육'의 목표를 구심점으로 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덕(윤리)과 교육은 물론, 각 교과교육, 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운영, 학급 및 학교의 환경 등 학교교육의 전 영역을 통해 학생들이 바람직한 덕목의 학습기회를 갖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둘째, 위와 같은 학교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각 영역간의 일관성있는 지도가 요청됩니다. 학교교육의 각 영역에서의 교육활동이 다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더 나아가 학교에서의 '효' 교육방향이 가정과 일관되어야 효과적입니다. 학교에서 지도하는 방향과 가정에서



의 생활경험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이와 일관된 학부모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지속성의 원리

효와 같은 덕목들의 학습은 단속적이거나 일정 기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학생이 어떤 계기로 특정한 바람직한 행동특성을 학습했다할지라도 그것이 꾸준히 실천되지 못하면 내면화·습관화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덕목에 대한 학습은 매일매일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속에서 꾸준히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년간 및 학급간에 인성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③관계성의 원리

효와 같은 덕목의 학습은 다른 어떤 교수-학습의 과정이나 교육자료 및 환경적 요인보다도 교사와 학생간(조부모-부모, 부모-자녀, 학생-학생, 교사-학부모간의 관계를 포함하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덕목을 지도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자상한 생활의 안내자가 되고 또 도덕적인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강조하고, 이러한 교사의 자질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학교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④자율성의 원리

학생들이 바람직한 덕성을 갖추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에 따라서만 행동하도록 가르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율성의 발휘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효' 교육에서도 자율성의 원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곧 효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학생 각자가 스스로 올바른 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각자의 인격을 완성시켜나가는 일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적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제반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덕목과 관련

통합성의 원리 입증 필요



유승무 /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된 문제를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자율적인 경험의 기회를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⑤체험의 원리

효의 학습은 학생 스스로 덕목을 실천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체험해볼 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용기있는 행동을 실천해봄으로써 용기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덕목의 학습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는 제반 교육의 영역을 통해서 가능한 한 학생들이 직접 덕목과 관련된 행동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급 학교들에서 매주 '주훈'을 설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알려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를 충실히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효과가 적은 언어적인 일러주기 방식의 덕목교육은 결과적으로 실천은 뒤따르지 않는 '도덕적 언어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언어적인 일러주기 방식의 덕목교육을 지양하고 덕목교육에 긍정적인 환경 조성, 꾸준한 생활지도, 잠재적 교육과정의 검토 등을 통해서 직접 교사들이 말로 일러주지 않아도 학생들이 느끼고 실천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효 교육 실천방안'은 학교의 '효' 교육이 가정 및 지역사회와 연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요즘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효' 교육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시도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도로 제안된 이번의 '효' 교육 실천방안이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되지만 한다면, 효 가치의 재생산 장치가 거의 파괴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최소한 학교만이라도 '효' 교육실천의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값진 실천적 함의를 지니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효' 교육실천의 경험적 사실이 인성교육의 일반원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면 대단히 유의미한 학문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먼저 효과성의 측면을 고려해 봅시다. 만약 세속적 가치(돈·권력·사회적 지위)가 '평가절상' 되고 있는 반면에 '효'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숨겨진 교과과정(hidden curriculum)'과 이미 제시된 '효' 교육실천방안이 가치갈등관계를 가진다면, 그 교육적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제도 내부의 측면에서도 학력위주의 교육관에 따른 입시위주의 교육관행과 제시된 '효' 교육실천방안 사이에서도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역시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또한 '통합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도덕교과의 일부만을 '효' 교육실천방안의 공간으로 할애할 수밖에 없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육관행, 교육방침, 교과과정 사이, 그리고 교과과정과 교과 외 학교활동 사이, 교과과정 내부의 교과목들 사이의 가치 갈등 여부에 대한 근본적이고 비판적인 성찰이 요구됩니다.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사실 사이의 검증관계를 검토해 봅시다. 우선 이미 지적한 바대로 제시된 '효' 교육실천방안은 통합성의 원리를 충분히 입증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성의 원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효' 교육 실천프로그램은 거의 제시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밖에 제시된 '효' 교육 실천프로그램만으로는 지속성의 원리·자율성의 원리·체험의 원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습니다. '효' 교육실천방안이 인성교육의 제 원리라는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재구성되고 재해석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의 전통 유교문화나 불교문화에서는 사회화나 협의의 교육을 통한 규범의 내면화(internalization)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끝없는 수양을 통한 '존재의 본질'에 대한 각성'과 그러한 각성의 경험을 통한 내적정신적 성숙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인간다운 품성(인성)을 형성해나갔을 뿐만 아니라 효를 실천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니다. 이러한 고유의 문화적 전통이 이론적 논의에서나 '효' 교육 실천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거나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사족(蛇足)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연구가 학교를 '효' 교육 실천의 장으로 만들어 가는 사급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연구가 더욱더 깊고 넓게 연구되고 또 확산되어, 우리의 교육현장을 명실상부한 인간화교육의 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데 공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실천방안



서일성 / 경민대학 효(孝)실천 본부장

인성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최종 목표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있고, 이는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의 조화로써 이를 수 있습니다. 사회정서가 권력과 물질적인 성취를 위한 지식교육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바가 아닙니다.

인성교육은 한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율성의 원리’에 의거 ‘효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학생 스스로가 올바른 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이며 학생 각자의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데에 본인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인간은 습관의 노예다’라는 말은 ‘효’ 교육이 교육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성장기와 사춘기를 겪으며 인격을 형성해나가는 과도기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가치관이 안정되게 정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효’ 실천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나 학제를 통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의 단계에서는 자율성을 부여하여 ‘효’ 실천의지를 도울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가능한 활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계성의 원리’는 지적인 바와 같이 취학 전에는 부모의 역할이 그리고 취학 후에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모나 교사의 역할은 인격형성의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효’ 실천을 비롯한 인격형성에 대한 학생의 자율과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의 자질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교사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교사에 대한 인식의 고양을 위한 노력을 통해, 가장 우수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효 교육 실천방안

- 본인이 속한 학교에서는 ‘효’ 교육실천 방안을 제도적 보완하고 있습니다.
- ①윤리과목을 필수로 정하고, 만화로 된 ‘명심보감’과 대학효실천본부에서 만든 ‘효행록’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②학교교문을 효행문·충의문 그리고 독립문으로 만들어, 이 문을 드나드는 모든 이에게 인성교육의 상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건립하였습니다.
 - ③효·충관을 개관하여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나오는 효자·충신·위인·열녀들에 관한 그림 150여 점을 전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견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④‘효’ 실천본부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효친회’를 조직하여 ‘효’ 실천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교에서는 효행록을 통한 ‘효’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①효행이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임을 알립니다.
- ②나의 정체성(正體性)을 확인시키고 나는 누구로부터 연유되었나 하는 ‘나의 뿌리 찾기’와 나의 현 위치는 무엇인가 하는 ‘나의 발차취’ 기록하기, 그리고 나의 장래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내 인생의 꿈’을 적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③부모님께 문안 자주 드리기, 부모님 걱정 안 끼쳐 드리기 그리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기 등의 세부 실천내용을 예시하고 실천토록 교육하고 주간점검표를 이용, 반성하고 다짐하는 글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사진, 조상산소 비석 및 부모공경사진 등을 효행록에 정리하도록 하며, 효 관련 서적 읽고 독후감 쓰기, 효 관련 영화나 비디오 보고 시청 소감쓰기, 효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느낌 쓰기, 부모님 은사님과 편지 주고받은 내용을 복사해서 간직하기, 효 관련 자료모으기 등을 효행록에 기록 및 스크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친회원 효행체험 및 ‘효’ 실천운동이란 효에 관심있는 스승과 제자가 ‘효친회’를 조직하여 주기적으로 무의탁노인 위문, 농촌봉사, 효 관련 유적지답사 등을 통하여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근로정신 고취 및 효심 키우기 운동입니다. 먼저 본인이 먼저 인사하기 운동, 안 버리고 안 빨기 운동, 금연운동, 국기 제대로 그리기, 예절지킴이 운동 및 생일개념 재정립 운동을 벌임으로써 학교분위기를 선도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엔 효행수기를 공모하여 우수자에게 포상을 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효’ 실천 사진공모전을 통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교장 및 기관장 표창을 받은 학생은 입학 특혜를 부여하고, 효친회 간부 10명에게는 효행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효자·효녀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얻어진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효행에 대한 반성과 다짐의 시간에 많은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불효에 대한 반성과 효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 ②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이름, 생년월일, 추모일 주소 산소의 위치, 연락처 등을 늦게나마 알게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 ③‘효’라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음을 알고 행하니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효(孝) 관광상품의 개념

이광희 / 경기도 관광진흥 본부장



효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시 주요 고려사항

먼저, 인간적인 가치를 느끼게 하는 관광상품과 공간의 개발이 시급합니다.

지역의 문화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서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인간적인 상품개발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비인간화되고 황폐화되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효와 관련한 공간을 마련하여 이곳에서 감동을 받고 그곳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문화적 관광상품 개발과 인간적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인간중심의 문화공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효라는 주제를 가진 상품이 연령별·세대별·내국인·외래관광객 등의 다양한 계층에게 수요를 발생시켜 방문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다면 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것은 세계적인 규모의 거대한 관광지라기보다는 한국적인 정취가 풍겨나고 한국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두번째로는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형을 중시한 개발이었다면, 새로운 개발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연자원의 잠재성을 활용하여 내용을 중시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규개발위주의 사고에서 기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유사자원을 연계화시켜 관광상품가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대관광의 추세는 양보다는 '질' 위주의 관광을 선택하는 추세이므로 관념적인 '효' 문화의 소개보다는 참여하여 활발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효와 관련한 특정거리·공간·장소나

유물을 복원·정비하여 조상들의 슬기와 지혜를 배우는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무형관광자원의 이벤트화가 중요합니다.

효와 관련자원이 집중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무형관광자원을 이벤트화시켜 open museum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관광객에게는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독특한 문화성을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유익한 볼거리를 제공해줌으로써 지역문화를 유형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문화관광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관광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는 이벤트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네번째로는 Edutainment 프로그램의 중점 개발이 필요합니다.

관광상품 개발의 기본전제는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므로 효의 주제에 중점을 두어 교육적 기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오락적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신세대 관광객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욕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효의 교육적 측면을 다루면 흥미를 잃고 재방문에 대한 동기유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원이나 서당에서 학습, 옛 전통음식 맛보기, 향교·서원행사 및 제례참관, 한옥에서 민박을 경험하도록 하는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과거 속에서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는 사업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민예품·토산품 등 지역특산물 중 상품가치가 있고 개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을 고급화·다양화시켜



상가시설 내에 집중적으로 전시·판매하도록 하여 관광객의 구매욕에 부응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반전통가옥을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양반의 주거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통음식점 등으로 재현하여 상품화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시설은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성을 제고토록 해야 합니다.

효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개발 방향

효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개발에 있어서는 먼저 적정 개발입지의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객이 관광목적지를 선택할 때 신중히 고려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는 얼마나 쉽게 관광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상지 주변에 양호한 도로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대상지가 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에 관광자원이 존재하여 상호간에 보완적으로 관광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연계 관광루트 형성이 가능해야 관광객의 유인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개발규모입니다.

관광개발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원 확충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대규모 관광개발이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에 의해 지역의 고유성이 상실되거나 자연환경 훼손, 외부자본 의존에 대한 필요성 등에 의해 개발에 따른 각종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역사문화재와 같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에서는 지역주민의 참여는

물론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야하므로 중·소규모이면서도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도입시설입니다.

‘효’ 주제공원에 도입되는 시설들은 효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공원전체에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매체들을 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역사·문화·예술과 관련한 전시와 발굴을 통하여 조각품·전시물·장식품 등에 해당지역만의 고유한 효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Character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설·민화·풍속 등과 관련한 효의 주제를 show에 의해 현시화·유형화시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도록 하여 이들의 유입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네번째는 개발방식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은 특성상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입지적 성격이 강하고 고정부문에 대한 초기의 투자자본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에 의한 관광개발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은 자본의 회임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에 의해서는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부담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사업의 경영 및 관리는 정부와 ‘효’ 문화재단 같은 공공단체와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제3섹터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체험관광돼야



엄서호 / 경기대 관광학부 교수

21세기 관광의 키워드는 문화관광·생태관광·체험관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효' 문화유산을 문화관광자원화 하려함은 21세기 관광추세에 아주 적절하게 대응하는 노력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효'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보다도 통성과 재미의 문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에서만 '효' 사상을 특별히 강조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문제와 효를 관광자원화 하였을 때 과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일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를 '효' 문화유산의 하드웨어차원 개발과 소프트웨어차원 개발로 구분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차원에서 언급한다면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대로 효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개발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것은 발표자가 언급한 내용을 담을 그릇으로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수원 '화성'을 효를 주제로 한 오픈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효' 문화유산을 강조함에 있어서 타 시도와 차별되면서도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정조대왕이며 그가 건설한 수원화성일 것입니다. 미국의 디즈니월드가 미국의 문화를 주제로 한 인위적인 테마파크인 것 같이 수원화성도 정조대왕·실학사상·효·신도시와 같은 주제를 근간으로 한 한국적 테마파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부지에 '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수원 '화성' 5.7km 주변에 효를 주제로 한 공간을 조성하여(장기적으로 현재의 효행기념관과 효원공원을 화성주변으로 유치하여) 화성과 연계시킴으로써 화성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차원에서 언급한다면 수원 '화성' 이미지의 주요 요소인 정조대왕을 캐릭터로 개발하여 정조대왕의 부모사랑(효)을 구체화시킨다면

보다 적극적인 수원 '화성' 과 연계된 재미있는 '효' 체험이 가능할 것입니다.

'효'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상품개발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은 재미가 결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시 발표자께서 지적한 대로 edutainment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조대왕의 효를 소재로 한 오페라나 컴퓨터게임 개발도 가능하며, 정조대왕이 화성 방문 시 벌였던 경로잔치 등도 이벤트 상품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상품개발차원에서 볼 때 현재 경기대학교 내에 위치한 옥박물관을 화성주변으로 유치함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효를 상징하는 옥을 소재로 한 공예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차별화되면서도 정통성 있는 관광기념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정조시대가 한국의 르네상스시대라 일컬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시의 철저한 기록문화 때문이며, 정조대왕의 화성행차 중간중간에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대접하였던 간식거리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각종 먹거리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이도 차별화된 먹거리상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효의 연상을 근거로 한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발표자의 제안대로 효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을 위한 '효' 사상연구소와 체험장의 설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첫째, 효만을 주제로 한 하드웨어차원의 테마파크는 재미·상품개발차원에서 소재가 한정 될 수 있으므로 수원 '화성'의 주요 테마로서 연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문화관광상품개발도 정조대왕을 캐릭터로 하여 연상될 수 있는 각종 소재를 대상으로 해야 만이 보다 다양한·차별화된 먹거리·살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효의 연상성을 근거로 한 상품개발과 의미성을 근거로 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효의 상징성을 일반인에게 깊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효(孝)의 사회적 실천방안 - 직장인을 중심으로



전정남 / 경영학 박사, 중소기업연구소 교수

직장과 효

전통적인 동양사회는 도덕위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는 덕치(德治)를 사회적으로는 덕행(德行)을 개인적으로는 충효(忠孝)의 윤리가 요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도덕위주의 동양사회에서 특히 강조되어온 것은 충효의 윤리였습니다.

폐쇄적이고 가족단위였던 과거사회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행하는 모든 예의 근본을 '효'라는 초보적 실천으로 인식해도 충분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지식사회의 출현을 앞세운 오늘날의 개방사회에서는 이 '효'의 문제가 더 이상 가정이라는 테두리에 안주하지 않고 연장되어 자연스럽게 직장으로 연결되는 직장 '효'의 문제가 국가 '충'의 문제와 더불어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장과 효의 문제는 도덕위주의 우리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됨은 아무런 무리가 아닙니다.

또 사회과학의 연결적 계층구조(Hierarchy Structure)를 보아도 사회과학의 근본을 이루는 학문은 철학·윤리·도덕에서 출발하여 그 위에 사회학·심리학·경제학 그리고 가장 상층에 경영학이 있는 구조로 윤리 즉 한국적 윤리인 '효' 문화가 출발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최근의 경영학에서 기업문화, 직장인의 근로윤리 등을 강조하는 학문의 흐름을 보면 그 근본적 중요성을 크게 의식·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고 보면 2~3년 전의 우리 국가의 슬픈 경험인 IMF도 이 '효' 문화의 실종으로, 망각으로 국민전체의 정신적 구심점이 사라지고 일체감이 사라져서 연유한 재앙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화의 기업화(우리 것의 문화로 무장한 것이 부가가치)

모든 학문의 주된 연구과제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고 변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는 주제를 만듭니다. 사실 경영학은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산업자본주의의 등장에 힘입어 성립되고 발전되어온 새로운 역사적 역사가 일천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학문인 경영학의 과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즉 새 시대에는 새로운 경영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요구되며 세계적 조류와 시대정신에 부합한 가치체계를 위한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학 연구의 흐름을 추적하고 그의 사상사를 살펴보면 경영학의 주된 연구사가 크게 변천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930년대까지는 생산성 향상과 작업의 합리화 등 생산중심의 사고가 강조되었고 1950년대는 조직내 구성원들의 인간관계를 통한 인간중심의 사고가 연구의 주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내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었던 이들 경영 패러다임은 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즈음하여 기업의 외적인 문제로 관심이 바뀔으로써 경영전략이 주된 연구과제가 되었고, 1980년대 이후 기업의 정신적 기반, 탄력적이고 융통적인 조직체질의 형성과 인적자원의 가치 등을 강조하는 문화 중심적 사고가 연구의 주요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변천은 경제시대에서 문화시대로 이행하였음을 의미하며, 기업·관리중심의 논리에서 인간·문화중심의 논리로의 가치관 전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계사를 지배하는 하나의 특징적 사례는 경제의 강조, 산업화·공업화의 강조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를 지탱하는 문화는(경영과 문화의 표리성은 이미 학문적으로 정립) 직장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이념과 습관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직장인들의 행동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별	직장·직장인 문화의 구분	문화의 특징	문화의 명칭
미국	합리주의 (Pragmatism)	- 과학적 관리 - 능률제일주의	P문화
일본	합의주의 (Consensus)	- 상사·부하 관계 - 합의를 통한 추진	C문화
한국	효주의 (Respectation)	-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관계 - 기업도 가정처럼	R문화

문화가 있는 기업의 특징

- 구성원이 학습된다. (Learned)
- 구성원이 가치를 공유하여 강해진다. (Shared)
- 구성원에 의하여 다음 세계로 이어진다. (Transpeneralized)
- 구성원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Influenced)
- 구성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Adapted)



밝고 능률 높은 회사의 창조

- 사풍 (Image) - 사고방식 (Think) - 조직문화 (Personality) - 경영스타일 (Style)	孝 (Identity)
---	--------------

상사에 대한 신뢰가 중요

이영열 /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교수

직장에서의 효 문화를 어떠한 개념으로 정립해 갈 것인가?

발표자가 지적대로 21세기 동서고금의 지구촌 변화는 효의 개념 자체가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상황에 와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효' 문화가 그 형식과 내용·질적인 면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의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제도의 변화 등이 매우 충격적인 속도로 예상을 초월하여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고, 다시 급속도로 정보화의 시대로 변천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는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비롯한 사회 각 조직집단과 가정과 기업 등 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동양적 효의 공간은 윤리적 측면에서 가부장적 조직구조가 그 뒷받침이 되어왔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중국에서 종신고용제도와 같은 한가족직장 개념도 결국 가부장적 전통과 가정충효문화가 잘 길들여져 있는 것들이 조직 집단의 충성으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부장적 가정문화는 무조건 복종과 순종이 미덕이었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윗어른이나 학열이 높은 문종에게는 그의 지시나 의견에 이론을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민주적 집단문화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고 바른 의견을 갖고있는 며느리라 할지라도, 무조건 그 가정에 풍습과 문화전통대로 맹종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열녀요, 효녀였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의 이 같은 맹종적 가정문화는, 산업사회로 발전되는 과정이 한국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회나 국가일수록 그 파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과거와 같은 가부장적인 권위나 전통적인 리더십 대신 이해관계에 의한 물질적 대가·보상이 조직 집단의 가장 큰 영향 요인이 되며 이것이 직장인 '효'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직장의 '효' 문화는 그 기업이나 집단이 자기 가치기준이나 기대심리에 어긋나거나 상사에 대한 신뢰가 진심으로 나오지 않으면 직장인의 '효' 문화는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의 효를 유발하는 직장문화가 어떠한가 할 것인가! 과거처럼 무조건 맹종을 전제로 한 의리라는 말을 내세우거나 공장세마을운동에서 유행했던 '우리는 한가족이다'라는 말로 직장인의 '효' 문화를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직장환경을 옛날을 살아온 분들은 직장분위기가 왜 이렇게 삭막한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자본주의 핵심이기도한 시장경제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직장분위기는 우수한 실적과



유능한 인재로 살아남기 위해 항상 경쟁과 긴장으로 가득찬 분위기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장분위기가 기업문화와 직장문화 '효' 문화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예의와 효와 충성과 더 나아가 도덕과 윤리 등과 같은 무형적 소프트웨어가 갖는 직장문화에서의 영향력은 모든 구성원의 의식의 바탕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만 다뤄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물질주의나 보상주의, 권력으로 전체를 지배한다는 파우의 잘못된 인식과 시장경제의 살아남는 수단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의 효 문화는 어떻게 이뤄가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과 인품에서 우리나라는 진정한 신뢰감과 진실성, 그리고 사랑으로서 구성원들간에 서로서로가 존경받을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구성원 각 계층과 계층간, 상사와 부하간의 연행일치를 통한 신뢰성과 약속이행을 통한 정확성과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한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싸워서 얻어낸다는 투쟁의 개념으로 협력해서 서로가 발전한다는 공동의 식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여 '미래에는 모두가 함께 살아남는다'는 의식발상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기본이 되어 직장문화의 바탕을 이루게 될 때 예아 비로소 '효' 문화가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개인 모두가 모두에게 진실과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자기자신부터 투명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때, 건전한 직장문화와 직장인의 '효' 문화가 실천될 것입니다.

Cyber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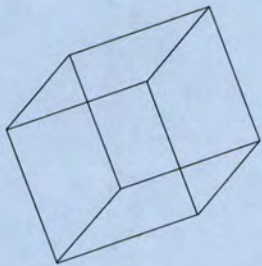
A r t S p a c e 경 기

이곳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갤러리 <아트 스페이스 경기>입니다.

<아트 스페이스 경기>는 경기도의 미술인과 사진작가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다루는 예술가들의 공간입니다. <아트 스페이스 경기>의 대부분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예술가들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져 경기도의 예술 혼과 문화의 힘이 확장되는 곳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호에는 특별히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행사장 조각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청년작가 야외조각공모전' 수상작품을 소개합니다.





사람: 150×140×280cm, 개: 100×50×100cm, 타이어, 브론즈

잉여인간 _ 성 창 학

현대산업 사회의 상징인 타이어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복제사회의 단면을 표현했다.

먼곳을 바라보는 남자 _ 이 환 권

인체를 길게 왜곡시켜
시공의 이미지와 하늘에 대한 상상을 유도하고 있다.





500×400×250cm, 시멘트, 철근

마주보기 _ 신 치 현

인간 세상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체를
갓옷의 이미지로 조형화 했다.

하늘을 닮은 땅의 노래 _ 김도근

다양한 재료의 상징과 대비, 거울의 반사를 통해 인간의 오만을 일깨우는 자연의 섭리를 표현했다.

290×245×240cm, 오석, 스테인리스, 자연석





670×630×300cm, 철

남겨진 사람들

— 천 성 명

자연이 남겨놓은 자아의
다분화된 흔적을 통해 정
체성을 모색하는 공간을
형상화 했다.



Review

- 1 경기문화재단 개관
- 2 엑스포조각공원 개장
- 3 2001 스페인 조각가 초대전
- 4 YTN대학생 영상공모전 최우수작품상
- 5 이영희 패션쇼
- 6 경기체험문화교실 / 태장고등학교
- 7 청소년 '열린문화마당'

경기문화예술의 百年大計 그린다

경기문화재단 개관

경기문화재단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새 보금자리를 틀면서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과 수원야외음악당,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 거리 등과 함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기 문화재단 신사옥 개관식이 7월 24일 오후, 이사장인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홍기현 재단사무총장, 박종희 국회의원, 김명수 경인일보 사장, 신창기 경기일보사장 등 도내 문화예술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층 정문에서 현판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에 이어 2층 전시실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임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경기문화재단이 도민과 시민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경기도의 아트센터로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와 함께 발전을 기원했다.

식전행사로 열린 ‘다도시연’ ‘깎깎 마녀들의 수다콘서트’ ‘수원 레이디스 챔버 오케스트라’ 공연은 재단 신사옥이 앞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새 지평을 여는 팡파르가 됐다.

경기문화재단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1116-1번지, 9층 건

물)에 새 보금자리를 틀면서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과 수원야외음악당,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 거리 등과 함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개관식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재단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단북부사무소를 설치·운영기로 하여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문화지원활동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이전에 발맞춰 홈페이지(www.kcf.or.kr)도 새롭게 개편하여 한번 클릭으로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마당’과 ‘기전문화예술총서’ 시리즈의 원문정보 및 ‘경기무형문화재’ 비디오 동영상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그동안 사용해오던 장안동 공간은 경기문화재단 부설기구인 ‘기전문화재연구원’이 그대로 사용한다.





다양한 개관기념 전시 가져

개관기념전으로 '새로운 탐색을 위한 청장년 작가 초대전'이 7월 24일~8월 3일까지 제1·2전시실(140평)에서 열렸다. 회화·조각·설치·사진·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가 망라되었던 전시회에서는 경기도내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경기문화의 현재와 문화 정체성을 탐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전시장 개관기념으로 '경기작가 초대전'을 열고 지난 8월 26일까지 선보였다. 경기미술인들의 역량있는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던 이 전시는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이선열)가 주관, 도내 26개 미협지부에서 추천받은 다섯 작가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한국화·서양화·서예·조각·공예작품 등 총 130여점이 전시됐다.

154석 규모의 '다산홀' 등 각종 문화시설 갖춰

동수원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문화재단은 앞으로 문화예술인들과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2층에 마련된 '제1전시실'은 80여평 규모로 미술·사진·조각·서예 등 신진 및 중견작가의 창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으며, 특히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기획전시와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개인·단체전시회를 유치하여 시

각예술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60평 규모의 '제2전시실'은 전시 규모에 따라 1전시실과 분리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문화사랑방'은 말 그대로 예술인들의 회의나 친목도모 행사를 위한 사랑방으로 공개되고, '예지실'은 도내 초·중·고교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다도(茶道) 등 전통예절교육장으로 활용된다.

3층에는 극장식 공연장인 154석 규모의 '다산홀'이 있는데, 각종 공연이나 실험예술을 위한 발표공간으로 국악·민속·실내악·퍼포먼스·연극·독립영화 등 창작발표회는 물론 도민을 위한 작은음악회, 세미나 및 회의 장소로도 널리 활용된다. 부대시설로 '연습실'과 '준비실'이 마련돼 있다.

6층에는 경기문화예술 자료관으로 활용될 '디지털자료실'이 갖추어져 있어 영상·음향·출판물·디지털 자료보관 및 검색서비스,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연극·음악 동호인 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연습실'이 있다. 또한 6층에는 '예총' 도지회와 '민예총' 도지회 '문화원' 경기도연합회가 입주해 있어 명실공히 경기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행사안내 *장소 : 다산홀(경기문화재단 3층)

◁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당굿

- 일시 : 2001년 9월8일(토) 오후 3시~4시30분
- 출연 : 오수복(경기도당굿 예능보유자)외

◁ 전통무용한마당

- 일시 : 2001년 9월22일(토) 오후 3시~4시
- 태평무/ 이명재(태평무 전수조교), 살풀이/ 한혜경(살풀이 춤 이수자), 진쇠춤/ 이승희(문학전통춤보존회), 승무/ 윤여옥, 김경은, 박혜연(이매주전통춤회)

◁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 일시 : 2001년 10월6일(토) 오후 3시~4시
- 출연 : 노재영(양주별산대예능보유자) 외

◁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21호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 일시 : 2001년 10월20일(토) 오후 3시~4시
- 출연 : 김기복(안성남사당풍물놀이 보유자)

행 사 명	행 사 기 간	행 사 장 소	주 관 (주 회)	문 의 전 화
제1회 경기지역 시사만화 전시회	9.7~9.12	2층 제1,2전시실	사진작가협회경기도지회	231-5333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당굿	9.8	3층 다산홀	기획부	231-7224
경기문화재단전시관개관기념초대전	9.14~19	2층 제1,2전시실	건축가협회 경기도지회	222-6255
전통무용한마당	9.22	3층 다산홀	기획부	231-7224
경기종합예술제기성작전	9.21~9.26	2층 제1,2전시실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238-7480
경기미술새로운도약위한대토론회	10.5	3층 다산홀	민예총경기도지회	235-6150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10.6	3층 다산홀	기획부	231-7224
경기문화재단전시관개관기념초대전	10.5~10.11	2층 제1,2전시실	민예총경기도지회	235-6150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1호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10.20	3층 다산홀	기획부	231-7224
전국포럼(구석기유적지도사랑하는사람들)	10.20~10.31	2층 제1,2전시실	전국포럼	016-256-5663

수원청소년문화센터 (031-228-2146)

- 연수동(1,362평)** : 기능간 독립성과 연속성의 역동적 체계로 구성
 - 도서관(열람석350석) • 은하수홀(180석)
 - 전시장(95평) • 식당 및 매점(200명수용)
 - 강의실, 세미나실, 시청각실, 휴게실, 청소년상담실
- 운누리아트홀(1,421평)** : 청소년을 위한 각종 연극·연주회·콘서트 및 영화시사회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연장
 - 객석(622석), 분장실, 음향실, 조명실, 영상실, 휴게실, 사무실 및 매표실, 로비
- 꿈의 체육관(2,455평)** : 가변무대 설치로 청소년들이 젊음과 열정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한 다목적공간
 - 관람석(691석, Floor 43m×23m)
 - 경기운영실, 심판실, 선수대기실, 사무실, 통신실
 - 방재실매점
- 새천년 수영장(2,455평)** : 국제물장 규격으로 공식경기도 가능
 - 수영장10레인(25m×50m) • 매점
 - 탈의실, 샤워실, 사우나실, 경기운영실, 선수대기실, 의무안전요원실, 가변관람석(585석)



⑤ 옥외시설

- 롤러스케이트장(588평) • 테니스장(2면)
- 무지개광장(380석) • 야외공연장, 주차장(소형 98대)

수원야외음악당

수원야외음악당은 1995년 11월 삼성전자에서 건립, 수원시에 기증한 최신 첨단음향장비를 갖춘 국내최대규모의 야외음악당이다. 고정관람석과 1만5천명이 앉을 수 있는 잔디광장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건물내 부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시립합창단 전용연습실·분장실·휴게실 등이 있고, 80여명의 무대에는 각종 공연에 적합한 음향판 구조와 조명시설, 최신테프론 소재로 양질의 음향을 제공하는 19개소의 옥외스피커(38kw)가 있으며, 각홀 천막구조와 저음스피커(20kw)와 어울려 잔디광장 어디에서나 최적의 음향으로 고급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행 사 명	행 사 기 간	주관(주회)	문의전화
화성문화제 군악대 51사단 군악대	9.7~9.12	수원시	228-2735
전통예술단	9.8		
사랑평화예술단	9.14~19		
콘서트	9.22		
국민학교 학예발표회	9.21~9.26		
수원시립교향악단 연주회	10.5		
곳곳리 창작가요제	10.6		
월드컵공연 예술행사	10.5~10.11		
수원시립교향악단 연주회	10.20		
수원시립교향악단 연주회	10.20~10.31		

경기도문화예술회관 (031-230-3200)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은 각종공연·전시회·국제회의 등을 연중무휴로 개최할 수 있으며, 대공연장의 회전무대, 이동무대 등과 400장면을 기억할 수 있는 '컴퓨터시설', 1,700등이 설치된 '조명시설', 24개의 음을 입력하여 8개 그룹으로 조합하여 사용목적에 따라 음을 분류할 수 있는 '음향시설'을 갖추는 등 국내에서 가장 첨단시설로 설비된 문화예술공간이며 각종 공연 및 전시회가 연중 열리고 있다. 

- 대공연장(13,295㎡)
- 대전시장(727㎡)
- 국제회의장(629㎡)
- 소공연장(3,157㎡)
- 소전시장(311㎡)

	행 사 명	일 시	비 고
대 공 연 장	중국인형극단 초청공연 '피노키오'	9.3	
	바르토크모던 심모니오케스트라	9.4 10시·13시	
	홍경민콘서트	9.8	공연과 사람들 ☎ 221-1082
	수원국재음악제	9.11~13	수원시 ☎ 228-2471
	(천상천하)원무를즐거나	9.14	김근희무용단 ☎ 011-248-0465
	해병대군악순회연주회	9.18	해병대사령부(군악대) ☎ 290-4670
	수원시립합창단 정기공연	9.20	수원시 ☎ 228-2813~5
	수원시향 정기공연	9.21	수원시 ☎ 228-2813~5
	경기국악제	9.27	도립국악단 ☎ 230-3242~7
	도립국악단 정기공연	9.28	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 ☎ 236-1070
	화성문화제 경축음악회	10.9	수원시 ☎ 228-2471
	삼일음악회	10.11	삼일상고 ☎ 251-3166
	난파소년소녀합창제	10.16	성정문화재단 ☎ 257-4500
	도립팝스 정기공연	10.20	도립팝스 ☎ 230-3242~7
	청소년종합예술제	10.25	경기도
	제2회 가을에만난닥시프레이즈	10.27	한규용 ☎ 224-6032
	도립국악단 정기공연	10.30	도립국악단 ☎ 230-3242~7
	수원시향 정기공연	10.31	수원시 ☎ 228-2813~5
소 공 연 장	경기가야금 앙상블 정기공연	9.6	경기가야금 앙상블 ☎ 02-572-9137
	제6회 경기도동문화예술제	9.7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 217-6860
	토요상설 국악공연	9.8, 22, 10.6, 20	수원시
	코람데오 남성중창단 정기공연	9.11	도립국악단 ☎ 230-3242~7
	제10회 청소년연극제	9.20	
	제8회 경기국악제	9.26	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 ☎ 236-1070
	현대음악창작발표회	10.11	경기창작음악회 ☎ 227-3294
	콘서트콰이어뮤지컬 2001	10.13	수원콘서트콰이어합창단 ☎ 256-2922
	수원챔버오케스트라 정기공연	10.17	수원챔버 ☎ 011-414-9424
국 제 회 의 장	청소년종합예술제	10.25	경기도
	수원시서예대전시상식	9.15	수원시서예가협회 243-9393
아 외 공 연 장	동화구연대회	10.14	경기도
	난파합창단 공연	9.1 19:30	
대 전 시 장	도립팝스 공연	9.2 19:30	
	장청회원전	9.3~5	정천회
	경기도사진작가초대전	9.8	한국사진작가협회경기도지회 ☎ 222-6255
	제11회 수원시서예대전	9.15	수원시서예가협회 ☎ 243-9393
	제22회 경기종합예술제	9.21	한국미술협회경기도지회 ☎ 032-656-0083
	제6회 수원조각가회정기전	9.28	수원조각가회 ☎ 297-7975
	2001 수원화성아트쇼	10.6	수원화성아트쇼운영위 ☎ 251-7804
	제8회 회원전	10.28	한국서예협회경기지부 ☎ 399-3312
소 전 시 장	한국노동문화예술제입상작 전시회	9.7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 217-6860
	제22회 경기종합예술제	9.21	한국미술협회경기도지회 ☎ 032-656-0083
	제10회 경기구상작가전	9.28	☎ 374-2984
	제10회 수원구상작가전	10.2	☎ 374-2984
	2001 수원화성아트쇼	10.6	수원화성아트쇼운영위 ☎ 251-7804
	제22회 경기종합예술제 기성작가전	10.19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 238-7480

전통과 현대의 퍼포먼스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 개장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행사장내에 꾸며진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1만 5천여평)'에는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개최기념 '청년작가 야외조각공모전'에 응모된 684점 중 독창적인 청년작가들의 작품 77점과 국내 중견작가들의 초대작품 22점 등 총 97점이 설치·전시됐다.



세계 최고의 명품 조선백자를 낳았던 유서깊은 광주 시 실촌면 곤지암리 일대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행사장내에 꾸며진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1만 5천여평)'이 8월 6일 개장됐다.

이 조각공원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개최기념 '청년작가 야외조각공모전'에 응모된 684점 중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독창적인 청년작가들의 작품 77점과 국내 중견작가들의 초대작품 22점 등 총 97점이 설치·전시됐다.

'청년작가 야외조각공모전' 최종심사결과 '하늘을 닮은 땅의 노래' (오석과 스테인리스)를 출품한 김도근씨(31·서울시립대학원 환경조형학과 재학)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우수상은 신치현씨(32·고양시)의 '마주보기' (시멘트, 철근)와



이환권씨(26·경원대 재학)의 '먼 곳을 바라보는 남자' (브론즈)가 차지했으며, 성창학씨의 '잉여인간'과 천성명씨의 '남겨진 사람들'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사이버 갤러리 참고)

심사위원 최태만씨는 대상작 '하늘을 닮은 땅의 노래'에 대해 "명상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추상작품으로 거울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스테인리스 입방체와 오석이 조화를 이루며 주변의 자연경관을 작품 속에 투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은 1차 심사 후 지급된 제작비 500만원 외에 대상 1천만원, 우수상 700만원, 장려상 500만원 등 상금과 상패가 지급됐다.

최근에 완공된 조선관요박물관과 조선백자도요지 등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된 문화명소에 자리한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은 '초대의 정원' '역사의 언덕' '전통의 숲' '사색의 길' '체험의 마당' '공존의 숲' '희망의 뜰'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별로 구성돼 있다.

'초대의 정원'에는 아늑하고 조용한 구릉과 언덕을 바라보며 한국의 중견작가 20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사실적인 작품과 추상적인 작품 등 다양한 양식과 주제를 지닌 작품이 설치되어 현대조각의 다양성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철학과 독특하고 개성적인 표현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역사의 언덕'에는 언덕을 넘어 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곳에 작가들의 현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작품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역사와 현대사회에 대한 작가들의 생각과 현대인의 삶에 반영된 시대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설치돼 있다.



▲공존의 숲에 전시된 손규호씨의 작품 '넘어진 화분'





▲ '초대의 정원'에 전시된 도학희씨의 작품 '이카루스-不死의 날개를 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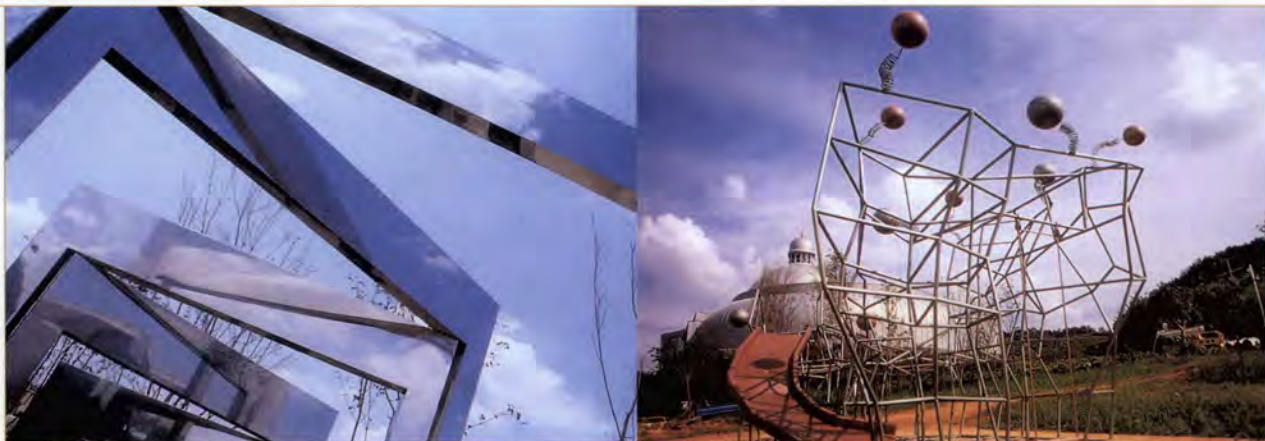
▲ '사색의 길'에 전시된 이명우씨의 작품 'CUBE'

'전통의 숲'은 도자기엑스포 조각공원의 맨 우측에 자리잡은 곳으로 한국미의 원형성과 정체성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표현한 작품이 모여있다. 전통적인 창작의 세계와 아름다움을 추구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사색의 길'에는 아름다운 산자락과 능선을 배경으로 관념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작가들의 작품이 펼쳐져 있다. 추상과 구상의 이미지를 통하여 삶의 의미와 우주·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인간과 삼라만상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체험의 마당'에는 나지막한 구릉을 따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작품들을 모아놓았다. 움직이거나 놀이가 가능한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작은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다. 작가들의 작품을 피부로 느끼면서 예술가들의 창작 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존의 숲'에는 자생화들이 사철 꽃을 피우는 작은 정원형 공간을 뒤로 환경과 자연에 대한 표현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다. 자연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인간의 이기심과 급속한 물질문명의 전개를 반성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을 모색하는 장이다.



▲ '체험의 마당'에 전시된 이준철씨의 작품 '펼쳐진 문' (좌)과 '사색의 길'에 전시된 강효영씨의 작품 '나무, 시냇물 그리고 폭포가 있는 산' (우)



▲ '역사의 언덕'에 전시된 김병하씨의 작품 '보다'

'희망의 뜰'에는 넓은 평지에 작은 산책로를 따라 인류와 자연, 사회에 대한 작가들의 희망과 기대가 표현되고 있는 공간이다. 현대인의 삶과 과거로부터 미래에 대한 작가들의 이상과 꿈이 표현되고 있는 공간이며 밝은 금속성 재료와 동양적 세계관이 반영된 작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상품화를 위해 안성시 만세고개와 여주군 명성황후 생가 등 유적지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 등 신진 작가들을 대상으로 전국 공모전을 실시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작품을 확보한 뒤 오는 11월말까지 5억원을 들여 유적지 인근에 조각작품 70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만세고개 3·1운동 유적지 주변에는 산책로 270미터를 조성하여 조각작품 20점을 설치하고, 여주읍 능현리 명성황후기념관 및 생가주변에 50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남한산성, 화성, 양주 회암사지 등 문화유적지에 조각공원을 설치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화**

▼ '체험의 마당'에 전시된 김인태씨의 작품 '탈주의 공간'



스페인 테마파크 “첫 삽 뜨다”

2001 스페인 조각가 초대전

경기도는 스페인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도민들에게 스페인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스페인풍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지난 8월 6일부터 25일 까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자매결연 돼있는 경기도가 오는 2004년까지 도내에 스페인풍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스페인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도민들에게 스페인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는 스페인풍 공원에는 스페인 조각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조각공원’과 함께 ‘가우디’ 성당모형, ‘무직함대’ 모형 등 스페인의 건축양식과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스페인 테마파크 조성을 앞두고 지난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페인 조각가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 심포지엄을 통해 세계적인 거장 스페인의 유명조각가 플라테벨 엔릭 등 24명의 작가와 스페인에서 수학한 국내 작가 배삼식씨 등 2인을 포함한 총 26인의 작가들은 약 30여점의 걸작품들을 제작했다.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성황리에 진행중인 광주행사장 옆에 설치된 임시 작업장에서 구슬땀으로 조각한 이 작품들은, 지금 '도자기엑스포조각공원' 뒷편으로 연결된 공원에 설치되고 있다. 이들이 제작한 작품들은 현대 스페인풍으로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이국적 분위기의 새로운 조각들이다.

앞으로 조성될 '스페니쉬 파크'는 '가우디' 공원, '피카소·달리' 미술관, '지중해' 공원 등 스페인풍이 물씬 풍기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의 가와사키현에서 네덜란드풍의 테마파크인 '하우스텐보스'를 만들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탄생시킨 것과 같은 맥락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볼 수 있다. 유독 광주행사장을 테마파크 조성지로 고집한 데는 스페인 오토노마 대학 한국학 연구센터소장이자 전형적인 한국통으로 알려진 '요셉 마늘 브라나스' 교수가 이번 초대전 추진위원장을 맡아 실무협의를 위해 최근 광주행사장을 둘러본 뒤 최적의 장소로 적극 추천해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초대전에 참여한 작가 가운데 플라테벨 엔릭씨는 전 세계를 두루 순회하며 개인전과 그룹전을 수 차례 열어 세계적인 거장으로 스페인문화상·후안미로상·카탈루냐주정부상·스페인문교부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는 작가다. 그는 이번 초대전에 '머릿돌'이란 작품을 만들었다.



도는 우선 내년말까지 스페인 조각가들의 작품 100여점을 전시하는 조각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현재 의뢰중인 공원조성방향 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 구체적인 시설물 등을 결정하여 빠르면 오는 2004년말까지 공원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소리로 빛는 예술, 옹기

경기도 · YTN이 공동 주최한 대학생 영상공모전 최우수작품상 (이재혁 · 박경진/ 동아방송대)

최우수 작품상으로 동명정보대 허광훈씨의 '사라지는 옹기'와 동아방송대 박경진 등의 '소리로 빛는 예술, 옹기'는 전체 구성력이나 영상 그리고 음향 처리 부분이 뛰어나 최우수 작품상으로 선정되었다.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기념하여 열리는 전국 대학생 영상물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을 찍기 위해 우리는 전남 보성으로 향했다. 이 공모전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도자기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도자기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도자기에 대해 알면 알수록 세계 속의 한국 도자기의 명성에 놀라움과 뿌듯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우선 촬영을 할 확실한 대상을 정해야만 했다. 신비로운 청자, 소박한 백자, 조각과 도자기의 어우러짐이 있는 분청사기, 자연을 닮은 흙빛 토기 등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이 많은 도자기들 중에 과연 무엇을 외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조사를 하기 전 우리처럼 도자기에 대해 잘 모르는 한국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일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한 결과 우리는 점심때 먹던 된장찌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한국인의 식탁에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는 된장찌개, 김치, 고추장 등등. 이러한 발효 식품이 가능

할 수 있었던 일등공신, 바로 옹기였던 것이다.

옹기로 아이টে이 정해진 다음 우리는 옹기를 굽고 있는 옹기장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에 전라남도 보성에 300년 동안 9대째 옹기만을 만들어 오고 있는 미력옹기 이학수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옹기는 일반 도자기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도자기가 흙덩어리를 통째로 물레에 올려 손으로 끌어올린 다음 그 형태를 만드는 반면에 옹기는 그릇 옆면을 붙이고 또 이어 붙여서 그 모양을 만든다. 공방에서 촬영을 하는데 흙을 만지는 곳이었어서 그런지 어두 침침하고 습도가 높아서 짜증도 나고 카메라가 빛을 인식하지 못해 우리 속을 답답하게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명장비라도 가져 오는 건데 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무 인위적이라며 그냥 하는 게 낫다고 하셔서 안심할 수 있었다. 그냥 흙으로 이어서 만드는 그릇이 물을 넣어도 새지 않고 무엇인가를 보관하는 옹기 역할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동아방송대 이재혁



동아방송대 박경진

부산의 동명정보대 허광훈씨가 출품한 '사라지는 웅기'와 동아방송대 박경진·이재혁 등이 출품한 '소리로 빛나는 예술, 웅기'가 제1회 YTN영상 공모전 최우수작품상으로 선정됐다. 또 우수 작품상에는 광주대 안석홍의 '녹차'와 이화여대 나은경의 '이 시대 독짓는 늙은이'가 결정됐고 장려상에는 청운대 강병근의 '재 유약으로 여는 미래' 동아방송대 최가람의 '녹자이야기' 성균관대 정미정의 '할머니의 웅기조각' 등 3편이 선정됐다.

우리가 처음 웅기를 촬영하러 갔을 때는 우리의 발효식품과 연관을 지어 웅기의 숨쉬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막상 공방에 가보니, 웅기 만드는 소리가 어찌나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던지 그 소리만으로도 웅기 그대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획을 다시 하기로 했다. 소리로 만드는 예술, 웅기로 말이다. 흙을 찰지게 치대는 매질에서부터 흙 표면을 긁어내는 께끼질, 흙덩어리를 넓게 늘리는 판장질, 그릇벽을 만들 때 나는 쿵딱쿵딱 소리, 가마에서 장작이 살신성인하는 소리 등 등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생명의 소리들이 우리를 이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웅기는 그늘진 곳에서 말린 뒤 유약을 바르는데, 그 유약 바르는 소리가 어찌나 맑고 시원하던지 꼭 계곡에 놀러 온 거 같았다. 선생님께서는 소나무와 약토를 넣은 이 유약이 웅기를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옷이라고 하시면서 요즘 사람들이 변쩍이는 것만 좋아하다 보니 화학 처리를 하는 웅기가 판을 치는 거라며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셨다. 이렇게 광명단을 입힌 웅기는 비록 겉모습은 번지르르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는 모르지만 웅기의 숨구멍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웅기가 숨을 쉴 수 없어 음식을 보관하면 금방 상한다고 한다.

장작가마에 불 피우는 모습을 찍으면서 우리는 왜 도자기를 불과 흙의 예술이라고 하는지 어렵פות이나마 알 수 있었다.

웅기 만드는 모습과 소리를 담아오면서 힘들었던 건 모기에 물리는 것도 아니었고, 먼 거리를 가야만 하는 피곤함도 아니었다. 웅기를 만드는 장인의 혼과, 생명의 소리, 감미로운 불빛과 자연 그대로의 흙의 모습을 좀 더 한국적으로 담아와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우리 자신이 한국인이면서도 정작 그 깊숙한 모습까지 알지 못하는 도자기. 그 도자기를 알아가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보람되고,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느끼게 해 주었다.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을 도자기. 이제 촬영도 끝나고 다행히 좋은 결과도 있어 기분도 좋지만 우리는 한가지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그 아름다운 도자기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사행길로 접어들 도자산업의 현주소를 또 다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정말 박물관에서만 봐야하는 죽은 문화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 대중과 친해지는 도자기를 통해 우리의 생활 속에 도자기가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글 | 박경진 

線과 色의 美學 - 한복의 흐름展

이영희 패션쇼

경기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이영희 패션쇼에는 고려의 왕과 왕비의 전통 궁중옷,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의 한복, 화려한 기녀의 의상, 현대 생활한복 등 수준높은 작품들이 소개돼 갈채를 받았다.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개막기념행사로 ‘이영희 패션쇼’가 경기문화재단 주최, (주)매종드 이영희 주관으로 8월 10일 이천행사장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졌다.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의 초청을 받아 평양에서 ‘민족 의상전’을 개최한 바 있는 이영희씨의 이번 패션쇼에는 도자기의 선·색·태(線·色·態) 등에서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복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한껏 자아냈다.

1부 전통한복, 2부 현대의상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패션쇼에서는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한민족 고유의 의상 한복을 25명의 모델이 출연해 각각 독특한 개성이 돋보이는 100여 작품을 선보였다.

1부에서는 고려의 왕과 왕비의 전통 궁중옷,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의 한복, 화려한 기녀의 의상, 현대 생활한복 등으로 구성된 전통한복을 재연하였으며, 2부에서는 파리 컬렉션의상을 테마별로 구성하여 우리의 전통 한복이 현대화·세계화되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고려시대 의상으로는 ‘오채복’이라 불리는 호화찬란한 의상에 왕관을 쓴 왕과 장신구로 치장한 왕비, 귀부인들이 즐겨입던 의상,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의 의상, 그리고 스님·애기보살 의상 등 다양한 계층의 한복의상을 선보였다.

조선시대 의상으로는 화려하면서도 격조 있는 18세기 왕의 등극장면을 연출했다. 최고의 예를 갖춘 등극식에 선보이는 전통 궁중복에는 ‘구장복’을 입은 왕과 ‘치적의’를 입은



왕비, ‘대례복’을 갖춘 왕족대신과 상궁, 내관 등이 출연했으며 또한 공주가 시집갈 때 입는 ‘할옷’과 궁중에서 평상시에 입던 ‘당의’ 등 20여벌이 소개됐고,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의 한복 등 일반인들의 신분을 알려주는 ‘한복’도 마련됐다.

그리고 5월 단오날 동네 우물가로 물 길러 가는 서민들의 풍경과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길을 떠나는 선비와 기녀와의 만남을 애뜻하게 그린 장면을 연출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여기서 은박수를 놓아 화려하게 꾸민 ‘파티복’도 선보였다.

한편 한복에 뿌리를 두고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컨셉으로 제작한 수준 높은 작품들도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갈채를 받았다. 



한국 '김치' 사랑해요!

페루 · 나이지리아 등 외국인 40여명 전통문화체험

경기체험문화교실 / 태장고등학교



photo by 김민정(경기문화교실)

수원 영통에 있는 태장고등학교(교장 김일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문화체험교실'이 9월 2·9·16·23일(일) 4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지난 9월 2일 열린 첫 회는 페루·나이지리아 등 외국인 40여명과 지역주민 및 학부모 150여명이 한데 어울려 '김치 만들기'와 '축구시합'을 하면서 우의를 다졌다.

'경기문화체험교실'은 경기문화재단·경기도교육청·영통2동사무소 등의 도움으로 태장고등학교가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급하고, 외국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이 행사는 외국인들이 우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한국관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더 시행될 이 행사에서는 서예·장고·민요·목검·고적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 맵다" 페루영사의 김치담그는 모습

Mini 행사 참가기



□ 베르나르도 웨르난데스 벨리스(45세·페루인·노동자)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이 힘들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음식 중에 나는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대표적인 한국음식인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알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해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 마르코 이노호사(페루영사)

한국에 부임한지 3년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2명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나의 한국에 대한 애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음식 중 나는 김치를 좋아하는데, 특히 아내가 더 좋아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이 태장고등학교와 함께 외국인들을 위해 이 같은 행사를 개최해주니 참으로 기쁩니다. 이번 행사가 주한 페루인과 한국인 모두 상호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특히 전통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 양영대(태장고등학교 3년)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 뭔가 모르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국인들과 함께 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들에 대한 폐쇄적인 생각을 고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김치 담그기 행사에 매년 참석해서 이번으로 세 번째 김치를 담그게 되었습니다. 매년 우리의 전통음식인 김치를 직접 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태장고를 다니는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는 우리가 우리의 전통식생활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즈음 학생들이 많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때도 김치를 생각할 정도로 김치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도자기엑스포' 두 배로 즐겨요!

청소년 '열린문화마당'

200만 인파가 넘어선 도자기엑스포 현장에는 연일 게릴라성 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더하고 있다. 모두 14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진 '깜짝쇼' 소공연들은 적은 운영요원으로 진행하면서도 엑스포행사장 거리를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



날로 열기를 더 해가는 '도자기엑스포' 현장에 이색 코너가 등장해 어린이들과 청소년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엽기적인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200만 인파가 넘어선 가운데 지난 8월 18일부터 이천과 여주행사장에는 느닷없이 게릴라성 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더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이 성공적인 도자기엑스포를 위해 행사 끝 날까지 지원하는 상시 이벤트가 바로 그것이다.

모두 14개의 종목으로 이루어진 '깜짝쇼' 소공연들은 적은 운영요원으로 진행하면서도 엑스포행사장 거리를 활기차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엽기분장' 코너는 그동안 영화나 TV 등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특수분장을 마네킹 전시를 통해 선보이고, 이 분야에 10여년 이상 종사해 온 전문 분장사 3명이 배치되어 상처·멍자국·핏자국 등 간단한 특수분장을 희망자에게

직접 해주며 관람객들에게 과기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어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또한 동호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펌프경연대회'는 펌프게임 인터넷 동호회 '펌프스트리트(Pumpstreet)'의 시범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참여하려는 열기로 인해 무더운 행사장이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있다.

성인을 위해 마련된 '퍼팅게임'은 골프공이 홀에 쉽게 들어가지 않는 등 이슬아슬한 재미를 느끼게 하자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린이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자기엑스포 폐장까지 계속될 예정인 이 같은 코너는 지금까지 선보인 각종 이벤트와 퍼레이드에 이어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재미를 한층 더 해주는 또 다른 인기코너가 되고 있다. **김영**



도자기 엑스포의 다양한 이벤트

- 한바퀴 돌기, 앞바퀴 회전, 정지·점프, 장애물 넘기 등의 '자전거 묘기'
- 전문 시연자의 묘기시범과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텀블링연대회'
- 묘기시범, 장애물 통과, 장애물 높이뛰기, 공중회전 등의 볼만한 '스케이트 보드 쇼'
- 영화·TV 등에서 사용하는 라텍스 분장을 이용한 흉터, 핏자국 등을 만들어 주는 '엽기분장'
- 성인들을 위해 마련된 골프 퍼팅 연습기를 이용한 '퍼팅게임'
- 간단한 카드, 동전, 스카프를 이용한 '게릴라 마술 퍼포먼스'
- 짚을 이용해 각종 생활용품품을 제작·시연·전시하는 '짚신 할아버지'
- 경연과 게임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는 '다트와 빙고'
- 큰 입찾기, 비스킷 세워서 먹기, 큰 머리찾기, 등의 '도전 엽기 기네스'
- 중장년을 위한 전문 하모니카 연주자의 '추억의 하모니카'
- 유명문장을 쓰고 설명하며 관객에게 나누어주는 대심심님의 '서예 퍼포먼스'
- 경쾌한 음악에 맞춰 병 돌리기 및 피라미드 잔에 불 붙이기 등을 하는 '칵테일 쇼'
- 참가자들이 주어진 문장을 사회자의 전화에 빨리 전송하는 '문자메시지 과거'
- 막대 풍선과 둥근 풍선을 이용하여 각종 모형을 만들어 제공하는 '발론 아트'





필자 소개

임상택 _ 서울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종택 _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조교수

김재열 _ 호암미술관 부관장

이도형 _ 도예평론가

다시 쓰는 경기도자 史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뒷받침하는 경기도자문화사가 발간됐다.

경기문화재단 발행 기전문화예술 총서 시리즈 제11권으로 발간된 이 책은 그동안의 경기도자문화를 재정리하고 세계도자기 엑스포 관람객들에게 우리 도자문화를 알기 쉽게 연대별로 풀어 쓴 도자문화 이론서다.

호암미술관 김재열 부관장을 중심으로 도예평론가 이도형의 근·현대도자문화, 서울대 박물관 임상택 연구원이 선사시대의 토기에서부터 최종택 연구원의 경기지역 고대토기를 지역별로 풀어썼다.

「흙으로 빛는 미래 - 다시 쓰는 경기도자 史」는 경기도 도자문화의 기나긴 여정과 발자취 그리고 그것이 갖는 소중한 의미들을 기록하여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관람하는 경기도민과 관람객들에게 경기도자문화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하여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책의 대표필자 김재열 박사는 “백년 가까이 조선의 도자문화를 주도해온 경기도는 조선왕조의 몰락과 함께 광주에서 분원이 혁파되고 우수한 사기장들이 전국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경기도 일대에서 한동안 가마의 불길이 사그라졌었다. 이번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경기도」를 기점으로 경기도가 우리 전통도자기의 메카로서 명실상부한 전통을 계승하고 한국도자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쓰는 경기도자 史」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전 기간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을 원칙으로 하여 그 원류가 되는 토기문화 부분(신석기시대~통일신라시대·임상택), 경기도자문화 역사의 중핵을 이루는 고려·조선의 도자문화부분(고려시대~조선시대·최종택), 20세기 들어 새롭게 부상하는 경기도의 신흥도자산업 실태(이도형)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기존에 알려진 경기도자문화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는 한편 최근 밝혀진 성과들도 가능한 한 많이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읽는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와 관련사진을 싣고 부록을 활용하여 참고 사항이나 도표·일람표 등을 따로 모아 놓았다. 다만 유적의 위치를 알려 주는 지도나 설명문의 경우 너무 자세히 할 경우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대략적인 위치만 밝혀두어 관심 있는 분들이 유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서로 또는 관련학자들의 학술자료집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다시 쓰는 경기도자 史」는 도자기엑스포 사업본부나 일반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4×6배판 / 352면 / 값 15,000원 / 구입문의 031-231-7225

전통자기 재현
“팔방미인,”

아름다운 天然의 빛으로 천년의 신비를 벗긴다

손유순





1972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합격한 고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설움을 삭이고, 그저 어려운 집안을 원망하며 지내던 중 무심코 친구 손에 이끌려 들어간 곳이 당시 「해강고려청자 연구소」였다.

그 때 그 시절, 우리는 너나할 것 없이 모두 가난에 찌들은 삶을 살았다. 단돈 몇 천 원이 없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가슴 속 깊이 간직했던 푸른 꿈을 접고, 농사일이나 산업현장에 뛰어들어 장시간의 노동과 박봉에 시달리며 살아야했던 친구들이 부지기수였다. 더욱이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난 죄로, 우리의 누님들은 조국의 고통스런 현실을 온몸으로 껴안고 뒷간에 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남몰래 훔치며 살아왔다.

모두가 자기의 꿈을 버리고 현실에 기대어 먹고살기에 바빴던 그 때, 비록 상급학교 진학의 꿈은 빼앗겼지만 현실의 벽을 향해 웅골찬 도전을 해오며 살아온 맹렬 여성이 있다.

소정(小井) 손유순(孫有順). 그녀를 아끼는 신의 섭리일까? '72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합격한 고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설움을 삭이고, 그저 어려운 집안을 원망하며 지내던 중 무심코 친구 손에 이끌려 들어간 곳이 당시 「해강고려청자 연구소」였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또 그 길로 성공하고자 했던 손유순에게는 이것이 천우일우의 기회가 되었다. 또한 지금 그녀가 있기까지 외조를 해주고 있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난 곳도 바로 이곳이다.

손유순은 1990년 '소정도예'를 열기까지 딸 아이 둘을 키울 때를 제외하곤 도자기 전(全)제작과정에 자신의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 피땀어린 노력을 쏟아 부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은 상장으로 남고 그것은 10평 남짓한 전시관 벽을 한바퀴 돌고도 남는다. 또한 1994년부터는 롯데월드, 연세대, 이천도자기축제장,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 매년 전시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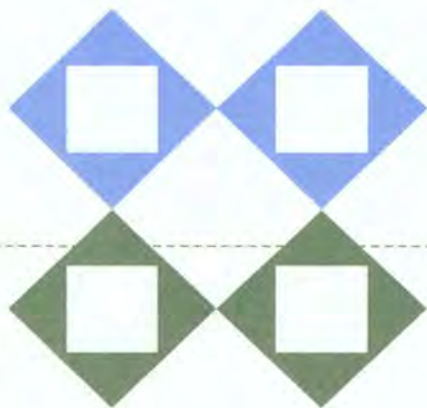
전통자기 재현에 힘쓰고 있는 손씨는 산화철이나 산화크롬 등과 같은 안료를 쓰지 않고 도석(백색괴상점토)·청주석회석·부여규석·참나무재·서산물토 등 천연원료만으로 자신이 직접 만든 유약을 사용하여 질감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전통 고려청자의 유약을 재현하고 있다.

먹고 살만한 요즘에 와서 여성 도예인구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문 여류도예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특별히 한국도예의 '메카' 이천에 있는 350여개의 가마에서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30명 정도 되는 도자기조합에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이번 세계도자기엑스포 이천행사장 개막식에도 여성 도예인으로는 유일하게 개막식연단에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았다.

전통자기 재현에 힘쓰고 있는 손씨는 산화철이나 산화크롬 등과 같은 안료를 쓰지 않고 도석(백색괴상점토)·청주석회석·부여규석·참나무재·서산물토 등 천연원료만으로 자신이 직접 만든 유약을 사용하여 질감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전통 고려청자의 유약을 재현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문양과 형태를 기반으로 자식을 많이 둘 것을 축원하는 의미를 갖는 '석류문' 문양, 자손이 번성하여 만대에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호로문' 문양, 최고의 관직에 올라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축원하는 '모란문' 문양을 비롯하여, 그의 독특한 창작품인 수세미·조롱박·감등의 문양으로 장식한다. 이러한 작품을 가지고 이번 세계도자기엑스포 이천행사장에 홍보를 목적으로 조그마한 부스를 마련했다.

이제는 상감청자와 양각 분청사기 제작기술은 널리 인정받아 여기저기 불려가 토론에도 참여하고, 강의도 한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그녀의 한(恨)은 그녀로 하여금 틈틈이 공부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마치게 하였고, 명지대 산업대학원 최고기술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올해에는 방송통신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손씨는 늘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통대를 졸업하면 그녀는 또 대학원에 들어가 도예관련 공부를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글·사진 | 서정문





제6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입상자 134명(팀) 확정 산업 현장에 핀 문화예술의 꽃!!

최영준 /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정책실 전문위원

경기도내 노동자 대상의 문화예술축제인 '제6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수상자 134명(팀)이 확정됐다.

지난 6월초부터 노동문화를 비롯해 미술·문학·서예·사진·연예 등 6개 분야 10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올해 경기노동문화예술제에는 총 8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는데, 노동문화분야에서는 율동부문에 출전한 '침뽕코리아노조 율동패'를 비롯해 태양금속 최성규씨(문학), 삼성전자 박진씨(미술), 제르비노 코리아 윤옥섭씨(서예), 수원여객 박영철씨(사진), 계양전기 신정섭씨(연예)가 각 분야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 8월 10일 심사에 이어 28일 경연대회를 통해 확정된 올

해 수상자는 이밖에도 안산 동산고 유하영씨(서예) 등 10팀(명)이 금상을, 대한전선 김용원씨(시) 등 19팀(명)이 은상을, 성남종합사무기 박형경씨(수필) 등 24팀(명)이 동상을, 수원 장안구보건소 이순남씨(회화) 등 37팀(명)이 장려상을, 동광제약 소병수씨(연예) 등 38팀(명)이 각 부문 입선 및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와 함께 올해 노동문화예술제 운영위원회는 9월 7일 오후 종합시상식과 미술·사진·서예분야 입상작품 전시회 개막식을 개최, 오는 12일까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일반에 공개하며 입상작품집도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한다. **보도**



또 다른 이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것들은 이탈하기 이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이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다. 가령 내 식구에게 있어 경찰보다 단단한 생명 줄인 작업복도 땀땀한 노동의 궤도를 이탈, 표백제 한 스푼과 몸을 비비고 나면 부끄럽게도 하얗게 빛나는 빨래가 된다. 다시 세상으로 가는 날개가 된다. 날개는 또 어떠하랴 날개는 이쪽과 저쪽의 경계를 관찰하는 수평, 오만한 비상보다 아름다운 저울이다. 저울은 가끔 삐뚤어지게 진화하는 세포들을 중심에서 일으켜 세운다. 사다리처럼 영혼을 하늘에 매달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며 사람으로 살아가게 떠미는 약속인 것이다.

문학분야 대상 수상작 / 최성규(태양금속)

경기노동문화 예술제는?

사회변화 온몸으로 겪은 종합예술제 - 경기도내 노동 예술인의 산실 역할

경기도에도 노동자 예술인 등용문인 '노동문화예술제'가 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6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가 그것이다. 경기도내 300만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동단체인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의장 황윤진)가 매년 주최하고 경기도내 노동 및 예술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문화예술제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규호 한국예총 경기도지회장)가 주관하는 '경기노동문화예술제'는 주최 기관과 공모대상의 성격에 걸맞은 노동문화(노동가·울동·사물놀이뿐 아니라 미술회화·공예 및 조소, 문학시·수필, 서예, 사진, 연예 등 순수예술을 아우르는 종합문화예술축제를 지향한다.

사회적 격동기인 지난 1993년 제정된 '경기노동문화예술제'는 초창기 미술과 문학·사진·연예 등 순수예술과 함께 탄생했으나,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문민정부의 출범과 맥을 같이하며 지난 50년간 노동현장에서 특유의 문화로 자리잡은 '노동문화'를 접목하는 실험적 시도가 시행되고 현재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것도 적지 않은 성과로 들 수 있다.

반면 지난 1997년 겨울 치욕적인 구제금융시대가 열리면서 300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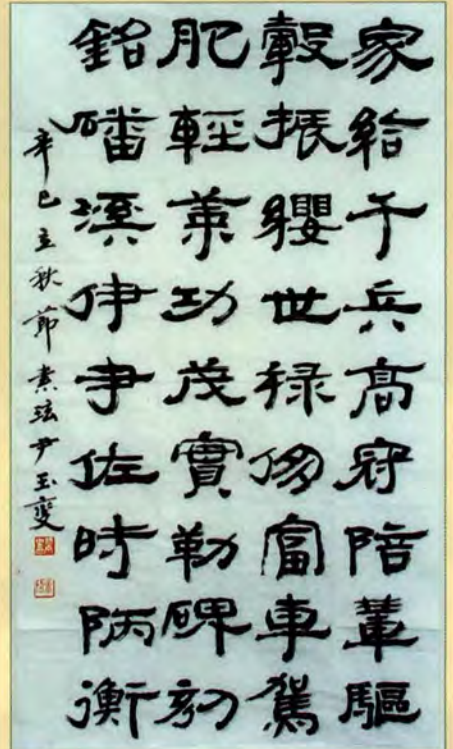
명을 육박하는 실업자가 양산되는 등 우리사회와 노동현장이 공포 열어 붙는 국난기에는 3년여동안 시행이 중단되었다 재개되는 등 이 땅의 사회상황과 함께 하는 굴곡의 시행사를 거듭했지만 지금까지 각 예술분야에서 4백여명의 노동예술인을 배출하고 21세기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 노동문화예술제'가 무엇보다도 빛나는 것은 지난 1999년 3년간의 공백을 딛고 다시 일어난 제4회 행사시 공모대상에 실직자를 포함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해방이후 최대의 경제난국의 한 가운데서 최대의 피해자로 실의에 젖은 노동자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재기의 의지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실현했다는 점일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 노동문화예술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인 국가경제 부흥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경기도내 산업현장 노동자의 정신문화활동을 통한 정서함양과 자아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사진분야 대상 수상작



서예분야 대상 수상작

경기노동문화 예술제 분야별 대상, 금·은·동수상자 명단

노동문화분야

대 상 | 어울림(칩팩코리아)

■ 율동 부문

금 상 | 붉은투혼(현대오토넷)

은 상 | 아침이슬(보령제약),
대원전선 율동패(대원전선)

동 상 | 광동제약 율동패(광동제약),
동광제약 율동패(동광제약)

■ 노동가요 부문

금 상 | 우레(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본부)

은 상 | 대원전선 노래패(대원전선),
임화천(대덕전자)

동 상 | 김송훈(신한일전기),
디피아이 노래패(디피아이)

■ 사물놀이 부문

금 상 | 운수대통(대원전선)

은 상 | 원창 사물놀이패(원창)

동 상 | 대덕전자 사물놀이패(대덕전자)

사진분야

대 상 | 박영철(수원여객)

금 상 | 김기선(삼성전자)

은 상 | 강인형(에이원테크),
김진태(안양 만안구청)

동 상 | 박창관(칩트론), 이세원(대한은박지)

미술분야

대 상 | 박진(삼성전자)

■ 회화부문

금 상 | 김원주(화인정밀공업)

은 상 | 김효숙(매탄초교), 김한수(쌍용자동차)

동 상 | 배수정(삼성전자), 정정미(삼성전자),
복연금(엔젤몬테소리)

■ 공예부문

금 상 | 김희자(삼성전자)

은 상 | 임경순(삼성DT), 윤완건(하이디스)

동 상 | 박금례(삼성전자), 정선자(삼성전자),
김영배(삼성전자)

문학분야

대 상 | 최성규(태양금속)

■ 수필부문

금 상 | 김일제(웅진문수)

은 상 | 양우열(하이디스), 이직녀(농심)

동 상 | 원종신(스칼렛미용실), 김정임(까치만화),
박형경(성남종합사무기)

■ 시부문

금 상 | 이상아(미도산업)

은 상 | 이형서(부천남초등학교),
김용원(대한전선)

동 상 | 지연구(에스테크), 황의율(기아자동차),
유택상(돌리상사)



회화분야 대상 수상작

서예분야

대 상 | 윤옥섭(제트비노코리아)

금 상 | 유하영(안산 동산교)

은 상 | 오 현(가민속셈학원), 서충석(은행중)

동 상 | 한성월(영복여중), 송태유(소화초교)

연예분야

대 상 | 신정섭(계양전기)

금 상 | 이선화(S.K.C)

은 상 | 그룹사운드 하기스(유한킴벌리),
조창희(디피아이)

동 상 | 김재권(동광제약), 송민식(유한킴벌리),
김명일 · 류은영(신곡초교)



왕릉의 미소

전통문양을 찾아

탁본(拓本)

인고의 세월을 지킨 당신을
검은 먹물로 어루만집니다.
비와 바람 자연의 힘을 다 견디시고
한지의 부드러운 가닥에
당신의 미소가 살아날 때,
뉘는 빼앗기고 맙니다.

산하처처에 자연과 어울려
천년을 이긴 당신이
애처롭게 다소곳이 쉬 있을 때
지금까지 남기고자 한
님의 뜻을 새깁니다.

탁본은 사람의 그림이 아니라
소묘한 자연으로
우리 앞에 옵니다. 첩런처럼...



경기도 일원에도 조선왕조의 능이 75릉(왕·왕비·계비) 해리고, 대군을 포함하면 200여기가 있다. 1392년 건국하여 1910년에 멸망하기까지 조선왕조 518년 태조 이래 왕위를 이어받은 임금은 27대에 이르지만 왕후와 계비 그리고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후에 임금 칭호를 받은 추존된 왕의 등까지 75개의릉이다. 아직은 자세한 그 문양을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풍화되고 탈락되어 그 모양을 영원히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왕릉의 미소'라는 이름으로 그 문양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경기도지방 왕릉문양 탁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왕릉의 문양탁본을 연재하면서...

사회가 급격히 도시화가 됨에 따라 도회적 생활 속에서 잊혀져 가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일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의무다. 전통은 역사적인 개념이다. 아무리 종래의 우리전통과 아주 다른 이질적 전통이라 하여도 우리가 아닌 남의 시선으로 볼 때, 외래문화 수용에는 우리적 전통의 작용이 보이는 것이다. 오랜 세월의 우리전통이 무너졌다고 해서 서구역사와 문화가 낳은 전통은 그래도 우리전통이라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과거를 물어버리고 물질주의에 너무 서두르고 있다. 우리 정신문화도 같이 병행하여 처처(處處)에 남아있는 것이 알려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지도 알리고 싶다. 그리하여 돌·쇠불이·나무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문양을 탁본(拓本)하였다. 이 작업은 단순히 모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문은 「찬」자에 의해 글이 새겨지고 서예가에 의해 글이 써지며 「각」자가 글을 새긴다. 많은 사람들의 예술혼과 정신이 담겨있는 것이다. 탁본은 세월의 이끼를 걷어내고 그 시대상황, 고승·성현들의 가르침을 읽어내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문양을 위주로 다룬다. 조상들은 바위와 쇠불이에 많은 것을 남기고 있다. 모든 것이 오래되면 될수록 풍화되고 부식되어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이 시대에서라도 탁본의 질감으로 세월을 읽어내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회학자들은 문자해석을 위해 채탁(採拓)하였으나 이제 우리들도 문양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맛보고 때로는 흐릿하게 보여지는 모습을 한지의 부드러운 맛과 질감으로 세상에 태어나길 바라는 바이다. 먹물이 주는 회화적 느낌은 우리의 정서와 나란히 한다. 탁본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사랑하고 옛 것을 새로이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탁본 대상을 감상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탁본이란 얇은 한지를 피탁물에 붙여서 그 물체에 있는 그림이나 문양·문자들을 실물 그대로 찍어내는 것을 말한다. 탁본의 방법이나 기술은 인쇄술과 사진술이 발달되지 않은 고대에서부터 출발한다. 인쇄술이나 사진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탁본이 주는 느낌과 실물 그대로라는 사실감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천년의 비와 오랜 풍상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마모되고 나면 선과 획의 자연동화, 자연과의 일체된 모습에서 오히려 더 높은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글자획의 날카로움이 풍우로 인하여 부드럽고 둥글둥글하게 변한 것 자체가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된 시각을 주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탁본의 매력은 참으로 아름답고 환상적인 것이 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새겨진 문자·문양들은 점점 탈락되어 갈 것이다. 범종들은 인화로 불타 없어지고(예전 용문사), 새로운 종을 만들기 위해 녹여지고(묘관음사), 조선시대 왕릉의 석물 문양들도 점점 풍화되어 사라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그 문양들을 채탁하여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고 차가운 돌이나 쇠불이에 따스한 생명력을 부여한 그 넉넉함을 느끼는 지면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 소개

1959년생으로 안동이 본관이고, 지금까지 전통문양탁본에 미쳐 있다.
1993년 제천문화원·청주진로백화점, 1996년 구산산문 탁본전(미황사)·서울-광주-대구 순회전
1997년 인사동 대보름전, 1998년 하남거리예술전 등의 전시회를 가졌다.



권보문 / 탁본연구가

남연군 묘 장명등 ‘꽃’ 문양

남연군의 묘 지세는 한마디로 풍수라 일컫는 명당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본래 이 터는 ‘가야사’라는 절터이나, 이 자리를 얻기 위한 흥선 대원군의 엄청난 욕망은 2대 천자지지(고종·순종)라는 터를 얻었지만, 조선역사는 두 임금을 끝으로 낙을 내리게 된다.

이 문양은 묘 앞에 세워진 장명등(長明燈) 사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한 폭의 문인화를 보는 것 같은 소박하면서도 세련미를 갖추고 있는데, 그 시절 한들한들거리는 꽃들의 정경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게 된다.

경기도 연천에서 덕산까지, 상여를 운반하던 길에서 보았던 들꽃, 난초와 새, 연꽃을 새겨놓아, 임금을 만들기 위한 욕망과 권력을 자연의 터 앞에 덧없고 빛 바랜 꽃들의 그리움만 우리 가슴에 잔잔하게 화두 하나 던져놓고 오늘도 서 있다.



성덕대왕 신종의 ‘공양 비천상’ 문양

신라 해공왕 7년(771)에 조성한 ‘성덕대왕 신종’은 구경 2,227mm, 전고 3,663mm, 두께 203mm의 엄청난게 큰 종으로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걸작품이다. (경주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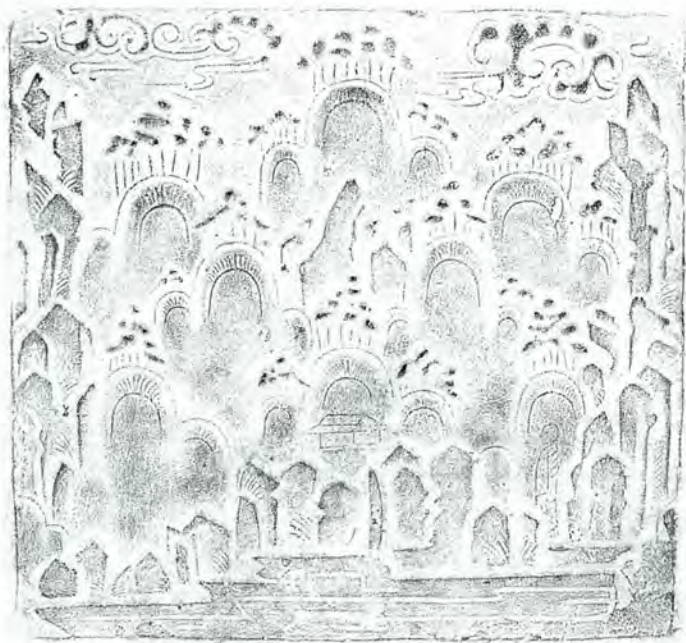
동양 청동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대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명종인 이 신종은 민족의 긍지를 깊이 심어주는 뿌리가 되고 있다. 종의 일부분인 비천상(飛天像)은 신라의 미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더욱 소중하고 새롭게 느껴진다. 구름 위의 연화좌상(蓮華坐像)에 무릎을 세우고 보살화 무늬를 구름과 같이 피어오르게 하여 천상의 바람에 옷자락과 영락을 휘날리면서 조화로운 ‘공양(供養) 비천상’을 만들고 있다.



오대산 상원사 범종의 '당좌' 문양

신라 성덕왕 24년(725)에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동종이다. 성덕대왕 신종보다 45년이나 앞선 이 종은 높이 1.67m, 종 입구가 91cm이다.

몸체에 있는 '당초문'이나 '비천상' 조각이 빠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소리도 낭랑하다고 한다. 종을 보호하기 위해 타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종신의 상대와 하대에는 화려한 당초문이 새겨져 있고, 종신에 조각된 비천상은 '공후'와 '생'을 연주하며, 곧 하늘로 솟아오를 듯 경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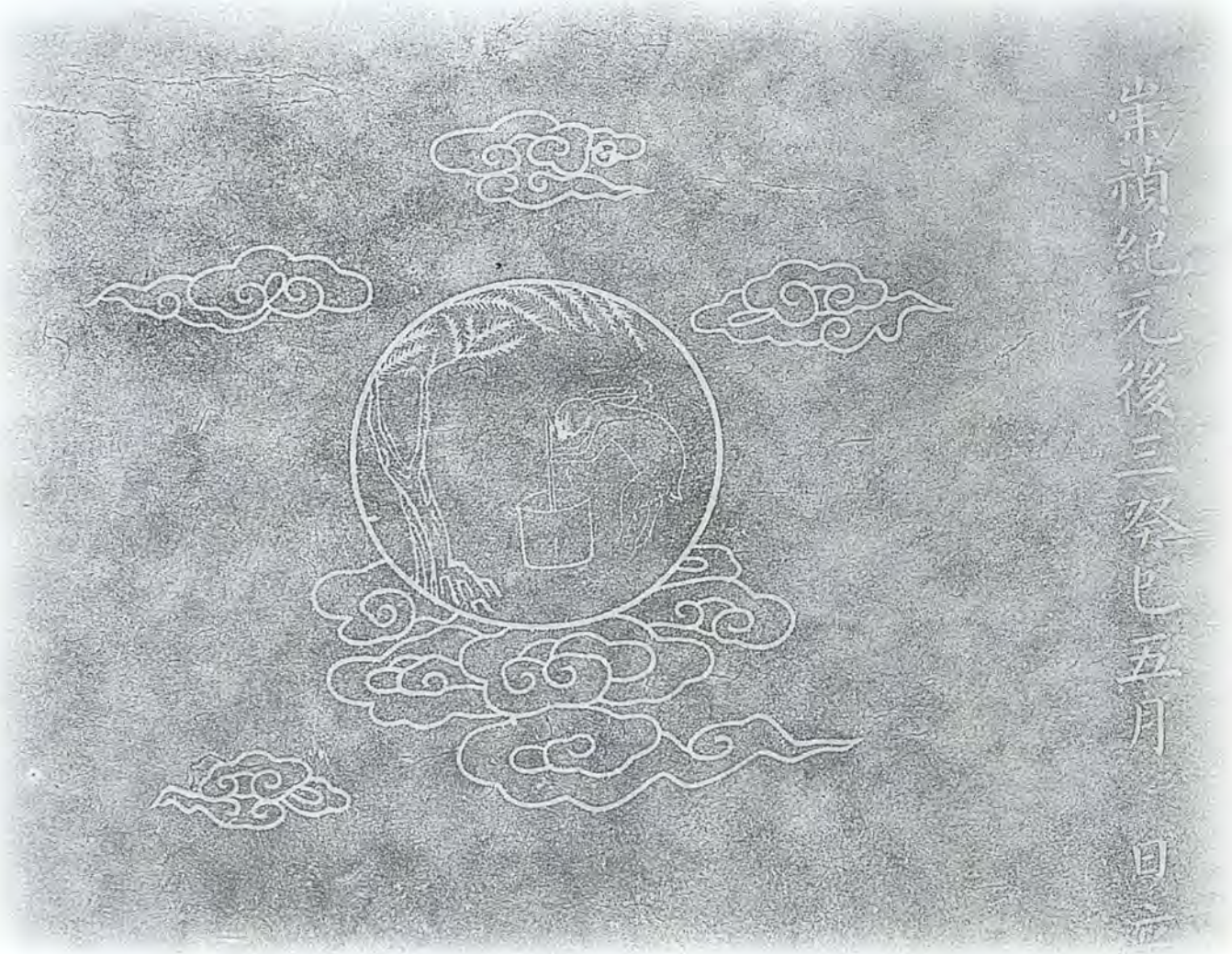


백제 전돌 문양

백제는 삼국의 다른 나라와 달리 벽돌로 무덤까지 만들만큼 와전(瓦甎)이 발달했는데, 6세기 중엽에는 일본에 '와(瓦)' 박사를 보낼 정도로 선진적이었다. 그 예가 규암면 외리에서 출토된 '산경문전'과 무늬 '전돌'이다. 백제 와전은 다른 문물도 그러하듯이 같은 시기의 고구려나 신라보다 훨씬 섬세하면서도 우아하다.

고구려 '막새기와'의 힘이 넘치나, 거칠고 신라의 '막새기와'는 형식적으로 완숙하지 못한 반면 백제의 '막새기와'는 넘칠 듯 하면서도 넘치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풍만한 양감과 형태감을 갖고 있다. 가장 많이 출토되는 연꽃무늬도 꽃잎이 넓고 매우 도톰하여 끝이 살짝 솟아 사실감을 주고 있다. (부여 박물관)

□ □ □ 한지를 피탁물에 붙여서 그 물체에 있는 그림이나 문양·문자들을 실물 그대로 찍어내는 탁본. 천년의 비와 오랜 풍상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마모되고 나면 선과 획의 자연동화, 자연과의 일체된 모습에서 오히려 더 높은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함월 스님 비문 문양

‘함월(涵月)’, 달빛에 잠겼다는 스님의 이름이다. 그 스님 비문 뒤편에 구름사이로 보름달에 토끼와 계수나무가 있다. 도를 깨치던 큰 어른이 아니더라도 이 작은 달의 모습이 우리를 맑고 포근하게 한다.

함월스님은 대둔사의 12대 종사의 한 분으로 어금니가 빠지는 것을 잊고 40년간을 정진하였다고 한다. 회소로 나가거나 돌아올 때 소식을 알리니 이것을 안신(安信)이요, 남들이 춥고 굶주린 것을 보면 자기의 옷과 밥을 주니, 이것은 자비로 대중에게 손수 실천하고 입적했다고 한다.



석존 사리탑의 이수부 문양

신이 만든 꽃 중에 가장 성숙한 꽃이 국화라고 한다. 그 국화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노닐고 있다. 어쩌면 물 속과 지상이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석가 사리탑에 한가롭고 편안하게 그려져 있다. (포항 법관사지)

멀리 동해바다가 보이고, 저 넓은 바다로 가고싶은 물고기는 불법(佛法)의 바다에 가을꽃과 함께 절집 한 곳을 지키며 향기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비문 말미에는 1750년 건륭 15년에 세웠으며, '신유한' 이라는 사람이 글을 지었다는 내용과 함께 병어리 이야기가 전해진다. 우리 구전(口傳) 속에 흔하지 않은 병어리 이야기의 꿈이 서린 이 문양은 국화꽃과 물고기가 어우러져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을 준다.

□ □ □ 포항 법관사지 석존 사리탑을 보면 국화 속에 물고기 한 마리가 노닐고 있다. 멀리 동해바다가 보이고, 저 넓은 바다로 가고싶은 물고기는 불법(佛法)의 바다에 가을꽃과 함께 절집 한 곳을 지키며 향기로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미황사 설봉단 부도 '연꽃' 문양

조선 중·후기에 세워진 부도군에 너무나 조용한 적멸의 기운이 흐른다. 앞에는 연꽃이요, 뒤로 돌아가면 도깨비 형상의 귀면(鬼面)이 그려져 있는 설봉당 부도는 마치 연화(蓮花)의 미소처럼 '내가 죽어서 꽃을 보인 이유를 아는가?' 라는 화두(話頭)를 보여준다. (해남 미황사)

양면성이 있는 세상, 번잡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을 꽃과 귀신으로 미혹하는 이곳에서 연꽃같이 은은한 사람의 애뜻함도 느껴보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의 간절함도 귀신과 함께 풀어보면 어떨까?



왜 그는 그렇게 해야 했는가

도덕정치의 개혁을 주도한 조광조(趙光祖)



강대욱 / 본지편집주간

요즈음 세상이 아무리 디지털시대라 하지만 안방극장의 화두는 단연 TV사극에 모아지고 있음은 무슨 연유인가?

역사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투사하는 스크린이요, 역사적 현실은 그것에 적합한 창조의 소재를 뽑아내는 보물상자와 같다고 역사가들은 갈파했다. TV사극 주인공 그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를 주제로 '여인천하' '명성황후' '태조왕건' '홍국영' 편에 대하처럼 흘러왔던 역사적 사건에 얹히고 설킨 주인공들의 생활계적과 그 이면에 짙게 드리워졌던 인간적 고뇌를 객석평전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암 조광조 선생의 묘역



□ □ □ 언로(言路)가 열리고 막힘은 가장 국가에 관계가 되는 것으로, 언로가 열리면 잘 다스려져 편안하고, 막히면 어지러워져 망합니다. 그러므로 임금(君)은 언로를 넓히는데 힘써, 위로는 공경(公卿), 백집사(百執事)로부터 아래로는 여항(閭巷) 시장(市井)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말하게 할 것입니다.

조 선왕조 창업 이래 유일한 정치세력집단으로서 지위를 누려오던 훈구파(勳舊派)에 대해 견제 내지 압력 기능을 행사함으로써 기존세력으로부터 그 상대성을 인정받기에 이르기까지 사림파(士林派)가 걸은 길은 실로 1세기에 걸친 험난한 길이었다.

그것은 김종직(金宗直)이 1482년(성종13) 중앙정계에 발을 딛고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펼침으로써 1485년(성종16) 이후 그의 문인(門人)을 포함한 사림파(士林派)에서 문과(文科) 급제자와 중앙정계 진출자가 급증한 인과관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 조광조(趙光祖)선생은 기호사림(畿湖士林)의 영수(領袖)로서 중종의 신임을 받아 그가 꿈꾸어 온 포부를 지치주의(至治主義) 왕도정치(王道政治)로 개혁(改革)을 펼친다.

성종(成宗)·연산군(燕山君)때의 사림파(士林派)가 지닌 학문과 현실 대응 인식은 중종 때에 이르러 조광조(趙光祖)선생에게서 묘한 조화를 이루게 되었으니 그것은 학문면에서 실천궁행을 강조하는 '수기'(修己)의 수준을 이미 극복하였고 '치인'(治人)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선생의 현실 대응 자세와 접목되었다는 사실이다.

선생은 성리학(性理學)의 정통(正統)을 이었으면서도 '수기(修己)'에만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치인(治人)'에 활용하려는, 이른바 학문과 정치의 합일을 주장한 것이다. 선생이 주도하여 단행된 개혁의 소산은 바로 지치(至治)지향의 정치적 소인이기도 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왕도정치의 실현으로 개혁을 주도했던 한국도학의 태두(太豆). 선생의 사상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펴본다.

'하늘과 사람은 하나에 근본하여 하늘은 사람에게 그 이치(理)가 아님이 없고, 임금과 백성도 하나에 근본하여 임금은 백성에게 그 도리(道)가 아님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예전의 성인은 천지의 큰(大)과 국민의 많음으로 한몸을 삼고 그 이치를 보아서 그 도리에 대처하였습시다. 도리로서 처한 까닭에 천지의 정을 안고 신명(神明)의 덕(德)에 달하고 도리로서 처한 까닭에 정(精)하고 거친 체(體)에 엉키어 인륜의 절(節)을 영도하였습시다. 이것은 만화(萬化)가 서는 까닭이요 치도(治道)가 이루어지는 까닭입니다.'

이것은 선생이 중종(中宗)에게 올린 알성시책(謁聖試策)중의 일부 내용이다. 입시할 때마다 유교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 왕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치주의를 역설, 중종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는다.



▲조광조 영정

'언로(言路)가 열리고 막힘은 가장 국가에 관계가 되는 것으로, 언로가 열리면 잘 다스려져 편안하고, 막히면 어지러워져 망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언로를 넓히는데 힘써, 위로는 공경(公卿), 백집사(百執事)로부터 아래로는 여항(閭巷) 시장(市井)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다 말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언로가 막힌 것을 보고 중종에게 올린 상소문이다. 정부의 고관은 물론이고 하급관리나 시골 백성에 이르기까지도 언론이 창달되어야 임금이 정사를 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국민본위의 일체감이 정치의 요체임을 역설하는 선생의 진면목이 약여하다.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 윤씨(章敬王后 尹氏)가 승하하여 계비(文定王后)를

말함)책봉문제가 논의될 때 담양부사 박상(潭陽府使 朴祥), 순창군수 김정(淳昌郡守 金淨)등이 앞서 폐위된 신(愼)씨의 복위(伏爲)를 상소하다가 대사간 이행(李荇)의 탄핵을 받고 유배되자 선생은 상소자를 벌함은 바로 언로(言路)를 막는 결과가 되어 국가의 존망에 관계된다고 주장, 오히려 이행(李荇)을 파직케 한다.



▲정암 조광조의 친필

‘학문하는 사람이 먼저 힘써야 할 것으로 의리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사욕(私慾)이 싹트는 것은 모두 이욕(利欲)에서 나오는 것이니 염두(念頭)에서부터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한다. 그런 뒤에야 학문에 편안 할 수 있게 된다.’

선비가 가야할 길을 명쾌하게 제시한 것으로 참찬관(參贊官)으로 있을 때 임금께 올린 글이다. 도학정치(道學政治)의 근본은 학문에 있는 것.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으로 지치(至治)를 지향하던 개혁정치가의 우뚝한 기상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원류(源流)와 교감해 보는 역사의 장(章)이다.

1517년(중종 12) 선생은 향촌사회(鄉村社會)의 상호부조와 풍속교화를 위해 여씨향약(呂氏鄉約)을 8도에 실시케 하였고 이듬해에는 부제학(副提學)으로서 미신타파를 내세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소격서(昭格署)를 폐지하였다. 또 1519년 현량과(賢良科) 실시로 30대의 소장 신진사류(新進士類)가 대거 관계에 진출하자 그들을 요직에 안배하여 본격적인 개혁정치의 구도를 펼친다.

선생은 일찍이 중종에게 올린 글에서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을 하는 것은 그 회포를 펼치어 민생에 도움이 되고자 할 따름입니다.”고 말하여 연산군 이래로 누적된 폐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개혁운동을 전개코자 하였다. 선생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국법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변천하고 민생에 맞지 않으면 개혁할 수 있는 것이며 직책을 맡은 관료와 논의하여 마땅히 고쳐야할 것은 지체없이

결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처음부터 선생은 ‘민사’(民事)와 ‘민공’(民功)을 도모함에 있었던 것.

국왕이나 귀족 또는 양반계층을 위함이 아니라 온 백성, 즉 민중을 근본으로 하였다. 무릇 군신이란 백성을 위하여 제도와 법규가 있게 된다고 갈파, 위민사상(爲民思想)을 근본으로 하여 종래의 타성과 특권의식을 불식하고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려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아서 임금이 한마디를 말하면 8도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다 알수 있다.’

이것은 선생의 국가의식과 민족의 일체감을 강렬하게 표출한 말로 개혁을 통한 새로운 질서의 수립이라는 ‘지치주의 운동’은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을 기도함이 아니라 제도는 물론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민권을 보장해 주며 일체의 불공평과 부조리를 제거함으로써 인도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상적 도의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역사는 창업과 수성·경장을 요구하며 흘러가는 물줄기와 같은 것. 개혁을 명분으로 창업한 왕조도 백년의 세월이 흐르면 이른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훈구세력의 정체와 이것을 개선하려는 신진세력의 갈등으로 소용돌이치는 격랑을 일으키



▲정암의 글이 새겨진 기념비

□ □ □ 새로운 질서의 수립이라는 '지치주의 운동'은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을 기도함이 아니라 제도는 물론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민권을 보장해 주며 일체의 불공평과 부조리를 제거함으로써 인도와 정의가 실현되는 이상적 도의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었다.

게 마련이다. 곧 고여 있는 물은 썩는 법.

개혁을 요구하는 신진사림의 우뚝한 기동으로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에 몸을 던져 누적된 폐습을 지치주의 사상으로 개혁하려 했던 조광조선생.

그러나 개혁을 펼친지 불과 4년, 선생이 대거 기용한 신진사류(사림파)의 급진적인 사회개혁 요구로 인해 본연의 개혁구도를 펼치기도 전에 훈구세력에 의해 한줌의 포말로 사라져 버린 역사의 아픈 상처가 요즈음 TV사극 <여인천하>의 주인공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신도비



'신(臣)의 나이는 서른 여덟입니다. 선비가 이 세상에 나서 믿는 것이란 임금의 마음 하나 뿐입니다. 망령되게도 국가의 병통이 이욕(利慾)의 근원에 있다고 생각한 까닭으로 국맥(國脈)을 무궁토록 새롭게 하려고 하였을 뿐이요 전연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국가의 병폐란 이욕(利慾)에서 근원하는 것이므로 나라의 명맥을 영원토록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개혁정치를 주도했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그토록 신임을 받았던 임금의 사약을 받고 1519년(중종 14) 유배지인 능주(나주)에서 38세의 파란 많은 생을 기묘사화의 에필로그로 마감한다. 선생의 유언에서 백가지 병폐를 척결하는 정치개혁, 언론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역사의 소리를 듣는다.

예나 지금이나 늙은이와 젊은이, 훈구나 신진들의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 이 또한 자연의 섭리이자 역사의 순리이다. 그러한 갈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될 때는 태평성대요 불협화음을 이룰 때는 격동의 시대였음을 말해주는 선생의 개혁논리에서 위대한 선각자의 명멸했던 삶이 오늘을 투사하듯 불꽃처럼 다시 타오른다. 기묘사화(己卯士禍), 그것은 개혁세력인 신진사류가 기득권 층으로부터 당해야 했던 우리 역사의 아픈 개혁의 시련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26년 후에 또다시 권력암투의 광풍으로 수많은 신진사류가 수난을 겪게 된다. 을사사화(乙巳士禍)의 개요를 을사열전으로 일관해 본다.

대윤(大尹)일파 숙청 위해 음모 꾸며

중종이 승하하고 인종(仁宗)이 왕위에 오르니 인종은 장경왕후(章敬王后)윤(尹)씨의 소생이다. 윤임(尹任)은 장경왕후의 오빠로 세력을 떨치게 되었으나 인종은 재위8개월에 승하하고 이모제(異母弟)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소생인 명종(明宗)이 12세의 어린나이가 왕위에 오른다. 모후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게 되므로 문정왕후의 오빠인 윤원로(尹元老), 윤원형(尹元衡)이 득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구에 형제가 권력을 다투다가 윤원로는 유배되어 죽고 윤원형의 독무대가 된다. 윤원형은 윤임을 위시한 대윤(大尹)일파인 유관(柳灌), 유인숙(柳仁淑) 및 그 배후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이들



▲심곡서원



▲심곡서원 고목

과 사감있는 정순봉(鄭順朋), 이기(李芑), 임백령(林百齡), 허자(許磁) 등과 모의하고 그 첩 난정(蘭貞)을 대궐에 보내어 왕과 문정왕후를 선동하기에 이른다. 윤임이 봉성군(鳳城君) 완(沔)을 추대한다고 모함하고 또 인종의 임중에 윤임은 계림군(桂林君) 유를 데려다 왕으로 세우려 했는데 유관·유인숙이 동조했다하여 대역죄로 몰아 처형할 계획이었다.

모든 음모가 착착 진행됨에 따라 윤원형은 대사헌 민제인(閔齊仁)과 대사간 김광준(金光準)을 사주하여 양사(兩司)를 중학(中學·서울에 있는 四學의 하나)에 소집하여 윤임, 유관, 유인숙 등을 대역으로 탄핵하기를 종용하여 갖은 방법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

이때 신진사류인 시간원 정언(鄭彦) 김난상(金鸞祥), 집의 송희규(宋希奎), 장령 정희등(鄭希登), 이언심(李彦沈), 지평 김저(金儲), 민기문(閔起文), 사간 박광우(朴光佑), 헌납 백인걸(白仁傑), 정언 유희춘(柳希春) 등 의기 현양한 신진사류는 함께 항론(抗論)하기를 「주상께서 유충하고 정국이 불안한 틈을 타서 간세(奸細)한 무리가 유언(流言)을 퍼뜨려 대신을 탄핵함이 불가함」을 통박하고 송희규는 뼈를 분쇄하여도 따를수 없다 하였고 유희춘 또한 통절히 논박했으며 김난상, 정희등, 백인걸은 더욱 언성을 높여 꾸짖고 김저는 옷자락을 걷어차며 노기 발발했고 이언심, 민기문은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을 하였다. 윤원형의 심복 민제인이 간곡히 애걸했으나 끝내 동의를 얻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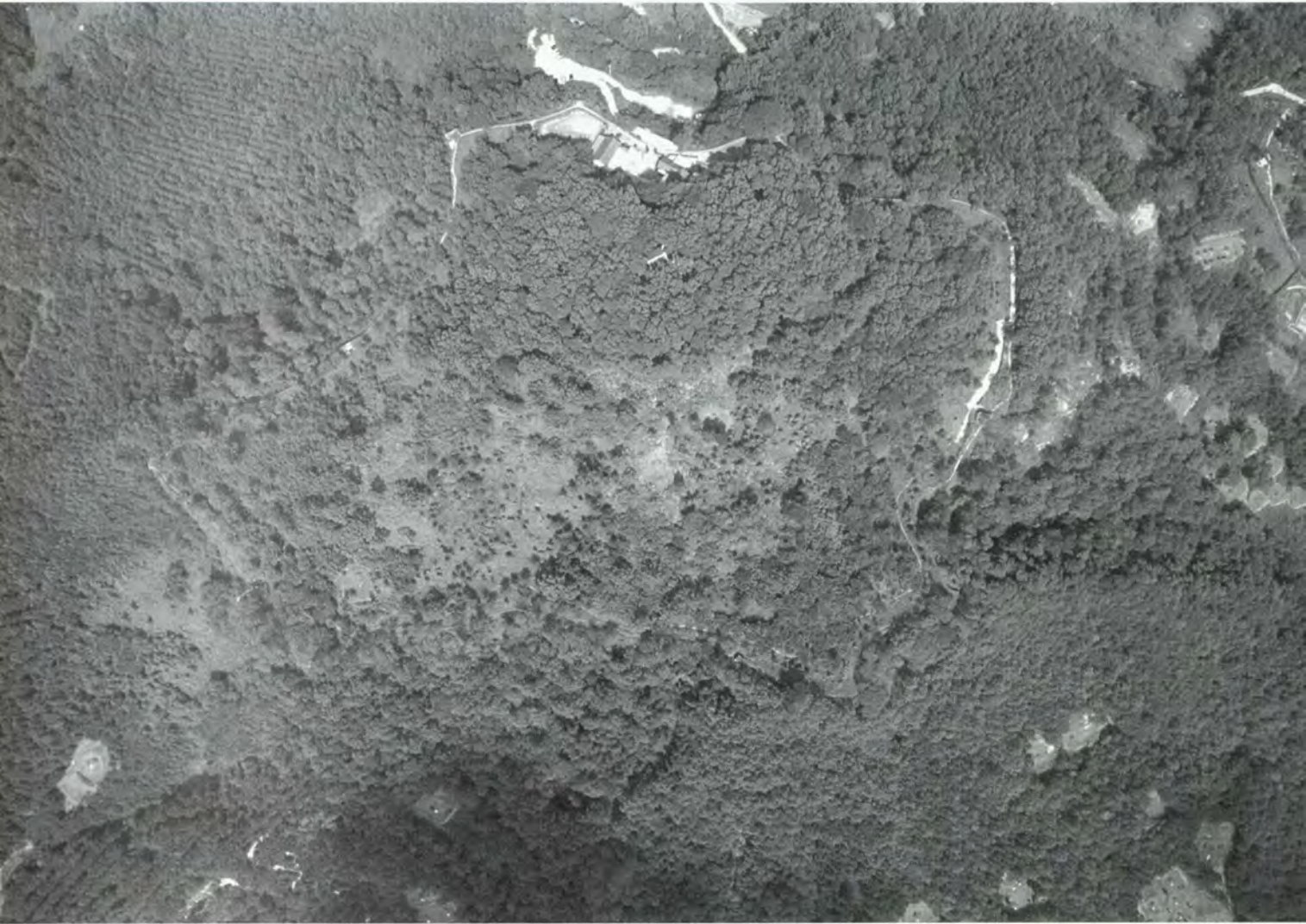
윤원형은 사태가 여의치 않음을 알고 다시 왕과 문정왕후에게 강청하여 충순당(忠順堂)에 어전회의를 소집하여 영의정이 하 중신들이 모인 가운데서 정순봉이 다시 윤임, 유관, 유인숙

의 죄를 주장하여 이들을 멀리 유배시켰다가 사사하기에 이른다. 이때 사류(士類)로서 사형, 유배, 삭탈관직 등 화를 입은 자가 백(百)여인에 달했는데 이것을 당대의 준엄한 사필(史筆)은 을사사화(乙巳士禍)로 기록한 것이다.

후일 영천(榮川)향교 유생 박우상(朴遇商), 이병상(李炳商), 김규영(金奎永)등이 지은 제문은 이렇게 김난상 선생의 행적을 추모하고 있다.

...조정에 나아가서 국사를 처리함에
사리에 맞게 하고 법도를 지켰으니
간원(시간원)에서 강직하고
주연(세자의 글 읽는 곳)에서 진접(왕의 신임을 받아 하문에 응함)했네
소인들과 절교하고
악당들을 탄핵하니
기른 것은 정직이요
만난바는 좁았도다
지난날 중학에서
정위(왕의 위엄)가 진첩(몹시 성을 내는 것)하여
온갖 협박 앞 뒤로 하였으나
동요하지 아니하고 겁내지도 않았도다
아름 분의 어진이가 총렬을 함께 하니
바른 마음 끝은 기질 서로가 합치었네
나의 뼈가 부서진들 그 어찌 꺾여지며 <중략>

무상한 권력, 곡학아세의 실상을 춘추필법은 이처럼 오늘날도 현실을 일깨우고 있다. 보통



▲독산성 항공촬영(흰띠처럼 보이는 부분이 성벽)

독산성과 세마대

화성 축조 이전 수원부의 중심 성 역할

삼국시대 치열한 한강유역 쟁탈전이 벌어졌던 경기도에는 석성으로 쌓여진 산성들이 많다. 평화시절엔 별 소용 없었겠지만, 임진왜란과 같은 급작스런 전쟁에는 주변 백성들의 피난처이며, 항전처이기도 했던 곳들이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산성인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독산성을 소개한다



김아관 / 기문연 연구원

경기도의 여러 산들을 오르다보면 흔히 무너진 돌무더기들을 마주치게 된다. 이 돌무더기들은 때로는 수직으로 높이 쌓여진 성벽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한 무더기로 흩어진 돌더미가 되어 산의 정상부에 혹은 계곡을 따라 마치 한타래 실을 감듯 휘감아 돌아간다. 돌 다루는 솜씨가 여느 민족과 다르고 유난히 섬세한 손끝 솜씨를 가진 우리민족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결정체가 이러한 산성들이라면 너무 과찬일까?

삼국시대 치열한 한강유역 쟁탈전이 벌어졌던 경기도에는 석성으로 쌓여진 산성들이 많다. 평화시절엔 별 소용 없었겠지만, 임진왜란과 같은 급작스런 전쟁에는 주변 백성들의 피난처이며, 항전처이기도 했던 곳들이다. 지금은 문화유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지만...

경기도의 많은 산성들 중 경기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산성을 뽑으라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제부터 소개할 오산시 소재의 사적 제 140호인 독산성이 아닌가 한다.

독산성은 경기도 남부에서 수원 혹은 서울로 향하는 자동차들이 지나는 1번 국도상의 상습정체지역으로 악명 높은 세마대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약 1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이 '세마대'는 독산성의 장대지로 추정되는 세마대에서 유래했는데, 이렇듯 이곳이 유명하게 된 것은 권율장군과의 유명한 일화가 있기 때문이지만 이는 차차 뒤에서 이야기토록 하

겠다. 이 독산성과 세마대는 한때는 수원과 인근지역을 지키는 중요한 국방유적이었으나, 지금은 가족단위로 혹은 연인끼리 오르는 등산로가 잘 정비된 산성으로 탈바꿈 하였다.

주변에 이렇다할 높은 산이 없는 관계로 독산성은 세마대에서 바라보면 멀리 수원, 오산, 화성일대가 한 눈에 들어오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의 북쪽에는 용주사와 구 수원읍성, 현릉원이 자리 잡고 있어 효과 충이 어우러진 관광길이 되기도 하며, 남쪽의 인근에는 한국 전쟁당시의 UN군 참전 초전비가 서 있어 예로부터 이곳이 격전지였음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독산성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백제 온조왕 11년에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이 독산이 지금의 독산성과 일치하는지는 좀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독산'이라는 지명은 이곳 오산의 독산성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어느 곳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독산 - 혹은 獨山 禿城이라고 한 다- 인지는 조금 더 자료가 모아져야 할 것 같다.

현재의 독산성과 일치하는 기록은 조선 선조 임금 이후부터로, 임진왜란 당시는 물론이고 한일합방 이전인 고종임금에 이르기까지 성내의 수축기록, 성내 방어를 위해 머무르는 병사의 수, 비축하고 있는 군량미 등 여러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지리지 등에 언급되고 있어 이곳을 매우 중



▼고성벽 잔존상태



▼성내 우물지 전경





▲성내 건물지에 사용된 건축부재



▲성내 추정 건물지의 일부

요시 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정조 임금은 수원 화성의 신축 이후 그 이전까지는 수원부의 중심적인 산성이었던 독산성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여, 화성의 외곽성으로 삼았으며, 이에 걸맞도록, 성내 건물지의 신축·성벽의 수축과 신축 등을 행하였다. 정조 임금의 다음 대인 순조 임금때에는 산성에 암문 - 성 내·외를 출입할 수 있는 문이나, 성벽에 은밀히 만들어 적들이 모르도록 된 문 - 을 설치하고 성문과 성벽을 보수하였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성내에는 산성을 지키는 병사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내에는 관청 지역과는 별도로 민간인 거주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리 넓지 않은 성내에서 평상시에 왜 민호들의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아마도 독산성이 군사행정의 중심지이며, 임진왜란 당시 성내로 피신했던 민간인들이 그대로 성내에 삶의 터전을 잡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독산성이 우리에게 유난히 친숙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피한방을 흘리지 않고 기지로 왜군을 물리친 권율장군의 승전보로 더 유명한 산성이기 때문이다.



1592년 일본의 풍신수길에 의해 시작된 임진왜란은 초반에는 전쟁 발발 한달 만에 선조임금이 도성인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몽진할 정도로 수세에 몰린 전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라도 해안에서는 이순신 전라좌수사

의 승전보 그리고 전국각지의 의병들, 중국 명나라의 원군 등으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한다.

권율장군의 독산성 승전보는 그러한 와중에 있었던 것으로 당시 전라도 순찰사였던 권율은 한양의 남쪽 관문인 독산성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성내에 식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 왜병이 성을 포위하고 기다리는 전술로 나오자 이를 비웃듯 성내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말을 물로 목욕시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왜병의 전쟁의지를 꺾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말을 씻길 때 사용한 것이 실상은 하얀 쌀이었고, 성내에는 왜병이 짐작했듯 식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어찌 되었든 권율의 기지로 독산성은 무사했으며, 이어 수원과 화성 인근의 전투는 모두 승리로 끝났다

규모는 작지만 활용은 다양했던 독산성

‘대머리 독자에 메 산자 그리고 성성자’ 글자 그대로라면 대머리 산성이다. 아마도 테메식(산정상부에 둥글게 만들어진 산성으로 성내의 면적은 그리 넓지 않지만 외적 방어에는 무척이나 유리하다)으로 조성된 석성(石城) 탓에 붙여진 이름의 산성이라 짐작되는 이곳은 성벽의 길이가 1,095m - 1982년 복원된 성벽의 상단부를 기준한 것이며, 이번에 조사된 복원 성벽 아래 잔존하는 성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400 - 1,500m로 추정된다. - 에 불과하여 산성으로는 중소규모이다. 그러나 성내 곳곳을 활용한 방법은 놀라울 정도여서 성내 여러 곳에는 건물을 축조하였던 평탄대지들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평탄대지는 대부분이 사람의 손에 의해 삭평되었으며, 축대로 보강하고 있는데, 특히 독산성의 중심관청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동문지에서 남문지 사이에는 둥근 호형의 축대들이

□ □ □ 임진왜란 당시 성내에 식수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 왜병이 성을 포위하고 기다리는 전술로 나오자 이를 비웃듯 성내의 가장 높은 곳에서 말을 물로 목욕시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왜병의 전쟁의지를 꺾었다는 일화가 권율 장군의 독산성 승전보다.

잘 남아 있다.

『화성지』에 따르면 성내에는 167. 5칸의 군영에 해당하는 건물이 있었다고 하며, 당시 126戶의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의 건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으며, 세마대 역시 한국동란 이후 복원된 것이다.

무문토기에서 백자편까지 유물 수습

2000년 10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한 첫번째 조사에서는 독산성을 내부분으로 나누어 주로 남문지 부근의 평탄대지들을 조사하였다. 성내는 세마대를 중심으로 하여, 동쪽에는 '보적사'라는 사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동문에서 남문지를 거쳐 서문지까지는 건물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탄대지들이 자리잡고 있는데, 조사기간이 짧아 건물지의 규모·성격 등은 밝히지 못했으나 성내의 평탄대지 거의 대부분에서 건물지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조사지역에 대해 확장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성내 건물과 각종 시설물의 배치를 통해 조선시대 군영의 모습이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지들은

성내에 만들어진 민묘 등에 의해 손상을 입기는 하였지만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러한 기대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에서도 나타나듯 성내의 건물지 중 중심 건물은 '운주당'으로 추정된다. 운주당은 군영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운주'라는 말은 '運籌 輻之中'에서 유래하는데 중 2품이상 무관의 집무실을 뜻한다. 따라서 운주당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면, 나머지 건물지의 위치를 찾는 일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를 통한 또 하나의 성과는 복원된 성벽 아래에서 고성벽(古城壁)을 찾아낸 것이다. 현재 성벽은 복원 높이 1m 내외로 복원전의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여러 궁금증이 많았는데, 복원성벽 아래로 축성방법 등을 알 수 있는 성벽들이 잔존하고 있어 원래의 축성법 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조사된 성벽의 일부에서는 삼국시대 석성에서 보이는 특성이 관찰되기도 하여 독산성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의문점을 던져 주고 있다.

〈표〉 독산성내 건물

건물명	규 모	건 립 시 기	위 치
將臺(洗馬臺)	3칸	1787年 建立	城上
運籌堂	9칸	1787年 建立, 1790年 重修	城內之南
三門	3칸/행랑11칸	1790年 改建	運籌堂之前
鎮南樓	6칸	1753年 重修, 1790年 改建, 1831年 重修	運籌堂之南
衙前廳	9칸		運籌堂之東
將校廳	9칸		衙前廳之西
官廳	4.5칸	1805年 建立	將校廳之西
四倉	대청3칸/창고60칸		官廳之西
五倉			四倉之東
軍器庫	26.5칸	1805年 建立	五倉之西南
火藥庫	2칸		軍器庫東
武庫	3칸	官廳所屬	
西庫		軍器庫所屬	屬軍器庫
東庫		軍器庫所屬	屬軍器庫
保別庫		軍器庫所屬	屬軍器庫
寶積寺	21.5칸	舊 洗馬寺	東門內
계	167.5칸		

성내에서는 청동기 시대 무문토기편에서 조선후기의 백자편까지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소량이지만 백제토기편이 출토된 것인데 이와 관련한 유구는 조사된 것이 없어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독산성의 초축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성내에서 출토된 유물중에는 '義方'이라는 글자를 새긴 원형의 토제품과 청자 잔받침, 각종 토기편 등이 있다. '의방' 토제품은 단오날 뱀 등의 해충을 막기 위해 건물의 기둥에 붙이는 것으로 실물은 드물게 확인되는 것인데, 산에 위치한 군영의 특성상 뱀 등이 자주 나타나자 일종의 부적으로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 기능

경기도의 대표적인 관방유적인 독산성의 첫 번째 예비조사가 끝났을 뿐인 지금, 독산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독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경기 남부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해왔으며, 조선 중기에서 후기까지 여러 차례의 개축해온 기록이 남아 있다. 또한 성내에는 인공적인 축대를 조성하여 공간활용을 극대화한 여러 건물지가 있음이 확인



▲개토제 모습

되었고, 이 건물지들의 배치와 성격을 밝히는 숙제를 남기게 되었다. 두 번째 독산성의 축조방법과 축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잔존성벽이 있음이 조사되었다. 현재의 독산성은 8개의 방형 치와 5개의 성문을 갖추고 있다. 이들 성부속 시설과 성벽을 축조당시 산성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들은 1982년 복원된 것으로 원래의 모습은 알 수가 없었다. 이제古城壁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축조당시의 성벽 축성술과 여러 차례의 개축기록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독산성의 주변에는 고분유적 등이 있을 가능성이 이미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지적된바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오산시에 의해 독산성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이를 위한 5개년 조사계획도 수립되어 있어 많은 의문점들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



▲출토편

청정의 땅

가평가는 길...

김명훈 · 재단전문위원

매양 떠나는 길이지만 그래도 어느 한 곳에서라도 역사나 문화유적지를 둘러다 볼 수 있는 길더듬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그 이정표를 따라 첫 번째 IC에서 빠져 나오면 북한강을 끼고 도는 46번 국도, 경춘가도가 까만띠를 두르고 나타난다.

가평가는 길



서울에서 6번 국도는 길 따라 가는 나그네의 정감에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맛있는 도로도 그러려니와 80년대 이후 넘치는 교통량 때문에 막히지나 않으면 다행인 그저 평범한 국도에 불과하다. 그런 6번 국도를 타야만 가평까지 다다르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 하기가 배낭 하나 달랑 메고 청량리역에서 경춘선을 타면 또 다른 길맛을 느낄 수 있을 터이지만 사글세방에서 나와도 그런저 타는 세상에 시간이 여간 빠듯한 게 아니다.

아무려나 가평을 이제 경기도에 남은 청정지역으로 더욱 애잔한 사연을 지닌 아름다운 고장이다. 말이 경기도지 여느 경기도=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생태를 지닌 땅이다.

6번 국도를 타고 가다가 팔당대교를 지나면 첫 번째 IC에서 '팔당댐' 이정표가 나오고 연달아 '정약용先生 생가' 안내판이 보인다. 기왕 이 길을 따라 오를 셈이면 한번쯤 들여다봐도 좋을 '다산선생기념관'이 오롯이 자리잡고 있어 아이들 교육상으로나 삶에 찌들어 쾅깁대며 살아가는 우리네가 한숨 크게 들릴

수 있는 좋은 역사를 만날 수 있다. 맛있는 국도, 음식점 간판으로 도배를 한 6번 국도보다 훨씬 길이 예쁘다. 양수교 앞 Y자 갈림길에서 청평방향으로 좌회전하면 왼편으로 서울종합촬영소 진입로가 나오는데, 여유가 있으면 이곳도 한번쯤 돌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계속 직진하면 가평군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역시 가평은 대성리·청평을 거쳐가야 가는 맛이 새롭다. 대성리 강변이야 서울의 대학생들이 단골로 찾아드는 신입생 MT 장소로 더 유명하다. 오그라질대로 오그라진 역사(驛舍)하며 강둑을 따라 가느다랗게 이어지는 철길, 해마다 이어지는 한겨울의 '설치미술제'가 이곳 대성리 강변에서 이어진다. 숙박 없는 당일치기로 가평의 속살을 다 들여다보기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우선 가평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고르게 발달해 있어 남쪽 꼬트머리 설악면 '유명산'에서부터 북쪽 꼭대기 북면 '명지산'까지는 자연 그대로의 청정지역이 잘 보존되어 있다. 솔취한 걸음으로는 어렵도 없고 잘 달리는 자가용으로든 한나절이 빠듯하다.

가평군으로 들어서면서 먼저 유명산을 마주보고 달린다. 설



악면 소재를 지나 '가일리' 문화마을에 이르면 또 다른 문화적 감동이 잔잔하게 흐른다. 가일리 문화마을은 산으로 뺨들려 목책을 친 듯 납작하게 엮여 있다. 마을입구 '어비 1교' 옆에 붙어있는 '가일미술관'이 눈길을 끈다. 가평은 산골이라 분교가 많

고, 또한 문을 닫아 건 채 폐교된 그림같이 작은 학교들이 마을마다 하나씩 있다. 그 유명했던 두밀리 분교도 그 중에 하나다.

가일리 문화 마을

오래 전 폐교된 '가일분교'에 색다른 간판이 달려있다. 유명산 컨트리클럽의 음(陰)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과는 또 다른 신심함이다. 깊은 산 속에서 만나는 문화의 색다른 맛은 언제나 잔잔한 감흥에 젖게 한다. 우선 간판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아주 작은 목판에 '가일미술관'이라고 써놓았다. 그 흔한 조명등도 없고 네온사인도 없다. 한 밤중에는 보이지도 않을 작은 간판이지



만 웅골잔 자태가 아주 당당하다. 누구에게 물을 것도 없이 안으로 들어서면 운동장에 세워진 철제조형물들이 손님을 맞는다. 이곳의 주인은 서양화가 서영석씨. 「광장」이라 불리기를 오히려 쑥스러워하는 사람이다. 그저 마을 이름처럼 문화마을다운 마을로 가꾸고 싶은 소박함이 배어있는 천상 예술가이다. 잘 알고 지내는 미술계 선·후배들 추림하듯 보여 전시한 작품이 이젠 꽤 많이 늘었다. 운동장의 철제조형물이 7점이지만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귀뜸이다. 일년 내내 상설전시관으로 미술관의 문은 열려있지만, 그것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건 아닌 듯 싶었다. 방학 때나 휴일에는 가족단위 미술캠프도 열고 밤만 되면 뜻맞는 작가들끼리 모여 술추림이 여반장이지만, 문화마을의 가일미술관은 예술체험장으로는 더 없이 소중한 공간이다.

침침이 둘러싼 유명산에서의 등산도 그러려니와 그 산줄기를 타고 내려온「어비계곡」의 물은 글자 그대로 물고기(魚)가 계곡을 날아다니는(飛) 물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청정의 계곡을 흐르고 있다. 지금도 이 계곡에는 산천어가 살고 있고 메기·송어가 돌 틈마다 흔들리는 지느러미를 자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계곡 속의 물고기는 구경도 못했다. 어쨌거나 가평 8경의 하나인 유명산 어비계곡을 찾는 이들은 깨끗한 물과 힘차게 내뿜는 울창한 나무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시름을 덜게 마련이다. '어비계곡' 마을인 문화마을은 원래 옛 지명이 '대일(大逸)'로 예로부터 은신처로 편히 살기 좋은 곳이라 불려왔다. 실제로 이곳엔 임진왜란 당시 피신처였던 '동남 내곡'이 있고 이곳은 6·25전쟁 때도 전혀 피해가 없었던 천연의 요새지와 같은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어비계곡 입구의 매표소에서 천원짜리 입장권을 사들고 아치형 터널을 지나면서부터 바위에 부딪치며 흐르는 물소리, 짙은 나무그늘에서 내뿜는 서늘한 서기가 마치 심산유곡의 깊은 산사에 들어선 느낌을 준다. 어비계곡은 크거나 웅장하지 않다. 거대한 바위가 불길을 막아서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의 광음도 없다. 고만고만한 납작 바위와 그 돌을 감싸고 흐르는 돌돌거리는 물살의 속삭임들이 여간 정겨운 게 아니다. 계곡에서의 시간도 그렇게 흐르고 선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때쯤 자리 털고 일어나 다음 목적지 '하면(下面)'으로 길을 잡는다.



가평가는 길

검은색의 신비, 가평요

하면은 가평 '운악산'을 떠받치고 있는 전형적인 산골마을이다. 가평 8경중 제 6경으로 이름이 높은 운악산 망경을 만나러 길을 재촉한다. 그곳 '하면 대보리'에는 경기도 가평 특산 도자기로 유명한 고려흑자 가마터가 있다. 가마터 주인 김시영은 아직 젊은 도공. 그가 원했던 검은 그릇「흑자」는 이제 가평의 명물로 통한다. "내가 원하는 건 너무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감 있는 실용적인 그릇입니다" 사실 검은색보다 화려한 색은 없다. 그렇게 품위 있는 검은 그릇「흑자」는 또 원재료인 흙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흙은 가평, 지금의 가마터 뒷산에서 제일 좋은 흙이 나온다. 김시영은 가평에 등지를 틀기까지 하늘이 정해준 일터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검은 색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색을 삼켜버린 그런 검은색이 아닙니다. 검은색을 열어 그 속에 있는 다른 빛깔들도 함께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제 작업의 바탕입니다" 검게 반짝이는 검은 색은 자칫 잘못되면 지나치게 화려한 빛깔이 될 수 있다. 김시영은 오히려 이렇게 반짝이는 색채 속에서 귀족적인 아름다움을 찾으려하는 도공이 되고 싶다.

북면의 청정한 아름다움

가평군 북면 일대는 면 전체가 청정지역이다. '용추계곡'은 가평 제 3경이요, '명지단풍'은 제 4경이다. 그 위에 '화악산' 가는 길에는 제 5경 '적목용소'의 위용이 또 불만하다. 하면으로 내려오면서 운악산·운악망경'이 제 6경, 상면 산장국민관광지를 중심으로 '축령백림'이 그 7경이다. 한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경들은 하나같이 호사스럽지 않고 화려하지 않다. 가평의 색깔이 그대로 묻어나는 지역이다.

가평읍내에서 북으로 길을 잡으면 '화천'으로 이어지는 넓직한 개울, '가평천'이 나온다. 웬만한 강폭처럼 느껴지는 천변길을 따라 오르면 그 끝 오른편으로 햇볕 한 점 들지않는 원시림이 나온다. 대부분 침엽수로 잣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가평 '잣'이야 옛날부터 유명한 이 고장 특산물. 수도 없이 매달린 잣송이는 따는 것이 제일 큰일이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고는 하나, 잣 따는 기계는 아직 발명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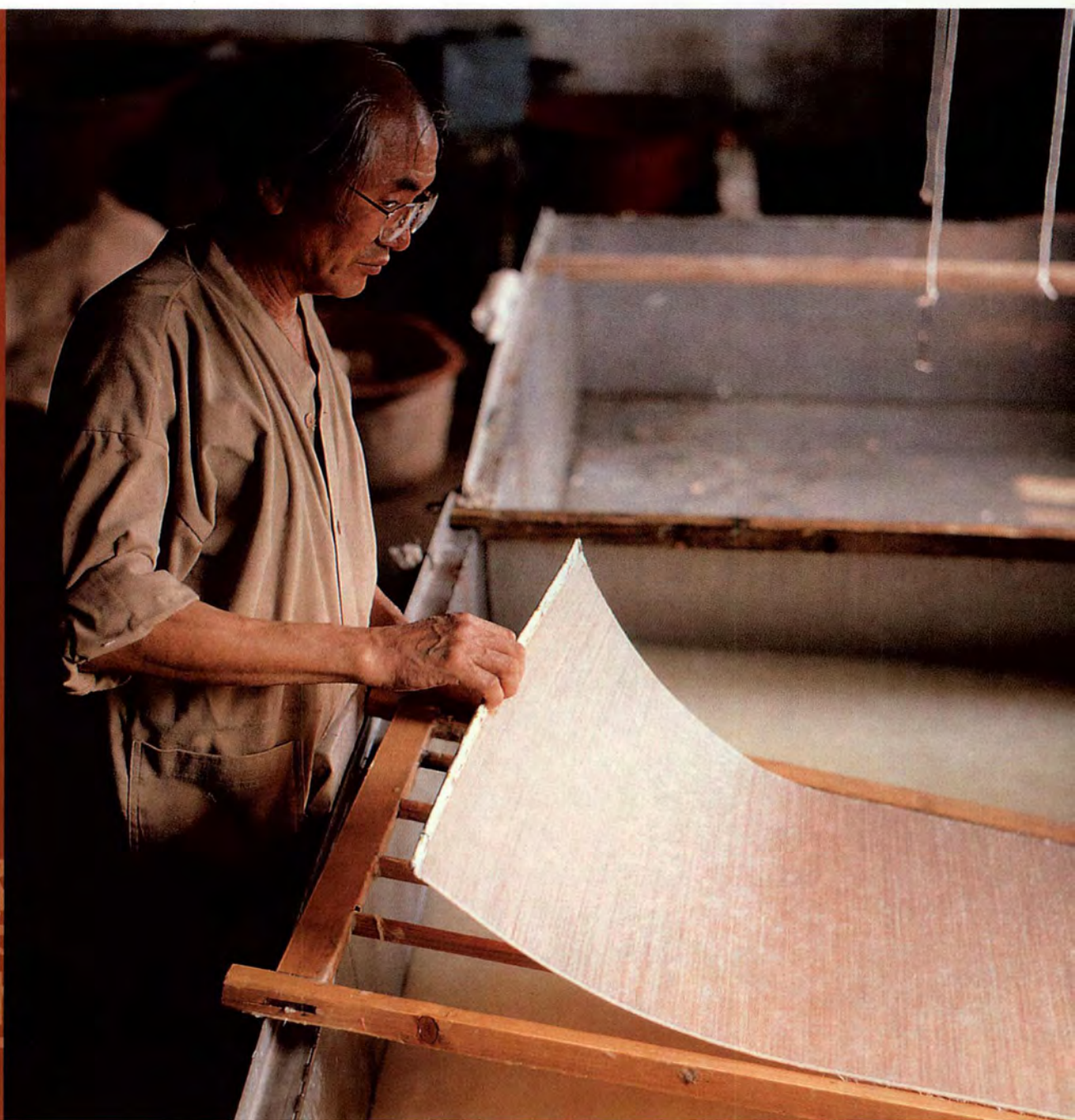


못했나보다. 수년 전 언론보도에서 보았던「잣 따는 원숭이」도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 너무 높은 가지에 매달린 잣송이를 사람이 일일이 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잣 따는 원숭이」였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분명한 사실이 실전에는 도리어 화(禍)가 되어 돌아왔다. 잣을 따라고 올려보낸 원숭이들이 잣은 따지 않고 장난만 친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꽤 많은 원숭이들이 자신의 손발에 묻어나는 송진이 귀찮으니까 아예 나무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해서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하고 철수해 버렸던 것이다. 가평읍 승안리 산림자원관리소에서의 잣 가공작업은 국내 전체 잣 생산량을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양이 많고 질이 또한 우수한 명품으로 꼽힌다. 잣막걸리·잣과자·잣죽 등 잣으로 만든 모든 식품은 가평産을 최고로 친다.

캐나다 전투기념비를 왼편으로 두고 5분쯤 달리면 북면사무소, 여기서 화악리 가는 길과 화천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오는데 명지산은 왼쪽길 화천방향으로 길을 잡는다.

명지계곡 가는 길에 '허수아비마을'도 눈길을 끄는 지역의 명소가 꼽힌다. 미술대학 교수 한 분이 터를 잡고 작업실 겸 쉼터를 마련했다. 지친 다리 쉽도 팔고 향 좋은 커피도 한잔쯤 좋다. 명지계곡은 서울에서 1시간대 거리로 우선 가까워서 좋고 적목용소·도대용소·무주채폭포·명지폭포 등이 연중 마를 날 없는 청정을 자랑한다. 명지산 정상을 남겨둔 채, 작은 호수처럼 소(沼)를 이루고 있는 명지폭포는 명지산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물이 한곳에 모여 신비한 음향을 내며 떨어지는 곳으로 유명하다. 울창한 산림이 사방을 덮어 환상적인 경치를 이루고 맑고 투명한 물이 넓직한 계곡을 따라 유유히 흘러내리며, 아득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곳이다. 계곡마다 음식점을 겸한 민박집에서 토종닭 한 마리 잡아놓고 곁들이는 가평 잣술은 천하일미가 부럽지 않다. 가평 잣막걸리와 도토리묵, 손두부, 산채비빔밥 등은 이 계곡 가는 길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향토음식이다. 아직도 무주채폭포의 전설이 살아있고 모처럼의 흥취에 나물을 안주삼아 술

가평가는 길



韓紙

마시고 춤이나 한바탕 춘다고 해서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다.

명지산·연인산 팻말을 따라 계속 오르면「38교」라는 다리가 나오고 이 다리 오른편으로 시멘트 포장길이 나온다. 버스종점인 이곳에 차를 세우고 계속 걸으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가평의 계곡들이 하늘로 이어져 더 없는 휴식처로 우리를 맞는다.

다시 청평에서 만나는 전통의 맥

청평유원지를 거쳐 현지 삼거리에 이르면 「산골가평」이 아닌 새로운 가평이 나타난다. 「강원도 현리, 가평 현리」해서 군부대 주둔지로 유명한 지역이지만 현리 삼거리 4~5km지점쯤에서부터 시작되는 산골 드라이브 코스는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새로운 가평의 명소다. 이름조차 「환상의 드라이브코스」라 붙여놓고 외지 관광객들을 유혹하는데 일단 들어서고 보면 과연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에 기분이 한껏 고조된다. 수도권 웬만한 드라이브코스처럼 자유로의 행한 느낌이나 속도를 높여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 산속에서 갈리는 양 갈래길이 기가 막히게 예쁘다. 넓지는 않지만 잘 포장된 가르마 같은 길 위로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착 가라앉는 기분이다. 요즘 어디서 이렇게 호젓한 산길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곳곳한 산냄새에 취해 10분쯤 달리다보면 양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청평, 왼쪽은 남이섬으로 가는 길이다. 어느쪽을 택하던 길센따라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작은 카페들이 너무나 정겹다. 큰 길가로 내려서 철길을 건너면 가평명물「털랭이 국수」를 파는 카페가 있는데 주인이 화가라서인지 분위기가 여느 영업집과는 크게 다르다.

처음 청평읍에 들어서면서 자칫하면 지나칠 수 있는 곳이 외서면 청평리에 있는 우리 전통 한지마을이다. 무형문화재 제 16호로 지정돼있는 장용훈씨는 대를 이어 한지만을 만들어 왔다. 전통을 지키는데는 고집불통의 그것이 있어야 한다. 물론 사명감과 말할 것도 없고 자기희생은 더욱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다. 경제적으로 따진다면야 전통한지는 「밥 벌이다 죽 췌어 먹

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래도 이 일을 놓지 않는 것은 그런 고집과 사명감과 일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 한지는 일본에서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의 무역상들이 「생산물 전량을 사가겠다」고 제의해 왔을 때 장씨는 한동



안 혼란스러웠다. 국내 사용량을 제외한 일부만 보내다가 이젠 아예 그것조차 끊어버렸다. 한달내내 작업을 해도 300~400장을 넘지 못하는 한지는 국내 주문량 대기도 빠듯하다. 말하자면 만들기 무섭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는 것인데 그래봤자 먹고사는 것 외에 경제적으로는 별 보탬이 안된다. 그러면서도 전통적 생산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가평가는 길

산속에서 갈리는 양 갈래길이 기가 막히게 예쁘다. 넓지는 않지만 잘 포장된 가르마 같은 길 위로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착 가라앉는 기분이다. 요즘 어디서 이렇게 호젓한 산길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풋풋한 산냄새에 취해 10분쯤 달리다보면 양갈래 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은 청평, 왼쪽은 남이섬으로 가는 길이다.



타나무와 외서면 상천리 계곡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만큼 가평의 물은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다.

앞에서 얘기하다 중단된 현리로 또 올라가 보자. 경춘국도(46번 국도)를



타고 오다가 청평을 지나 청평검문소에서 애뎌 현병들의 충성! 구호가 힘찬 경례를 받고 현리도 좌회전하면 상면초등학교가 나온다. 전형적인 시골학교의 정겨운 모습 맞은 편으로 잘 단장된 수목원이 보인다. 「아침고요수목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에 원예학적 아름다움을 보탠 한국식 정원이다. 초가집과 장독대, 물레방아가 있는 냇가를 중심으로 갖가지 한국의 꽃과 나무가 자랑스럽다. 거의가 야생초야 들꽃들이 소담스럽게 자라고 있는가 하면 분재정원과 아이리스 정원이 따로 마련돼있다. 이곳에는 대한민국 지도 모형이 온갖 꽃으로 기린 전형적인 하경정원이 있어 통일에 대한 열망을 기리는 깊은 뜻이 담긴 정원이다. 침엽수정원, 정원나라, 에덴동산, 매화정원, 단풍정원, 민속정원 등을 꾸며놓은 주인의 심미만이 놀라운 곳이다. 인근마을주민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시골아낙들이 운영하는 농·임산물 판매장도 있다. 또 직접 채취한 갖가지 산나물로 성찬을 꾸미는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대체로 가평을 청평과 설악으로 나누어 설악장, 청평장이 각각 5일장으로 열린다. 5·10장날을 택해 떠나는 10월의 가을 나들이는 또 얼마나 풍요로운가. 

D i g i t a l

디 지 털 시 대 의 문 학



김 현 탁 / 수원문인협회 회장

디지털, 디지털, 온통 디지털 세상이다

어디를 가나 디지털 문화는 현대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피할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흑백 텔레비전 속에 사람들이 숨어 동작을 하고, 작은 라디오 속에서도 사람들이 조잘거리며 말을 한다고 믿어왔던 아날로그 시대의 웃지 못할 믿음이 있었다. 달나라에는 토끼가 살고 계수나무 아래에서 떡방아를 찧고 있다는 낭만과 환상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시대에 당나라의 시인 두보가 달을 쫓아 호수에 뛰어들었다. 그것이 그 시절의 낭만이였다. 하지만 이 낭만과 환상도 날 암스트롱이 달을 정복하면서 여지없이 무너뜨려 졌다.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밥이 저절로 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변함없던 어린 시절의 생각은 세월은 비껴가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모해도 버튼만 누르면 밥이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였다. 나뭇가지를 꺾어 불을 지피든지 장작불을 지펴 밥을 짓던 모습을 보아왔던 우리의 눈에 그 이야기는 하나의 환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했고 어린 시절의 생각들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은행에서는 현금자동인출기가 등장하였고, 현금이나 버스표 대신 교통카드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흠흠 헛기침 소리로 손님이 온 것을 알리던 방문신호는 비디오폰을 통해 방문자를 알아보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부재중에 전화가 걸려와도 더 이상 궁금해 할 필요도 없다. 발신자 번호 표기로 인해 장난 전화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화상전화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 전기밥솥은 전혀 신기한 물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많은 전자기기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생활에 큰 변혁을 준 기기는 뭐니뭐니해도 컴퓨터이다.



컴퓨터가 개발된 지 이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처음에는 그저 은행에서나 업무량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단순 계산용 기기로만 알았다. 그러나 컴퓨터의 사용은 서서히 우리의 생활에 접근해 왔고 이제는 컴퓨터가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특히 많은 양의 글을 써야하는 소설 분야에는 더 필요한 기기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굳이 친필로 글자를 쓰는 것을 고집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며 힐난하였다. 컴퓨터로 글을 쓰면 고치기도 쉽고 지웠던 글을 다시 살릴 수도 있다. 원고지의 분량도 문서정보를 열면 몇 글자에 몇 낱말, 몇 문단이 분류되었는지 알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하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굳이 '작가는 원고지에 글을 써야만 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래서 모 신문에 연재소설을 쓸 때에도 굳이 원고지에 써서 보냈다. 그러나 평소 글씨를 바르게 쓰지 못하는 필자에게 문제가 있었다. 교열부에서 열심히 글을 교열했지만, 휘갈겨 쓴 글씨는 잘 알아보기 못해 오자가 되어 소설의 문맥이나 뜻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해버리게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렇다고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편집자에게 항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은 컴퓨터의 타자기를 사용하지 않은데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컴퓨터의 실용성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문예지나 사보 등에서도 원고지 몇 장의 분량이 아니라 컴퓨터 용지로 환산된 원고의 양을 요구했고, 심지어 출력지도 없이 디스켓만을 첨부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컴퓨터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에 젖어 들었다.

컴퓨터 문화는 초등학생들의 글짓기 지도에서도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었다. 원고지 사용법에 대한 것보다는 A4용지였다 작성하는 기준을 미리 알려 주고 숙제를 낸다는 것이었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의 컴퓨터의 이용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장점도 많았다. 정보를 빨리 취득한다든지 구매하고 싶은 물품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글을 쓰는데 있어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쉽고 편리하다고 해서 모두다 이용해 버린다면 인간이 가진 본래의 감성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엄마가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과 로봇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여준다면 어떻게 다를까. 인간은 배고픔의 해소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로봇이 단순히 밥만 먹여주어 배고픔이 해소됐다고 하여 충족하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인간만이 가진 따뜻한 정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는 따뜻한 인간의 정을 뺏어가 버렸다. 사람의 내음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서점에서도 종이로 된 책이 서서히 사라지고 전자 책이 몰려오고 있다. 또한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주던 시인의 시 낭송 대신 사이버 공간 속에서 울려오는 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녹음된 CD의 음색이 시인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것은 오래된 책에서 나오는 씩씩한 곰팡이 냄새를 잃어버리게 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학도 그렇다. 사이버 문학은 빠른 속도로 우리의 안방을 넘나들고 있다. 컴퓨터 통신망의 비약적 발전에 발맞추어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읽혀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읽혀지는 작품은 가슴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읽혀지기 쉽다. 그러다 보면 거침없이 비평을

흑백 텔레비전 속에 사람들이 숨어 동작을 하고, 작은 라디오 속에서도 사람들이 조잘거리며 말을 한다고 믿어왔던 아날로그 시대의 웃지 못할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했고 어린 시절의 생각들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특히 우리의 생활에 큰 변혁을 준 기기는 뭐니뭐니해도 컴퓨터이다.

하기도 한다. 물론 건실한 비평은 좋다. 하지만 즉흥적, 감정적 언사들이 난무하고 정립된 사고가 없다. 그것은 깊이 사유하는 인간의 공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었다.

문학은 인간의 역사에서 사라질 수 없는 정신적 지배물이다. 문학은 인간의 정신을 함양하고 인간의 기본 질서인 정신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대가 아무리 급격하게 변한다해도 글을 쓰는 문인만은 초고를 쓸 때 적어도 원고지에 직접 써야 한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원고지 칸을 하나 하나 메워나갈 때 정리된 사고와 문학정신이 배어나올 것이다. 물론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른다. '컴퓨터로 쓴 작품은 깊이가 없는 글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물론 그렇지 않다. 가마솥에서 우러나오는 누룽지의 맛과 전기 밥솥에서 우러나오는 누룽지의 맛이 같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향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이처럼 글을 읽는 독자도 문학작품에 있어서 만은 책으로 글을 읽고 가슴으로 음미하여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읽는 글들은 순간 순간 스쳐지나가는 화면 속의 명멸하는 불꽃놀이에서의 찰나적 화려함에 불과하다. 여운이 없다. 손가락에 침을 문혀 잠시 접어두었던 책갈피를 열어보자. 손 따로 눈 따로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학작품을 대하지 말고 읽다가 접어둔 책에 곱게 물든 단풍잎을 넣어보자. 서점을 찾아 제목을 보고 책장을 넘기며 책을 골라보자. 책의 향기를 맡아보며 책을 고르는 습관을 길러보자. 서점에 깔려있는 수많은 작가들의 숨소리를 들어보자. 그러다 보면 작가와 독자들이 책 한 장 한 장 속에서 교감의 숨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는 인간의 머리뿐만 아니라 몸의 흥취도 기계가 지배해 버리고 있다. DDR이란 기계를 만들어 춤을 추는 것조차 흥에 겨워 추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동작에 따라 흥을 일궈내게 했다. 가뜩이나 정적인 것이 부족한 시대에, 기계는 인간의 동작까지 지배하려 든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탈(脫)인간이다. 디지털의 범람은, 정(情)도, 느낌도 없는, 무감각의 인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간의 역사에는 이야기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야기의 역사는 인간사회를 이루는 근간으로 출발하였다. 이 이야기의 역사가 문학의 원류가 되었다. 인간은 말을 하고 산다. 말의 언어가 기록되지 않은 것을 인간은 기록의 문자로 남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온갖 희로애락을 담았고 인간의 길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감동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문학을 불필요한 영역으로 존재처럼 여겼다. 복잡하고 바쁜 일상에 감상적 사고에 젖거나 음미해야 하는 여유를 잃어버리게 하였다. 신문에서 연재소설이 하나 하나 사라졌고 시인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다. 그저 순간적 재미와 오락에 빠지는 일회성 쾌감이 만연되고 있다.

이렇게 첨단으로 치닫는 디지털 시대에 문학은 살아 남아야 한다. 디지털의 홍수 속에서도 한 줄의 글이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근간으로 남아야 한다. 꿈이 있고 낭만이 있는 건 인간의 기본 심성이다. 그 심성을 무너뜨린 디지털 시대에 문학은 살아 남아야 한다. 기계문명의 발달이 극치를 이루면 인간은 과거로의 복귀를 간절히 원한다. 그 복귀의 한견에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학의 힘은 이 거대한 디지털 시대에 초연히 맞서 이야기의 역사를 보존하며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는 인간의 머리뿐만 아니라 몸의 흥취도 기계가 지배해 버리고 있다. DDR이란 기계를 만들어 춤을 추는 것조차 흥에 겨워 추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동작에 따라 흥을 일궈내게 했다. 가뜩이나 정적인 것이 부족한 시대에, 기계는 인간의 동작까지 지배하려 든다.

경기북부 文化를 생각한다



장석원
문인,
동두천시청 총무과장

인간에게 문화가 주는 혜택이 보편적으로 특정계층이나 극히 일부 시민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해온 편협된 생각을 버리게 된 것은 불과 4~5년 전의 일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0년 전 문화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만 해도 문화의 달인 10월은 바쁘고 짜증나는 달이고, 행사시 시민의 참여부족에서 생겨나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시민동원은 골치아픈 업무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문화에 관한 한 문외한이었다.

그러한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것은 민주화·정보화 등 생활문화의 변화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문화욕구의 증대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역문화에 관한 지역주민의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면서 문화적 욕구와 충족의 함수관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나아가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특히 지역문화는 과거처럼 중앙과 지역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상호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생산과 향유도 소수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적 행동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문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문화는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갈등과 충돌이 아닌 이해와 교류를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나타나는 지역문화에 대한 발전·계승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민은 재고되어야 하는 현안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세계이며 활동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지역주민은 삶을 영위하며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심은 지역주민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지금은 70년대에 비해 지역별로 많은 문화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동두천시의 '소요문화제', 의정부시의 '회룡문화제', 고양시의 '행주문화제', 구리시의 '구리문화제', 남양주시의 '다산문화제', 파주시의 '울곡문화제', 포천군의 '반월문화제', 연천군의 '전곡구석기문화축제', 양주군의 '양주문화제'가 있고, 지역문화예술단체로는 시·군별 문화원, 예총,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 등이 있다. 또 동두천의 '쾌락지수 락 페스티벌' '이담풍물보존회', 고양시의 '송포호미절이보존회', 양주군의 '별산대놀이보존회' 등이 있고, 생활문화에서는 양주 '별산대놀이', 의정부 '정주당놀이', 동두천 '행단제', 연천 '수레울 보막이', 구리의 '갈매동 도당굿', 파주시 '금산리 농요'와 '희다지 소리' 등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발전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역문화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하는데, 첫째는 산업화에 이어 국제화·정보화 시대로 변화하는 동안 전통문화들이 봉건적 유산이며 미신이라는 타파의 대상이 되는 등 문화는 다양한 이념공세로 그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념적으로 탈근대화에 대한 논의가 실시되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문화를 다른 목표(정치목표와 동일한)의 달성을 위한 상징적 가치로 추구하거나, 경제논리로 이해한다거나, 문화를 상품화하는 경향이다. 셋째는 낙후된 지역문화를 짧은 시간(지도자의 임기)에 정상의 목표로 끌어올리려는 지도층의 허욕이고 극히 일부 주민의 문화활동이 지역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허구성이며, 넷째는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의 전통문화와 외국문화와의 충돌이다. 미국·러시아·동남아시아 등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로 인한 생활문화측면에서 갈등과 반목이 대립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다.

문화역량 제고 위해선 주민 참여 중요

지역문화란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역사적·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과정이라면, '가장 지역적인 문화가 가장 세계적 문화'라는 말에 걸맞게 지역문화를 끊임없이 재창조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지역문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를 개발·조직하고,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이 선행되어 지역문화예술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주민에 의한 사업, 주민참여가 크게 반영되는 사업에 주안을 두면서 예술중심정책에서 생활문화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행정과 문화시민(단체)의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면서 지역문화운동이 주변지역간 연대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문화지표의 기준설정과 조사결과를 지역문화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의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모르고서는 민족과 세계의 문화와 역사를 논할 수 없다"는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안고서 문화와 관련된 많은 선인의 말씀에 귀기울이면서 경기북부문화가 가야할 과제를 나름대로 정리·제시해본다.

첫째, 지역문화는 지역사회와 결합되어 재구성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와 지역사회의 재결합 문제는 폭넓고도 밀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민주적이고 개인적이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공동체문화를 지역문화의 새로운 이념형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의 외연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논점이 지역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와 공동체문화중심으로 전개됨으로써 문화적 삶 자체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교육문제·환경문제·생태문제·청소년불화 등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을 지역문화의 영역에 포함하여 새로운 틀(패러다임)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적 자산이 새롭게 구성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산은 지역사회통합과 지역발전 등 전인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창조적이며 차별화된 자산관리와 그것을 이용한 문화적 마케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문화와 타문화와의 소통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방으로 진정한 문화체험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것은 전국화·세계화되어 가는 추세에 걸맞는 문화와 문화의 접목은 필연적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문화관련 예산을 5%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지도층의 문화마인드 부족으로 '문화부문' 예산은 매우 인색한 실정인데, 기존의 문화관련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고 있어 새로운 지역문화 발굴·육성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2.5%수준의 문화예산을 5%이상 유지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히 실천에 옮겨질 때 경기북부문화는 한층 새로워지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문화로 태어날 것이다.

끝으로 문화의 혜택이라고는 라디오·신문·흑백TV 정도가 있었던 동두천에서 70년도 초에 12명의 회원으로 청우(靑友: 후에 초운·돌로 개명되었다가 70년대 말 폐간)라는 문예지를 창간하면서 '회원간의 개성적인 취미와 건전한 의의를 길러가는 것은 물론 참된 문학을 연구 발전' 시키겠다고 하면서 활동한 바 있었는데, 지금은 아스라한 추억의 한 조각으로 뇌리를 스쳐 오가는데 지역문화를 다시 논한 심정은 문화의 무한한 변화와 발전에 고무되고 세월의 무상함에 안타깝기만 하다. 

된장을 아십니까? 고 신비의 항암제콩 (2)



임재학 / 만화가

무엇을 넣어도 어울려 영양을 공급해주는 된장이 '암'이나 '당뇨'에도 엄청난 효능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을 거다 아마, 그냥 있으니 끓이고 끓여주니 먹을 줄만 알았지, 그런 기능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이 신데, 현존하는 '일본 암 예방학 연구소'에 「히라야마(平山)」란 일본 박사님이 한 분 계셨다. 애가... 이분께서 무려 26만명이란 인간군상들을 상대로 무슨 실험인가를 한답시고 장장 16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미친 듯 해매더니 벚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 도쿄 한복판에서 지구촌 석·박사들을 한자리 불러 모아놓고 학술발표를 하셨는데, 제목이 좀 식사스러우면서도 께름칙했다.

〈된장이 암에 미치는 영향...〉, 뭐라고 떠드는지 엿들어 봤는데,

“된장과 함께 넣고 끓여지는 여러 가지 식품들의 유효성분이 서로 상승효과를 내면서... 특히 '콩 단백질'에 함유된 '트립신 인 히비터'에서 항암 성분이 크게 작용, 암 예방에 결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면서...”

문제의 '트립신 인 히비터'에 항암 성분이 있었다는 건 일찍이 미국에서도 인정한 바 있어 굳이 새삼스러운 발견이라 할 것까진 없다 치고, 이번 '히라야마' 박사의 도쿄 연구발표회에서 항암성분과 함께 새롭게 발견된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뭐고 하니 당뇨병자들을 귀담아 들어 두자! 그 '트립신 인 리비터'인가 뭔가 하는 게 항암효과만 가진 게 아니라 이게 또 '당뇨'에도 그만이란단다. 콩 단백질에 함유되어 있는 '트립신

인 히비터'가 체내에 들어가 '인슐린', 즉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분비작용을 활발하게 도와주면서 51개의 '아미노산' 군을 배출시켜 혈당을 저하시켜 준다는 얘기다. 콩 단백질은 이처럼 항암·당뇨효과는 물론 혈관도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콩 단백질엔 '레시틴'이란 또 다른 함유성분이 들어있다. 이게 몸 속에 들어가면 고혈압의 원흉인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단다 글썄, 거짓말 같아? 이미 의학계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아 그 '레시틴'을 이용한 성인병 방지 약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왜 거짓말이야?

결국 된장을 꾸준히 먹어주면 체내의 콜레스테롤까지 빼준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 한가지 물어볼 게 있나? 영양소도 섭취하면서 암이나 당뇨같은 성인병도 다스릴 수 있는 일석이조...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뭐 그런 톱 튀는 소리 방법이 없느냐구?

언젠가 왜, 구 소련... 지금의 러시아 무지몽매한 로스케들이 터뜨렸던 '체르노빌' 방사능 누출 원전사고 기억하지? 그 때 체르노빌 인근주민들이 유출된 원자력 방사능으로 폐죽음 당하고 지구촌이 왈각 뒤집혔을 때 애긴데 모스크바의 '크레믈린스키'들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 이거 기왕 죽은 인생들이야 어차피 어쩔 수 없다 치고 그 와중에도 살아남아 골골대는 명줄 짚긴 생존자들이 문제라... 이마를 맞대고 이를 밤사흘 낫, 2박3일을 꼬박 고심하고 난 오후 6시쯤 찾아낸 아이템이 대체 뭐고 하니 놀라지 마라, '된장 요법'이었다.



그렇게 2박 3일의 고심 끝에 된장으로 결론을 지은 며칠 후, 일본 시모노세키를 출발한 수십 척의 된장 컨테이너가 체르노빌로 수송되고 그 된장이 인근주민들에게 골고루 배급되어 필수 식품으로 먹여지고 있었는데, 이 무식해터진 크레믈린들이 어떤 연유로 된장을 연구 개발했는고 하니 일찍이 1945년 8월 9일,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떨어진 양키들의 무차별 원자폭탄 투하로 수십만 명의 이재민과 부상자들 신음소리가 패허가 된 일본열도를 뒤덮고 있을 때, 일본의 '도쿄다찌' 들개선 앞길이 캄캄하고 현실이 막막했다. 왜냐? 이거 언제 원폭을 두들겨 맞아 봤어야 방사능에 누출된 생존자들의 치료방법을 찾겠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설사 그 치료약을 찾았다손 갯터미가 된 패전국 섬나라에 무슨 의약품이 흘러넘쳐 저 많은 환자들을 다 치료할 건가 그래... 그런데 있잖니? 그 불덩이 원자폭탄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도 용케 살아 끄떡없이 생활에 임하는 애들이 있더라 글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거 아닌가?

즉각 그 끈질긴 생명력의 주인공들을 상대로 성분조사부터 해봤더니 이게 주로 조선 애들인 거 있지? 그리고 조선 애들하고 형님 동생하며 가까이 지내던 일부 일본 애들 짝꿍하고..., 그래서 심층분석을 실시해 봤는데 이게 웃기는 게 그 끈질긴 생명력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조센징들이 즐겨 먹는 된장찌개와 된장국에 있더라.

무좀 뱀새난다며 끼니때마다 일본애들이 팔시하고 쥐어박았던 그 놈의 뱀새나는 된장이 원폭으로부터 저항력을 키워준 건데, 조선 애들과 가깝게 지내며 식사까지 죽이 맞아 된장국에 맛을 들인 일본 애들도 덕분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 바로 그걸 이 모스크바 친구들이 용케 찾아내어 그 전례에 따라 일본에서 된장을 수송해서 체르노빌 인근 생존자들에게 무차별 공급을 감행했었다는 얘기가.



겨울철에 감기가 극성을 부릴라치면 주저말고 '파 된장국'을 끓여 먹자! 어떻게 끓이느냐? 된장 풀어 국을 끓이는데 국이 끓기 직전 파 대가리 흰 부분을 가늘고 비스듬하게 썰어 넣고 한소끔 더 끓인 다음 그대로 후루룩 마셔주면 된다. 그전에 미리 생강을 갈아 된장에 섞어 놓았다가 끓이면 더욱 효과를 얻는다. 만드는 방법이나 먹는 방법도 간단하지?

앞서 된장이 몸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끓이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 그럼 어떻게 끓여야 좋으냐? 된장국에 두부를 듬성듬성 썰어 넣고 푸욱 끓여 밥상에 올리면 되는데, 두부의 콩 단백질과 된장의 '콩 지방'이 한데 어우러져 환상의 조화를 이루면서 몸 속의 콜레스테롤을 꾸욱 눌러 억제시켜 버린다. 또 간장이 안 좋은 사람은 된장국에 바지락조개 있지? 그걸 넣고 끓이자!

된장국에 시금치 넣고 끓여 장기간 먹어주면 '대장암'도 예방해 준다는 거 역시 명심하는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예방되고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안대고 코 풀려는 사람임도 명심하자.

"아, 나는 간이 나쁘다" 하는 사람, 평소 꾸준히 바지락조개 된장국을 먹고 "음, 우리 서방은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생각되면 끼니마다 두부 된장국을 퍼 먹이고... 그렇게 꾸준히 먹다보면 상태가 호전되고 영양소도 균형을 잡아 이 어려운 시기에 병원신세 안 지고, 하다 못해 막벌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이다. 

내 마음의 총독부는 살아있다(?)

반일(反日)도 좋고 배일(排日)도 좋지만,
우선 내 마음의 총독부를 없애는 일이 급선무이다.



김 홍 남 / 재단전문위원

몇 개월 전 한 지방대학에서 철학과 폐지를 발표하면서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다. 철학과 지망생이 해마다 줄어들자 200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한 것이다. 철학과 폐지는 한 대학의 과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철학을 비롯한 심리, 수학 등 기초학문에 닥치고 있는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는 소위 '인문학의 위기'로 불리는 기초학문에 대한 무관심과 퇴보를 현실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당시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가 가져오게 될 한국의 불안한 미래, 그리고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매스컴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왔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은 갑작스러운 일처럼 호들갑을 떠는 매스컴을 보면서 현재와 같은 인문학의 위기가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됐다는 색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가 그 한몫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내용인 즉,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면서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청년을 교육시키는 분야를 주로 실무적인 곳에 한정시켰다는 것이었다. 물리나 수학과 같은 기초학문 보다는 법학이

나 의학처럼 가르치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분야에만 식민지의 교육을 허용하였던 것이다. 식민지의 백성인 주제에 학문의 깊은 원리나 근저까지 파고 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대신 본토의 일본인들은 가장 심오하고 기초적인 분야를 토론하고 연구하도록 권장되었다. 식민지의 백성은 바로 수족처럼 움직일 수 있는 분야, 그리고 본토의 일본인들은 수족을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분야로 역할 분담이 정해졌고 조선 총독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 총독부의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사고 방식으로 굳어져 해방이 된 후에도 지속되었고 그것은 현재의 인문학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인문학 위기의 저변에는 조선 총독부가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 제56돌 8·15 광복절이 있었다. 8·15 해방과 함께 우리 민족은 일제의 압제에서 풀려났고 조선 총독부는 사라졌다. 또한 문민정부 시대에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광화문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던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도 하였다.



철학과 폐지는 한 대학의 과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문학의 위기'로 불린다.

그러나 인문학의 위기에서 보듯 조선 총독부의 명령은 아직도 우리를 떠돌고 있는지 모른다. 조선 총독부를 통해 구체화된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하고 곳곳에서 생명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 총독부식 사고방식은 부지불식간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조선 총독부식 사고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것이나 근본적인 것에는 접근을 못하게 하면서 부분적으로 역할을 한정시키는 것, 또 너희들의 주제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못박고 결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옥죄는 것이다. 문제 제기나 반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돌출행동일 뿐이다. 따라서 고민이나 이의제기 없이 위의 지시에 잘 따라주는 사람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즉 철저한 복종과 추종만이 기특한 신민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조선 총독부식 사고방식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이 단기간에는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해진다는데 있다. 사람들의 자율

성과 창의성이 가로막히면서 문제나 위기에 처했을 때 전혀 대처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계적인 인간이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것이다. 요즘같이 변화무쌍한 혁신의 시대에 오히려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인간만이 남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간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떨어버리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써왔다. 일본식 말을 고치고, 일본 제품을 배격하거나, 캠페인에 심지어는 규탄대회도 열어봤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일제의 잔재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던 셈이다. 조선 총독부식 사고방식이 우리들 마음속 깊이 파리를 틀고 앉아 여전히 행동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의 총독부를 없애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일(反日)도 좋고 배일(排日)도 좋지만, 우선 내 마음의 총독부를 없애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봐야 할 것이다. 과연 내 마음에 조선 총독부는 없는지... 

경기 Art Calenda

9·10월 행사일정표

수원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주최)	문의전화
전국할쏘기대회	9.1~9.3	연무대	수원시공도협회	255-8910
화성백중제	9.1~9.2	장안공원	수원시	228-2064
수원국제음악제	9.11~9.14	수원야외음악당	예총수원지부	257-2966
정조대왕능행차연시	10.7	지지대고개-수원고-용릉	수원시문화원	244-2161
정조시대과거재연행사	10.8	화성행궁	수원시문화원	244-2161
시민의날 경축행사	10.10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시	228-2064
불꽃축제	10.6	팔달산 정상	수원시	228-2064
갈바축제	10.6~10.10	만석공원	수원시	228-2064
문화예술축전	10.6~10.10	장안공원	수원시	228-2064
화성갯발전	10.6~10.10	화홍문~화서문	수원시	228-2064
華城을 花城으로	10.6~10.10	화홍문~화서문	수원시	228-2064
전국사진촬영대회	10.6~10.10	화성 일원	수원시	228-2064
화성문화제	10.6~10.10	화성 일원	화성문화제집행위원회	228-2471

부천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주최)	문의전화
빛을 찾아서	9.1~6	시청아트센터	YMCA한빛사진동우회	016-707-6162
국전사진전	9.7~12	시청아트	부천사진협회	016-257-6199
신흥동 동민축제(예정)	9.10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	680-2607
엄태림 수채화 개인전	9.14~20	부천역 문예전시관	엄태림	017-353-1568
뮤지컬 '오즈의마법사'	9.15~16	부천시민회관	경인방송	080)721-0202
제1회 삶의 소리전	9.15~20	시청아트센터	장애인평물렛나누어주기운동본부	326-1915
생활과 미술전(6)	9.21~27	부천역문예전시관	김경업	679-2900
토우회전(수채화)	9.22~29	시청아트센터	토우회	323-7461
시민의날 경축음악회	9.27	부천시민회관 대강당	부천필, 합창단	655-0012
기획연주회	9.6 19:30	부천시민회관 대강당	부천필	655-0012
시민의날 경축음악회 "베르디갈라"	9.27 19:30	부천시민회관 대강당	부천필/합창단	655-0012
백일장 사생대회	10월초	부천중앙공원	부천문화원	032)651-3739
복사골아가씨 선발대회	10월초	부천시민회관	부천문화원	032)656-4306
문화의달 기념행사	10.1~31	시민회관외 5개소	한국예총부천지부	325-1566
2001 부천문화축제(예정)	10.3~8	복사골문화센터	부천문화정보센터	320-3745
박진표 개인전	10.6~11	부천역 문예전시관	박진표	017-358-4558
느티나무축제(예정)	10.10	소사본2동	주민자치위원회	340-6604
고안리 한마음축제(예정)	10.10	고안동	주민자치위원회	340-6607
고리울축제(예정)	10.10	수주초등학교	추진위원회	680-2605
한마음축제(예정)	10.10	덕산초등학교	오정동주민자치위원회	680-2606
실내악 연주회	10.11	부천시민회관 소강당	부천시립청소년관현악단	655-0012
제4회 석화협회 전시회	10.12~18	부천역 문예전시관	석화협회 부천지부	663-5773
부천미술 올해의작가전	10.13~19	시청아트센터	미술협회 부천지부	611-5980
복사골아가씨 선발대회(예정)	10.15~17	시민회관	부천문화원	651-3739
특별기획 뮤지컬 공연	10.18~19	부천시민회관 대강당	부천시립합창단	655-0012
사진 5구역전시회	10.19~24	부천역 문예전시관	박혜연	011-703-5599
부천시립화원전	10.20~26	시청아트센터	사진협회 부천지부	016-257-6199
기획연주회	10.23	시민회관 대강당	부천시립교향악단	655-0012
단원기획 "4인 음악회"	10.25	복사골문화센터	부천시립합창단	655-0012
서예가협회전	10.26~31	부천역 문예전시관	서예가협회	651-1862
실내악연주회	10.13	부천시민회관 소강당	청·관현악단	655-0012
특별기획 뮤지컬공연	10.18~19	부천시민회관 대강당	합창단	655-0012
기획연주회(러시아)	10.23 19:30	부천시민회관 대강당	부천필	655-0012
단원기획 "4인음악회"	10.25	복사골 문화센터	합창단	320-3745

성남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성남문화예술발전	9.1~9.6	성남문화의집	선우회	747-0077
제3회 해운연목회	9.7~9.14	성남문화의집	해운연목회	781-1020
백종맞이문화 예술축제	9월중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열린마당도움소	732-8316
성남시민을위한우리춤공연	9월중	중앙공원, 야외무대	이경화무용단	710-8663
분당 제2회 황세물축제	9.22 19:00	중앙아외공연장	황세물축제추진위원회	718-7525
2001방자전	9.23 20:00	율동공원	극단해뜨는언덕	749-8768
청소년문화축제	9.8~9.9	중앙공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여울청소년마을	753-1613
제16회 성남문화예술제	9월말	시내일원	성남예총	729-4232
내고장 바로알기 현장학습	8~11월	성남시관내문화유적지	성남문화원	781-1020
송산어린이 백일장	9.19	송산도막	성남문화원	781-1020
유적지 순례	9월중	타지역(장소미정)	성남문화원	781-1020
성남시민문화축제	10월초	시내일원	성남시민문화축제조직위	729-4232
세계산업디자인총회 경축'문화예술축제'	10월초	시내일원	성남예총	729-4232
민속연날리기대회(미정)	10월중	탄천공원	성남문화원	781-1020
성남사랑 글짓기대회	10월중	미정	성남문화원	781-1020
팔도민속한마당축제	10.9~11	종합운동장	성남시	729-3133
분당주민을 위한 가을음악회	10월중	한국토지공사대강당	아주소년소녀합창단	717-9154
2001성남에서 살아가기	10월중	삼성플라자 갤러리	한외골미술인회	019-214-5097
무용과미술의어울림전	10.19~10.25	삼성플라자 갤러리	분당구상상작가회	717-3743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제2회 정기연주회	10.26 19:00	한국지역난방공사	경기교사리코더합주단	333-8520
분당주민을 위한 만물린축제	10.27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만물린클럽	713-7729
사건과 어울린 우리 소리와 춤	10.6~10.7	성남문화의집전시실	조덕원	743-2690
판소리와 재즈와의 만남	10월중	시민회관대강당	판소리보존회	757-7771
성남시풍물, 풍경, 역사기행열린전	10.10~14	중앙공원, 성남문화의집	성남시산성작가회	757-1050
못 한번 잡아보거나	10.6~7	중앙공원, 중앙광장	성남시예청년작가회	717-0113

의정부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시민을위한음악회	9.22	예술의전당	음협의정부지부	828-1403
유지컬 '오즈의마법사'	9.22~23	예술의전당	경인방송	080)721-0202
얼씨구우리가락한마당'국악공연	9.28	예술의전당	국악협회의정부지부	856-7773
제3회 의정부시발현상사진공모전	10.10~15	의정부시청	사협의정부지부	871-4747
제3회 화통한국무용제전국대회	10월초	예술의전당	무용협회의정부지부	842-6813
제16회 화통문화제	10.10~10.14	시청앞 광장	의정부문화원	872-5679
의정부시여성합창단정기공연	10월중	예술의전당	의정부시여성합창단	828-2482

고양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제1회 고양미협전	9월중	한국통신 전시실	고양예총	903-0027
제3회 열린음악회	10월중	호수공원리관광장	고양예총	903-0027
제1회 행주문화제	10월중	고양시 관내일원	고양문화원	963-0600
제3회 전국시조경향대회	10월중	한국통신 대강당	고양문화원	963-0600
2001고양행주한내미술제	10월중	호수공원 세계관	고양예총	903-0027

남양주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제2회 구남전	9.14~20	남양주아트센터	구남회	591-4519
풍양사진전	9.21~27	남양주아트센터	풍양사진동우회	591-4519
제3회강변노을축제	10.6~10.7(예정)	양정동 한강둔치	예총남양주지부	592-1811
제15회다산문화제	10.8~10.9(예정)	다산도막	남양주시문화원	592-0667

평택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초청공연	9.15 19:30	서부문예회관	평택시음악협회	651-3134
소사벌풍물겨루기대회	9.29 10:00	남부문예회관	평택시국악협회	654-4704
제5회평택가요제	10.10 19:30	북부문예회관	평택시연예협회	664-2060
농업축제	10.26~10.28	남부문예회관	평택시농업경영자회	659-4811

안산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주최	문의전화
제15회 별망성예술제	10.6~10.13	안산시성포예광장	한국예술인총연합회	481-2476
단원미술제2001안산	10.6~10.15	안산시단원전시관	단원미술제운영위원회	481-2473
대부포도축제	9월중순	안산시대부북동방아머리	대부포도축제추진위원회	481-2315

광명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주최	문의전화
제13회경기도민속예술축제	9.22~23	광명시종합운동장	문화원도지회	239-1020
제11회 구름산예술제	10.5~10.20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한국예총광명지부	681-0912
제11회 구름산국악제	10월	시민회관	국악협회광명지부	681-0912
광명시 미술대회	10월	실내체육관	미술협회광명지부	681-0912
제3회 청소년국악경연대회	10월	시민회관 대공연장	국악협회광명지부	681-0912
학생음악경연대회	10월	시민회관	음악협회광명지부	681-0912
광명농악발표회	10월	문화의 거리	광명농악보존회	680-6340
어린이 문화장터	10.13	광명시민회관	광명시문화원	02)2618-5800

파주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주최	문의전화
율곡문화제	10월초	파주시 일원	파주시문화원	941-2425

화성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주최	문의전화
농악경연대회	9.23	수원대학교운동장	화성시, 화성문화원	369-2063

이천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주최	문의전화
제4회 국제조각 심포지움	9.1~18	도자기엑스포행사장영	이천시문화원	635-2316
제5회 장호원목숨아축제	9.21~9.23	장호원레조초공원	장호원농협,이천예총	634-7300
귀향(도공의 자식)	9.12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주미화무용단	019-313-3750
퓨전콘서트	9.30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국악협회	011-350-3353
대북과모듬북	9.29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국악협회	011-350-3353
국악한마당	9.1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국악협회	011-350-3353
가마골 사람들	9.9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연희극단	018-221-1924
퓨전퍼포먼스 "난향"	9.8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연희극단	018-221-1924
윈드오케스트라연주회	9.4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윈드오케스트라	011-326-3407
윈드오케스트라연주회	9.18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윈드오케스트라	011-326-3407
이천창작댄스경연대회	9.1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경기도청소년마을	216-1388
뽕파전	9.15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성발전연합회	018-306-0885
춘향전	9.16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성발전연합회	018-306-0885
이천콘서트라이아연주회	9.29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음악협회	017-316-5234
퓨전콘서트	9.22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소리사위민속악회	017-360-7379
이천민속가북놀이	9.23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울면중고등학교	011-286-6430
이천민속가북놀이	9.22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대월초등학교	018-324-3307
강남교향악단초청공연	9.19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강남교향악단	019-244-5263
풍물단 길놀이	9.2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문화원관내풍물팀	011-286-6430
웃다리 풍물선반	9.23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양정소리마당	633-7803
헤어디자인2001비전	9.23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이천마용협회	011-441-6392
전국씨름선수권대회	9.10~9.16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이천시체육회	
김빠국공연	9.14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연예협회	018-302-3085
찾아가는 국악대공연	9.3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방영기 경기민요단	011-325-3599
흥과불이정신전 전시	9.5~10.7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미술협회	634-7300
이천도자문예백일장	9.29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문인협회	636-0058
청소년어울마당	10.14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YMCA	635-0887
관악행진	10.8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장호공고	018-424-0929
가을을 느끼며...	10.11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성합창단	011-355-3057
열린음악회	10.20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음악협회	017-316-5234
뽕파전	10.7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성발전연합회	018-306-0885
무용페스티벌	10.6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	무용협회	011-232-8722
이천시지 출판기념회	10월말	미정	이천시문화원	635-2316
제15회 설봉문화제	10.1~15	이천시 일원	이천시문화원	635-2316

용인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빛의보석, 유럽유리500년전	8.18~10.28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288-5300
용인시의 날	9.20 14:00	광주곤지암행사장	용인시	329-2085
국제자동차경주대회	9.21~9.23	에버랜드스피드웨이	(주)코리아모터스	329-2807
제16회용구문화예술제	10.8~10.13	용인공설운동장	용인시문화원	335-2033

시흥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시흥어머니합창단정기공연	9.21	광주행사장	시흥시	310-2068
제13회 연성문화제	10월초(예정)	시흥시포동운동장	시흥문화원	310-2706

군포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군포 금석문학본전	9.17~20	군포시민회관	군포시문화원	397-0195
독립국악단순회공연	9.1	시민회관대공연장	군포시민회관	390-3511
장애인 가요제	9.14	시민회관대공연장	신체장애인협회	390-3511
들꽃의 노래	9.23~25	시민회관대공연장	현대극장	390-3511
군포시민의날 전야제	10.6	시청내 야외공연장	군포시	390-0064
미술협회 거리미술제	10.13~17	산본동중심상업지구내	미술협회	392-4511
음악협회 제6회정기연주회	10.19	시민회관 대공연장	음악협회	390-3511
문화의날기념"명사초청음악회"	10.20	시민회관대공연장	예총, 시민회관	390-3511
문화원 문예단체 전시회	10.9~17	군포시민회관	군포시문화원	397-0195
"심청" 시민회관특별기획공연	10.27~28 19:00	군포시민회관	군포시	397-0195

구리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구리시여성합창단정기연주회	9.28 19:00	시청 대강당	구리시여성합창단	550-2064
제3회동구청소년음악콩쿠르	9.15 10:00	시청 대강당	한국예총구리지부	550-2064
한가위대축제	9.22 15:00	시청 대강당	한국예총구리지부	550-2064
구리 고구려문화예술제	10.6~10.31	시청 대강당	한국예총구리지부	550-2064
시민의날 기념식	10.10 10:00	LG잔디구장	구리시	550-2118
온달장군제	10월중	아차산 우미네	구리시문화원	557-6384
유물유적사진전	10월중	구리시청 로비	구리시문화원	557-6384
전통복제작전시회	10월초	구리시청 로비	구리시문화원	557-6384

김포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시립예술단 공연	9월중	여성회관	시립예술단	982-2722
김포심포니 오케스트라	10.19	조각공원	심포니오케스트라	985-5333
제9회 김포시백일장	10.20	조각공원	문인협회	988-3807
제4회 학생사생대회	10.20	조각공원	미술협회	988-3807
제4회 학생회화대회	10.20	조각공원	미술협회	988-3807
제4회 학생점토대회	10.20	조각공원	미술협회	982-1110
신명나는 풍물놀이	10.20	조각공원	김포문화원	982-1110
제1회 김포사국악제	10.20	조각공원	국악협회	984-8844
제6회 청소년가요제	10.20	조각공원	BBS김포지부	982-1110
신나는 시민영화제	10.20	조각공원	김포문화원	982-1110
동명 풍물놀이경연대회	10.21	조각공원	통진두레놀이	982-1110
통일기원 연날리기	10.21	조각공원	김포문화원	982-1110
두드락 초청특별공연	10.21	조각공원	김포문화원	982-1110
신나는 시민영화제	10.21	조각공원	김포문화원	982-1110
미술·사진·조각등전시회	10.19~25	조각공원	문화예술단체별	982-2722
제2회 조각축제	10.19~21	조각공원	김포시문화원	982-1110
제18회 금파문화제	10.19~21	조각공원	김포시문화원	982-1110

광주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제30회시민의날	9.27~28	광주엑스포행사장	광주시	760-2723
제6회남한산성문화제	10월중	광주엑스포행사장	광주시	760-2723

안양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안양시민축제	10.12~10.14	평촌중앙공원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	389-2064
문화의 날 기념식	10.20	안양문화회관	안양시문화원	449-4451

포천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반월문화제	10.14	청성문화체육공원	포천군문화원	536-1020
청소년음악회	10.12	포천군민회관	포천군문화원	536-1020
아동극 공연대회	10월	포천군민회관	포천군문화원	536-1020
봉래암서연한시백일장	10.9~10.10	길명사, 포천종교	포천군문화원	536-1020
제4회포천미술협회정기회원전	10.6~10.13	포천문화원	포천예총지부	531-8181
제3회 포천연극제	10.14	군민회관	포천예총지부	531-8181
정희자발레단공연	10.14	군민회관	포천예총지부	531-8181
포천군민과함께하는국악공연	10.13	산정호수 주차장	포천예총지부	531-8181
산정호수명성산악새꽃축제	10.13~10.14	산정호수 주차장	산정호수 관광지부	532-6135

하남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하남문화축제	9.21~23	하남시청 및 미관광장	하남시	790-6067

의왕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청소년 음악제	9.22	의왕시 여성회관	의왕시문화원	456-4994
제1회 백운예술제	10.6~14	의왕시 일원	의왕시문화원	456-4994

양주군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걱정" 영화관영	9.8, 9.22, 10.13, 10.27	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양주군	820-2472
양주문화제	10.20~22	문화회관, 양주별산대 전수회관	양주군문화원	840-6467

오산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시민의날경축청소년가요제	9.15	오산시민공원	오산시문화원	375-7755
시민의날 경축 백일장	9.15	오산시민공원	오산시문화원	375-7755
제5회독산성문화예술제	9월중	오산천잔디공원	오산시	375-7755
제12회시민의날행사	9월중	공설운동장시민회관	오산시	370-3064
강변미술제	9월중	오산천잔디공원	학원연합회미술분과위원회	373-4666
사진전시회	9월중	오산천잔디공원	오산사진인모임	374-3403
추기석전대제	10월중	화성갤러리사	성균관유도회오산지부	373-7351
오산·화성학생교원미전	10월중	화성교육청	화성교육청	374-3403
시민을위한음악의밤행사	10월중	롯데연수원	여성합창단	376-2078

양평군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백운문화제	9.20	군민회관	양평군	770-2472
제4회허수아비축제	9.20~10.31	양평군일대	양평군	770-2472
군민의날 행사	9.21	강상체육공원	양평군체육회	770-2145
메뚜기잡기행사	10.1~10.31	각읍면일대	양평군	770-2472
세계사물놀이겨루기한마당	10월중	용문산국민관광지	양평군	770-2472
은행나무축제	10월중	용문산국민관광지	양평군	770-2472

안성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주최)	문의전화
백석문화제	10월중	안성공설운동장	안성시문화원	673-2625
바우덕이 축제	10월중	안성공설운동장	안성시문화원	673-2625

여주군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후원)	문의전화
제2회 한글새김전	8.18~9.18	도자기엑스포행사장	목아박물관	885-9952
전통무용공연	8월~10월	도자기엑스포행사장	문화원, 서희경무용학원	880-1065
아름다운관광여주전국사진공모전	10.10~10.28	도자기엑스포행사장	한국사진작가협회여주군지부	011-329-4466
제1회대학가요제	9.23 18:00	도자기엑스포행사장	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회	880-1065
제1회세종전국국악경연대회	10.7 14:00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	880-1065
푸른솔음악회	10.13 14:00	도자기엑스포행사장	문화원, 푸른솔	883-3450
가마골사람들연극	9.6~9.7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연희극단	018-221-1924
제2회 대통령배항공스포츠포츠대회	9.8~10.21	남한강고수부지	(사)대한민국항공회	880-1146
전국별자리관측대회	10월중	도자기엑스포행사장	문화원, 여주천문동우회	883-3450
세종대왕 즉위식	10.9 17:00	도자기엑스포행사장	문화원, 전문기획사	880-1065
한글반포식및훈민정음발표	10.9 19:00	도자기엑스포행사장	문화원, 전문기획사	880-1065
외국인한글글씨쓰기대회	10.9 14:00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전문기획사	880-1965
쌍룡거줄다리기	10.9	도자기엑스포행사장	문화원, 점동면분회	883-3450
시화전	9.6~9.13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주문인협회	883-3450
수석전시회	9.15~9.19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주수석인연합회	883-3450
미려전	10.16~10.28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주군미술교사협의회	883-3450
은모래사진전	10월중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은모래사진동우회	883-3450
도예인협의회전	8.20~9.5	도자기엑스포행사장	도예인협의회	883-3450
문인협회 시화전	9.6~13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주군문화원	883-3450
수석인 연합회전	9.14~19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주군문화원	883-3450
은모래 사진전	9.20~26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주군문화원	883-3450
풍경보기전	9.27~10.4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주군문화원	883-3450
미술협회전	10.5~15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주군문화원	883-3450
미려전	10.16~28	도자기엑스포행사장	여주군문화원	883-3450
경기도학생백일장	10.8	세종대왕릉	여주군문화원	883-3450

동두천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후원)	문의전화
부모님과함께하는향토문화유적답사	9월중순	동두천시 관내	동두천시문화원	865-2923
국악협회동두천시지부발표회	9.6	시민회관 공연장	국악협회	865-5321
미술협회동두천시지부누드드로키전	9.22	시민회관 전시회	미술협회	863-0351
문인협회 동두천시지부 시화전	10월중	시민회관 전시회	문인협회	862-6729
국악경창대회	10.18	시민회관 공연장	국악협회	865-5321
소요문화제	10.5	소요산, 동두천시민회관	동두천시문화원	865-2923

과천시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후원)	문의전화
과천마당극제	9.14~23	집앞공연	과천마당극조직위원회	02)504-0947
시민장기·바둑대회	10.8 10:00	과천시청대강당	과천시문화원	02)504-6513
농악동물경연대회	10.9 14:00	과천시민회관	과천시문화원	02)504-6513
시조경창대회	10.10 16:00	과천시민회관	과천시문화원	02)504-6513
휘호대회	10.10	과천시청대강당	과천시문화원	02)504-6513
판줄외줄타기 공연	10.9 14:00	과천시민회관	과천시문화원	02)504-6513
필하모닉오케스트라장기연주회	10월중	과천시민회관	필하모닉오케스트라	02)502-1040
과천시민을위한춤의한마당	10월중	과천시민회관	필하모닉오케스트라	02)502-1040
과천축제	10.6~10.13	과천시민회관	과천예총, 과천문화원	504-6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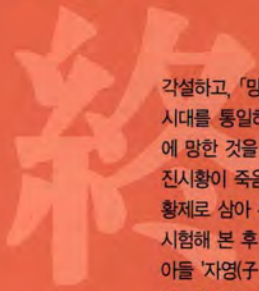
가평군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후원)	문의전화
향토유적지 탐방	9월중	관내 유적지	가평군문화원	582-2016
제4회북한강수상축제	9월말	북한강 일대	가평청년회의소	582-2741
군민의날 행사	10.7~10.9	가평문화예술회관	가평군문화원	582-2016

연천군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후원)	문의전화
군민의날 행사	9.16~18	연천공설운동장	연천문화원	834-2350
군민 백일장	9.16~18	연천문화원	연천문화원	834-2350

그 뒷 이야기



각설하고,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라는 속언이 한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에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처음으로 중앙집권적 군현제를 실시 제후세력을 제압, 처음으로 통일제국을 이룬 진나라가 15년만에 망한 것을 개탄하는 시속어이다.

진시황이 죽음에 앞서 장자 '부소(扶蘇)'를 후계자로 지명했으나 측근의 간신 '조고'는 후궁소생 '호해(胡亥)'를 허수아비 황제로 삼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시세에 영합했던 동조자 승상 '이사(李斯)'도 제거했고 「지록위마」의 권력을 시험해 본 후 '호해'마저 살해한다. 자신이 황제가 되려했으나 세상인심을 속일 수는 없는 법, 임시황제에 오른 부소의 아들 '자영(子嬰)'에 의해 죽고 만다. 소인배의 좁은 생각은 그것이 남을 해칠뿐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도를 걸었던 역사의 주인공 조광조 선생, 비록 그 길이 험난했으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었음이 일월처럼 뚜렷하게 오늘의 세태를 조명하고 있다. 그래서 선비는 춘추필법을 생명처럼 아꼈던 것이다. <해>

2:8 혹은 1:9,

듣고 부르기 민망한 패러디 한 토막

대머리의 가르마 비둘, 왼쪽과 오른쪽의 비례

그러나 새는 左, 右의 날개로 난다.

20:80 혹은 10:90

부유층 20, 서민층 80, 혹은 부자 10, 가난뱅이 90

어디에도 중간 가르마는 없다.

左, 右는 없고 上, 下만 있는 엮기 그래프.

풍사탕 먹던 시절에도

진보와 보수는 있었다.

엮기장관도 있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등가죽 시린 순도 100%의 공핍

사회는 2:8, 정치는 0.5:99.5

이런 法은 없었다.

아, 이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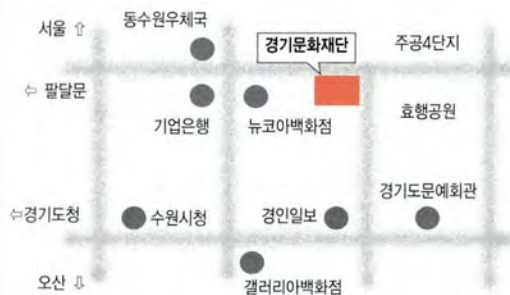
흙의 미래와 불의 역사가

순백의 달 향아리로 떠오른다. <동>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적 개최를 우려했던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畿甸』발행 통권 16호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별책이 붙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엑스포 여행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젠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이라 그런가, 추남(醜男)이라 그런가? 역류응모가 도사리고 있는 세상 핑개김에 인생무상(人生無常), 삶의 회의를 느낀다. 문화예술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심경(心鏡)이 될 수 있는 시 한 편, 그림 한 폭과 만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文>

경기문화재단 신사옥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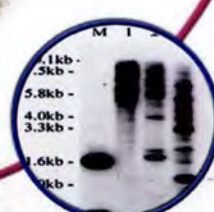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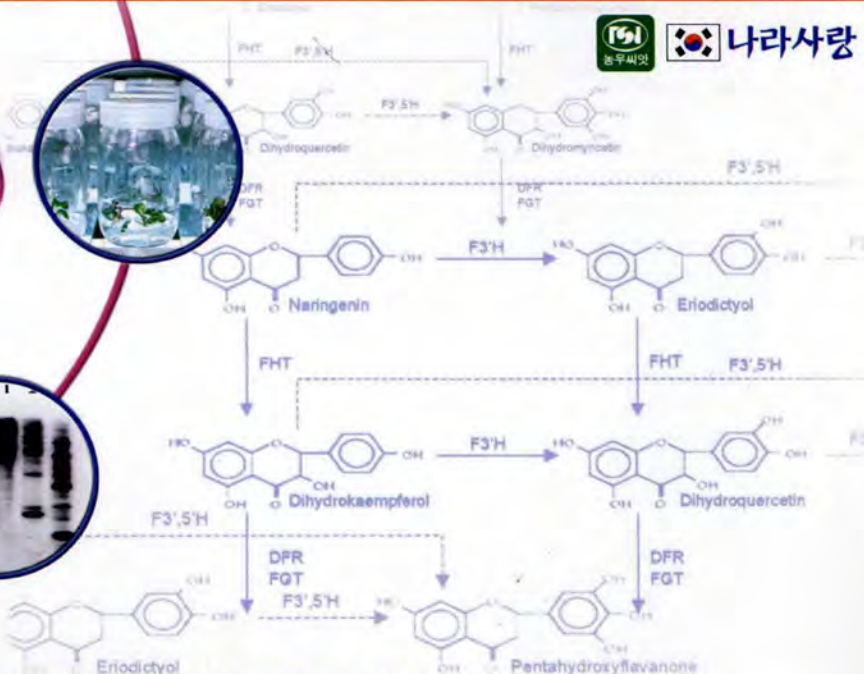
▷주소
442-070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전화
안 내 : 031-231-7200
031-231-7210
편집실 : 031-231-7255
F A X : 031-236-3708

▷층별안내
1층 : 안내
2층 : 전시실 · 문화사랑방
3층 : 다산홀 · 예지실 · 연습실
6층 : 회의실 · 강의실 · 디지털자료실
7층 : 사무실(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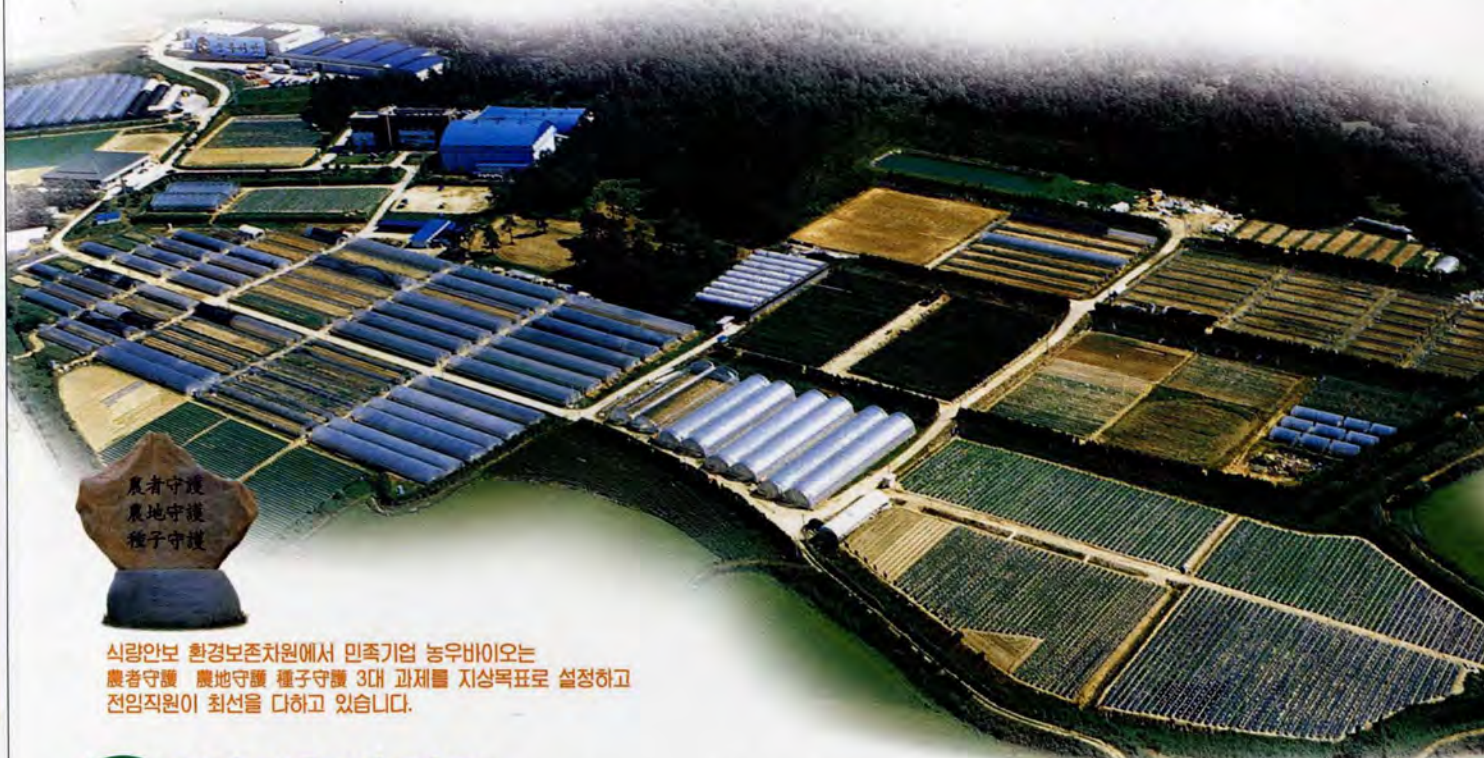


나라사랑



21세기는 생명공학의 시대

(주)농우바이오는 연구중심의 기업, 품질제일의 기업, 민족기업,
정직한 기업, 21세기 미래기업으로 우리씨앗을 지키고
전세계에 그 우수성을 심는데 게을리 하지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식량안보 환경보존차원에서 민족기업 농우바이오는
農者守護 農地守護 種子守護 3대 과제를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전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농우바이오

www.nongwoobio.co.kr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WORLD CERAMIC EXPOSITION 2001 KOREA

도자기의 새로운 미래가
경기도에서 펼쳐집니다

세계 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

[이천 · 여주 · 광주 2001.8.10 ~ 10.28]

‘흙으로 빛나는 미래’, 세계 도자기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급세기 최대 · 최고의 도자기엑스포가
인류 도자문화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 국제도자학술회의(2001년 9월 20일~22일)
- 제 39차 IAC집행위원회(2001년 9월 24일~26일)
- 이천 국제도자워크샵
- 여주 국제도자워크샵 및 세계민속도자워크샵



- 전시 : 세계도자문명전, 동북아시아도자교류전, 세계현대도자전,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한국현대도자전, 한국전통도자전, 세계도자디자인전, 세계원주민토기전, 옹기전, 첨단세라믹전, IAC회원전, NCECA회원전, 조선도공의 후예전, 세계도자기광장, 인형전 등
- 무료 셔틀버스 운행 : 3개 행사장간 및 서울과 수도권지역(성남, 수원, 안양, 구리, 양평, 문막, 원주) 연계 운행
- 전세계 도자기를 티켓 하나로 : 기본 입장료는 어른 기준 3지역 1만원, 1지역 7천원입니다. 예매가는 3지역 9천원, 1지역 6천원으로 전국 농협 및 티켓링크에서 판매합니다. 전화예매는 1588-7890. 자세한 사항은 031-237-8011/2나 www.worldceramic.org에서 알려드립니다



The 80 Days Journey of the World Ceramic

